



2

198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 2호

(루게 460)



◆◆◆◆◆◆◆◆◆◆

차 례

◆◆◆◆◆◆◆◆◆◆

사회주의경제건설전투를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하게 창작하자	4
우리 모르는 사이에	6
세월은 흘러가도	7
영원히 26 호선반을 따라	7
조선은 끝없이 전진한다 (외 1 편)	8
백두산	8
신갈파나루터에서	9
이 땅의 끝에서 부르는 노래	10
언제나 한번 더하는 마음	16
축전의 막은 내리지 않을것이다	17
날마다 만나는 사람	18
우리 문학에 형상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풍모	19
아, 그이께서 오신다!	24
어머님의 고향땅을 지나시며	24
나의 당생활	25
우산장에서	26
그날의 화차앞에서	28
휴식	29

정원길	30
전선	37
룡남산	45
봄빛	45
빛나는 삶	46
사회적문제의 제기와 형상적해명	49
한순간을 걷는다해도	51
다시 찾은 일터	52
신념의 맹세	53
표창장	54
석탄전선에 인사를	60
사회주의현실을 뜨겁게 노래하자	65
그는 살아있다	71
밤교대	76
《우리 마을》	76
검덕의 마음	77
나는 지금 한편의 시를 번역한다	78
속담풀이	78
조선로동당창건 40 뚝기념 전국 방송극 작품현상모집심사결과	79
박우물	80

사회주의경제건설전투를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하게 창작하자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올해 신년사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해벽두부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기적과 혁신, 위훈이 창조되고있는 이 땅의 모든곳에서 새해의 보람찬 전투에 들어선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들과 협동농민들, 청년돌격대원들의 후더운 숨결을 느낄수 있으며 언제나 그러했듯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그들의 눈썹은 심장의 고동을 들을수 있다.

지금 우리앞에는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 발양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교시를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물질기술적로대를 튼튼히 쌓고 이미 마련된 경제로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더잘 충족시킬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우리 문학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문학은 현실생활의 반영이며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려내는것은 문학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기본 요구이다. 문학은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그려내야 사람들에게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시킬수 있고 그들에게 참답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길을 가르쳐줄수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그 주인인 생산자대중이 그사업의 정당성과 의의를 알고 힘있게 펼쳐나갈 때 성과적으로 진척될수 있다. 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 발현되고있는 아름답고 숭고하고 영웅적인 기개와 혁명정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만 그들이 자기들의 투쟁에서 신심과 용기를 얻고 자각적열성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에서 계속 양양을 가져오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작가들이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려낸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무게있고 깊이있는 작품들이 많지 못하다.

물론 지난해에 우리 작가들이 쓴 문학작품들 가운데는 사회주의건설의 벽찬 현실속에서 살며 일하는 인간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생활세계를 그려내어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준 작품들도 있었으나 동시에 그 질적수준이 썩 높지 못한 작품들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작가들의 재능과 관련되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벽찬 현실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하는 그 립장과 자세와 관련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고무추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있는 벽찬 현실속에 뛰어들어가 그들과 기쁨도 행복도 함께 나누고 고난도 시련도 함께 이겨내면서 그들의 생활을 심장으로 체험하여야 한다.

린부들이 일하고있는 막장에도 찾아가고 산을 뚫고 벼랑을 극복하는 위훈이 세워지고있는 북부 철길건설장에도 찾아가야 하며 파도사나운 원해 어장과 풍년가을을 약속하는 협동벌에도 찾아가 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거기서 소설의 참된 주인공들을 만나볼수 있을것이며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과 혁명적인 정서를 느낄수 있을것이며 또 극적이고 낭만적인 생활의 산 화폭들을 볼수 있을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현실속의 인간들과 함께 살며 일하면서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될 때 작가들은 80년대 인간들의 전형적성격의 본질을 리해할수 있고 3대혁명의 기수들과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문학작품에 옳게 형상할수있으며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할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현실에 들어가도 높은 정치적식견과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생활을 대할 때에만 당의 경제정책이 관철되고있는 현실을 옳게 보고 그럴수 있으며 무엇보다 무게있고 가치있

는 종자를 찾아낼수 있다는것이다. 종자의 발견,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와 의의를 가르칠수있고 그들의 혁명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새롭고 본질적인 문제의 발견이다.

이러한 발견은 언제 어느때나 현실생활을 떠나서 탁상머리에서는 불가능한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고무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당의 결정, 지시를 관철하며 경제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 근로자들의 투쟁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요구하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맡겨진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빛나게 수행해나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속에 전형적인 생활이 있고 우리 사회의 본질이 있다.

작가들은 바로 이러한 벽천 투쟁속에서만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혁명적수령관 인생관을 감명깊게 형상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 이러한 생활속의 인간을 형상하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리고 거기에서 참신하고 특색있는 종자를 찾아쥐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언제나 견지해야 할 확고부동한 창작원칙이며 근본요구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건설투쟁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한다고 하여 그 사상에술적수준이 어느 정도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관점을 철저히 극복하는것이다.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는것과 작품의 사상에술적질사이에 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게 보는것은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때 대한 당의 방침에도 어긋나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 경제건설투쟁을 반영한 문학작품일수록 더 높은 사상에술적수준에서 훌륭하게 창작하는 창작가적 자세와 립장을 항상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고무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높은 사상에술적수준에서 훌륭하게 창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인간문제와 생산문제의 호상관계를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잘 풀어나가는것이다.

지난 시기 일부 사회주의경제건설투쟁을 반영한 문학작품들이 그 사상에술수준이 낮고 따라서 사람들의 감동과 흥분을 강하게 불러일으키지 못한것은 대부분 인간문제대신에 생산기술적문제를 내세우고 인간의 숭고한 사상정신적미를 높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보여주지 못한것과 많이 관련되어있다. 경제건설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생산기술적내용들을 언급할수

있으며 또 생활묘사를 통하여 그것을 화폭으로 펼쳐보여주는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문제시되는것은 인간문제보다 생산문제를 앞에 내세우고 인간을 형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보다 생산공정을 보여주는데 치우치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작가들은 생산활동을 그리는 경우에도 로동과정에서 발양되는 근로대중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데 모를 박고 형상을 집중하며 거기에서 성격을 탐구하고 심오한 인간문제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회주의경제건설투쟁을 반영한 문학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또한 독창성과 개성적특성을 옹계 구현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투쟁은 끝없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이러한 풍부한 생활과 투쟁으로 충만된 현실을 어떤 기성의 틀에한본새로 맞추어 도식화하고 류형화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작품에 새로운 어떤 문제의 제기도 없고 어떤 새로운 성격미도 없으며 특색있는 생활이나 특색있는 구성, 독창적인 수법이나 기교도 없다면 것처럼 재미없고 따분한것은 없을것이다.

현실주제의 작품들에서는 일부 아직 주제와 인간관계의 설정 및 해명에서 류사성을 철저히 극복하지 못하고있다.

지배인이나 기사장 직장장이나 갱장 등 인물들 또는 그와 류사한 지위에 있는 인물들이 주로 부정인물로 설정되는것을 독자들은 혹은 소설들에서 혹은 희극들에서 자주 보군한다. 반대로 이러한 부정인물들이 가지고있는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와 대립하여 투쟁을 벌라는 긍정인물들로서는 대체로 젊은 세대의 인물들이 설정되는것이 보통이었다. 물론 이런 설정이 옳은 경우도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작품들의 전부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실지 현실에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존재하며 그런 긍정인물들과 그런 부정인물들이 살며 또 일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한 작품과 다른 작품과의 류사성이 명백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작품은 이미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작품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는것을 우리 작가들은 항상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백명의 작가가 작품을 쓰면 내용과 형식이 서로 다르고 특색있는 백가지 작품이 나와야 한다.

작가들이 창작적개성이 서로 다르면서 작품은 비개성적이고 류사성을 범하고있다면 그것은 벌

써형상을 독창적인 안목과 비반복적인 예술적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개성에 맞게 그려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작가들이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하려면 형상수단과 수법, 기교도 비반복적으로 살려써야 한다.

형상수단과 수법, 기교를 독특하게 비반복적으로 살려쓸 줄 알아야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독창적으로 밝힐 수 있으며 종를 특색있고 아름다운 형상의 꽃으로 활짝 피울 수 있다.

기성의 사고방식, 기성의 수법, 기성의 투를 대담하게 버리고 새것을 탐구하고 새것을 창조하며

그것을 부단히 새롭게 갱신해나가는 여기에 진정한 창조의 세계가 있으며 독창성, 창작적개성의 본질이 있다. 그러나 개성을 살린다고 하면서

작가의 나쁜 버릇이나 수법, 기교에서 이색적인 것을 자기의 작품창작에 끌어들이서는 물론 안될 것이다.

작가의 개성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아름답고 고상한 미적지향과 일치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투쟁은 벽차고 보람찬 사업이며 무비의 헌신성과 위훈과 영웅주의를 낳게 하는 원천이다.

우리 작가들은 이 벽찬 현실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낸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전투에 펼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리정술

잠결에도

어린아기 이불깃을 살며시 여며주며
찬바람 맞을세라 키워가는
어머니의 그 사랑 자식이 다 모르듯
당이 주는 은혜로운 사랑
우리 다 알고있었던가

물결 정다운 대동강반에

새 주택구역이 키통울 할 때도
아침저녁 걷는 출퇴근길에
꽃피는 새 가로수가 설레일 때도
우리 다 알았던가, 거기에 깃든 사랑

별들이 내리는 문수거리 창가에서

아지를 품에 안고 자장가 부르는
저 어머니 어이 다 알라
어머니들에게 그 노래 주시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몇밤을 지새였는지

어이 다 알라. 웃고 떠들며

영화관을 나서는 젊은이들이야
스쳐가는 한쪽의 화면에도
그이 바치신 사랑이 깃들어있음을...

아 우리 모르는사이에

그이 지새우신 창가의 불빛
하늘에 펼친다면
하늘의 은하보다 더 맑으려

우리 모르는 사이

우리를 위해 걸으시는 그 자욱

땅우에 펼친다면
온 나라 집집의 트랙에
당지 않는곳 없으리

그래서 저녁에도

내 생각는 마음
이 하루
우리 모르게 받은 사랑 그 얼마일가

그래서 아침에도

자고 깨여 일어나면 뜨거운 마음
우리 잠든사이 받은 사랑
또 얼마일가

행복에 겨우면 행복에 겨워

그것을 가꾼 손길을 잊듯이
날마다 생각마다 사랑속에 사니
그사랑 미처 다 모르고 산 우리

아, 눈에 보이는 사랑

알고 받는 사랑만 가지고
그 사랑을 다 안다고 어찌 말하라
자기 모르게 받은 사랑 더 많거니

우리 걷는 길

우리 사는 거리
우리 늘 바라보는 하늘과 땅
그 어디나 이런 은정이 차넘치고있구나

세월은 흘러가도

구희철

어제는
검덕의 험한 령길에서
현지지도의 길 이어가시는
수령님 타신 승용차
내리는 눈발속에 바래왔는데

오늘은
파도세찬 서해기슭
갑문건설장을 찾아
작은 배를 타고 오신 수령님
흔들리는 그 갑판을 바라보았네

그날은 또 언제
먼 북방의 작은 역
제철지구 밤구내에 서있는
수령님 계신 숙영차
흘러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던 때는...

늘 내 마음속엔
승용차의 숙영차 작은 배는 지났어도

그날의 눈발이 보여오고
그 길의 불빛이 어려오네

조용히 새벽 이슬 흐르는 승용차에서
아침끼니를 검소히 예우시기도
때로 숙영차에 불뵈히시고
현지에서 정치위원회도 여시며
흘러보낸 날과 달과 해들은 얼마였던가

눈비 많이 오는 백두산에서
따뜻한 아래목을 모르시고 수십년
건국의 그날에 전쟁의 그 길에
휴식 한번 모르시고 또 수십년!

오, 우리 수령님!
기나긴 한평생
집이 되고, 집무실이 되고, 당중앙청사가 된
그 한겹 엷은 승용차 숙영차
세월은 흘러도 멈출줄 모르고 달리네

영원히 26 호선반을 따라

리의석

창조의 나날은 보람도 차라
하루일 끝내고 선반결을 떠나다도
문득 다시금 돌아서서
나는 너를 오래도록 지켜본다

불수록 정답게 안겨오는
나의 선반 《모범기대》여
너는 눈동자처럼 귀중해
꿈결에도 너를 안고 사는 마음-

만부하의 동음속에 제품을 깎을 때에도
기름물은 손으로 먼지를 닦을 때에도
마음속의 거울인양 언제나 어려오는
26호선반은 나를 불러주더라
기대의 참된 주인으로...

아, 한생을 그 기대와 함께
쇠덩어리를 깎으시려는듯
그리고 정히, 그리고 살뜰히
선반을 다루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한점의 티가 앓을세라
닳고 닳으시여 윤기돌던 26호선반
선반공주인도 미처몰랐던
메워진 작은 주유구멍까지 헤아려
기름을 주시던 그 사랑

그 사랑 안고 그 은정 안고
나의 선반도 영원한 청춘기 되찾았거니
고르로운 동음속에 쌓여지는 제품속에
언제나 빛을 뿌리는 모범기대여

만일 순간이라도
내 선반우에 한점 먼지가 앓는다면
당의 뜻 꽃피우는 그 길에서
순결한 마음에 티가 앓은것 아니나

선반이여
너는 당이 나에게 안겨준 전투무기
오직 너와 함께만 빛날수 있어
영원히 26호선반을 따라
청춘기대로 꽃피울 사랑의 기대여

조선은 끝없이 전진한다 외 1편

부바까르 까마라

웅장하구나
끝간데를 모르는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어찌 믿을수 있으랴
지평성에 잇닿은 벨트콘베아
날아가는 갈매기들도 그우에서 쉬어야 하고
그 한끝에서 해가 솟고 지며
그 한끝에서 달이 뜨고 진다

버럭 실은 수백대의 화물차들이 감탕길을 달리며
일으키던
먼지구름은 사라지고
콘베아운전공처녀의 노래소리 즐겁구나
구내길엔 들장미 만발하여라

보통사람들이야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광석이 아니라 버럭을 나르는 벨트콘베아를

밝은 미소 지으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선언하시였어라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를 건설하자고
버력으로 바다를 막으면
먼 후날 조국엔 새 벌이 생길것이라고

사람들은 알게 되리라
공상으로만 생각되던것
그이께서만이 현실로 보시였음을

하여

논벌엔 황금이삭 물결치고
파원엔 열매 주렁지며
섬들은 하나로 이어져
현대적이고 아담한 살림집들 늘어선
아름다운 마을이 펼쳐지리라
그이의 구상대로
바다우에 새 마을이 생겨나리

그이께서는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신다
대담하고 통이크게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신다
오, 조선이여
그이의 위대한 심장의 고동소리를 뚫는 조선
그대의 번영 무궁하여라

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세워주신
은률의 벨트콘베아 기념비적창조물이여
그대는 자연을 정복하는 위대한 인간의 힘의
상징
조선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의 상징
주체사상이 밝혀준 인간의 창조적의지의 생동한
상징이여라

조선은 나아간다 앞으로 앞으로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주체시대의 빛나는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끝없이 뻗어간 저 벨트콘베아처럼

백두산

천리수해와 운무속에 아아히 솟은
백두산 조선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
너의 뿌리 간곳 어디냐
창공에 치솟은 매부리들
머리우에 불타는 노을
아, 장엄하여라 위대하여라 백두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향이여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
처음으로 보신 넓고넓은 하늘
그것은 조선의 지붕
태고로부터 흐르는 천지의 맑은물은
고향집의 정가로운 샘물

눈속에 피어나는 만병초는 그윽한 향기풍기고
끝없이 펼쳐진 수림은 조선의 마당
그이 여기에서 첫걸음 익히시였어라
아버지장군님께서
일제놈들을 무찌르러 싸움터로 나가시면
군복입은 어머님품에 안기시여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였어라

오, 백두산 혁명의 성산이여
너는
그이의 어린시절의 잊지 못할 그 사연을 전하는
증견자이여라
위대한 장군님
사령부천막의 등불밑에서

지도우에 붉은 화살 그어가실제
 그이께서는
 총을 메고 사령부를 보위하시는 어머님곁에서
 별이 총총한 조국의 밤하늘을 바라보시며
 조선의 미래를 그리시였어라

말하라 백두산아
 하늘에 닿은 산
 항일전의 포성 요란한 산중에
 고향을 둔 이 어디에 또 있더나

김일성 장군님의 령도아래
 20성상의 혁명투쟁력사 아로새겨진 백두산
 너는
 찬란한 향도성을 낳은 혁명의 고향

오, 백두산 너는 혁명의 요람
 너는 영광의 땅
김일성 주석의 고향 만경대와 더불어
 세기에 영원히 빛나리
 인류의 영원한 태양을 낳은 고향이기에

(세네갈시인)

신갈파나루터에서

김상조

꿈결에도 오고싶던곳이어서
 이처럼 발걸음 뻗을 수 없으나
 어머님 우러러 단숨에 달려온 마음이어서
 이 가슴 이리도 뜨거워지는것이니

그날처럼 오, 그날처럼
 물소리 높이 들려주는 나루
 장군님의 너전사
 혁명의 척후병되어 넘나드신
 신갈파나루여

너는 오늘도
 대안에 서신 어머님 모셔올듯
 신음하는 이 나라 인민들 가슴에
 광복의 해발 가득히 안겨주고
 백두산으로 떠나시던 어머님 모셔드릴듯

떠올라라
 떠올라라
 자지색저고리에 깡장치마 입으시고
 푸르른 산밭들에 정찬 눈길 보내시며
 흔들리는 배우에 말없이 앉아계시던 어머님

삼엄한 수색의 칼부림속에서도
 원쑤의 검은 눈알 멀리 따돌리시고
 유격대에 보내는 원호물자며
 사령부에 보내는 정찰자료들을
 품안아 건네우시는 숭엄한 모습

가물거리는 등잔불아래

저주로운 세상의 까막눈을 띄우고
 혁명의 노래를 배운 너성들
 이 나루가에 원호물자 이고나왔고

원쑤의 총 빼앗아들고
 갈길 몰라 헤매던 무산청년
 지하조직의 어엿한 성원되어
 빼라살포의 밤길 달렸더라
 이 나루 건너
 백두산밀영 찾아 길떠났더라

치욕과 한숨
 원한의 피눈물만이 고여흐르던
 신갈파나루여, 너는
 투쟁의 나루

너는 정녕
 어머님따라 혁명의 큰 배우에 오른
 이 나라 수천만 겨레들을
 장군님 계시는 사령부기슭으로 떠밀어준
 영광의 나루

아, 그날의 이야기 전하는듯
 물소리 높은 신갈파나루 신갈파나루
 너는 오늘도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의 가슴속에
 심어주고있구나
 위대한 어머님의 불멸의 영상은
 장군님 길이 받드신 어머님의 다함없는 그
 충성의 노래를!

이 땅의 끝에서 부르는 노래

김진옥

북으로 천리

차바퀴소리
차바퀴소리

해빛도 줄달음치는 궤도우에
이음새를 두드리며 넘고넘어가는
차바퀴소리
차바퀴소리...

달아오른 궤도우에
달아오른 바퀴우에
그 무슨 사연이 실리였는가

고압선을 떠받든 흰 탑주도
다가오는 산발도 언뜩언뜩
별마저 격류인양 흘러가는 차창가

운성의 마음도
달리고달리어 나래를 편다
북으로 천리
야금기지의 하늘가에

아, 거기엔 있으리
강철전선의 한 로당원
병마와 싸우며
침상우에 누워있는 한 일군

얼마나 그를 믿어주시고
얼마나 그를 부르고싶으셨으면
이런 사랑
이런 은덕 베풀어주셨으랴

차바퀴소리
차바퀴소리
건뚫 들어올린 차창가에
시원한 바다바람 흘러들건만
운성의 가슴은 후더움에 젖어올라라
아, 못잊을 생각, 못잊을 그 밤이여

...

자정이 넘은 당중앙청사
고요히 불빛 넘쳐흐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집무실

몇밤을 지새시며 새벽을 맞으시는가
탁상우에 쌓인 두툼한 문건들
당 제6차대회의 토론문과 결정서들

한장한장 번저가시며
글줄마다 친히 가필도 하시고...
자그마한 빈틈도 있을세라
보아주고 또 보아주시는 일정계획들

이제는 마지막으로
비준해주셔야 할 이 밤
그이께선 대표자명단을 번지시며
다시금 이름들을 짚어내려가신다

끝없는 밀림과 눈보라의 행군길에서
우리 당의 뿌리를 마련한 투사들
희스희 머리 세인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더듬으시는 지도자동지

해방산기슭의 단풍든 그 가을날
창립대회에 모여왔던 첫 대표들
푸른 하늘 높이높이
우리 당의 기발을 추켜들던 당원들

불타는 고지와 시련의 도하장에서
당을 받들어 굴함없이 싸워온 당원들
구내길과 발머리에서 낮익힌 얼굴들을
빠짐없이 더듬어가시던 지도자동지

문득 떠오르시는 생각
그 누구에게 미치셨는가
명단을 뒤번지며 찾으시더니
여기엔 그가 없음을 확인하시고
못내 서운해하시는 안색...

이윽하여 방안에 들어선 운성이
조용히 탁상앞에 다가섰을 때
그이께선 명단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신채
물으시여라, 한 평범한 당원에 대해

《××제철소의 오랜 당원이며
지금은 고문으로 사임하고있는
고상배동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얼마전에 생긴 질환으로 하여
입원치료중에 있다고 합니다》

《치료중에 있단 말이지...
우리가 잘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병석에 눕게 하다니》

가슴아프시여
더는 진정하지 못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신 지도자동지
창가에 다가서시여
멀리 기울어져가는 별무리를 바라보시여라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그이의 눈길이 미쳐가는곳에서
별빛은 유난히도 반짝이고있었다
그리도 못잊으시는 당원의 그 얼굴인듯

보고싶으시여
대회에 부르고싶으시여
한자리에 못박히신듯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하시여라

《그 동무도 지금 잠 못들고있을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밤을 새고있는데
그의 마음인들 다들바 있겠습니까

그 동무는 누구보다도 오랜 당원입니다
해방직후 체철소에 첫 세포가 조직될 때
다섯명 당원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당 창립대회에 그가 참석했을 때
수령님께선 그의 손을 꼭 틀어쥐시고
이 손이 쇠물을 뽑아내는 손이라고
우리는 바로 로동계급의 이 무쇠주먹을
당기발에 마치로 새겨넣었다고
뜨겁게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을 받들어 한생을 바쳐오며
우리 당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강철로 당을 사수해온 동무입니다》

마디마디 더듬으시는 말씀을
윤성이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명단에 없는 한 당원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는 그 심중을...

한걸음 한걸음

그이의 등뒤에 다가선 윤성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이런 경우야
어쩔수 없지 않는가
《저희들도 료해해봤습니다만
않는 몸으로는 도저히...》

《아닙니다
당을 받들어 성실히 일해온 그를
멀리에 떨구어둔다면
당대회에는 빈구석이 생길겁니다》

천천히 돌아서신 그이께서는
다시 자리에 와서 앉으시더니
명단의 마지막 여백을 번지시고
철필을 드시여라

《이 순간에도
당중앙청사우에 휘날리는 기발에서는
고상배동무가 높이 올리는
그 힘찬 마치소리가 울리고있습니다》

아아,
그이께서 드신 크나큰 붓이여
그이께서 드신 뜨거운 붓이여
이 걱정외 순간에
그 어떤 글발이 새겨질것이나

-고상배, 결의권대표...

윤성은 받아들였다
대표자명단을
그이께서 친히 써넣어주신 이름을

...
차바퀴소리
차바퀴소리
북으로 천리 야금기지로
급행렬차는 달린다

달아오른 궤도우에
달아오른 바퀴우에
그 어떤 가슴으로도 받아안을수 없는 무게
사랑의 전설이 실려간다

길이 생겨
궤도가 생겨
천만재부가 실려여갔고
천만기쁨이 전해져갔어도

그 언제
그 어느 세월
이런 소식, 이런 사변이
너의 길우에 실린적 있었더냐

너의 궤도우에 꽃피난적 있었더냐

아, 길이어, 조선의 길이어!
아, 길이어, 조선와 철길이어!

받아안은 대표증

날이 밝는다
날이 밝는다

입원실 창문가에 쇠내를 풍기며
비약의 열풍안고
몰아쳐오는 송풍기소리

몇날을 모대기며
몇밤을 지새이며
또 하루 맞는 이 아침인가
침상우에 누운채
창가에서 시선을 못떼는 상배

영광의 날,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자고
로결에서 자고 일며 쇠물을 끓이고
강철의 날가리를 쌓아가던 나날...

인제는 내 힘이 진했던단말인가
인제는 내 몸이 구새먹었던말인가
세월의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고목으로 쓰러졌단말인가

일력장을 번지며
손뎛아 세여보며
온 나라가 마중하는 그날을 앞두고
이렇게 영영 쓰러졌단말인가

상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 추억의 노를 저었다
펄펄 뛰던 20대의 그 시절
제철소의 로동자대표로
당 창립대회에 참가했던 그날

아버이수령님께서 쓸어만져보시며
강철기둥으로 나라를 떠받든
로동계급의 억센 손이라고
우리는 바로 동무의 이 무쇠주먹을
당기발에 마치로 새겨넣었다고
그리도 큰 믿음을 안겨주시던 일...

그때로부터 20여년세월이 흘러
용해장에 찾아오신 지도자동지

수령님께서 잡아주신 보배손이라고
오래도록 놓지 못하시며
종과놈들이 당을 공격해나섰을 때
수령님을 옹호하여 잘 싸운 동무라고

로보수시간을 줄여
더 많은 쇠물을 쏟아내자고
식지 않은 로안에 뛰어들었이
바로 이 동무였다고

화상입은 두손을 꼭 쥐시고
오래도록 쓸어만지시며
이런 동무들이 있어
이런 무쇠기둥에 받들려
우리 당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고

나는 언제나
당중앙청사우에 휘날리는 기발에서
고상배동무가 높이 울리는
그 힘찬 마치소리를 듣는다고
뜨겁게 남기신 말씀...

상배는 눈을 떴다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잡아주신 손
그리도 크나큰 믿음을 주신 손...
이 손이 지금 어디에 와있는가
당이 바라고 당이 요구하는
수많은 일감을 남겨놓은채
이 손은 지금 어디에 와있는가

이제는 이 손이 쓸모없단말인가
이제는 이 손에 녹이 쓴단말인가
아, 밀려오고밀려와 흥벽을 치는 물갈기여
부서져 흩날리는 자책의 아픔이어

인제는 더는 이 손으로
쇠물을 다루지 못한단말인가
인제는 더는 이 손으로
당을 받들지 못한단말인가

가슴 에이는 아픔에
온몸을 뒤채이며
침대머리를 틀어잡는 상배
창문가를 우리르며 목놓아 불렀다

-어버이수령님!!...

순간

그 어디에서 화답해오는 소리인가
고르롭고도 부드러운 동음이
마당가에 미끄러져 들어오는 소리...

현관의 층계우에

긴 복도에

다그쳐 울려오는 발자국소리
런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

그 어떤 승엄함이

방안에 넘치도록 흘러드는가
침대가에 다가신 원장
그 뒤에 한 일군(그는 윤성)

자리에 일어나앉은 상배에게

윤성이 뜨겁게 입을 연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
고상배동지를 결의권대표로
친히 선출해주셨습니다》

《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병석에 있는 저를 대표로?...》

《병석에 계시어도

고상배동지를 멀리 떨구어둔다면
당대회에 빈구석이 생길게라고 하시며
친히 명단에 이름을 써넣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대회장에 올수 없는 몸이니
실황을 중계하는 텔레비존앞에서
대회에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텔레비존앞에서?...》

떨리는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순간에 복받치는 오열은

견잡을수 없는 흐느낌으로 변하여
눈곱에 피여오른 뜨거운것이
후두둑 소리내여 떨어저
흰 백포자락을 적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엄숙히 전달하는 윤성의 손에서

대표증과 선물을 받아든 상배

이것이 꿈인가?

이것이 생시인가?

-대표증

이름, 고상배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대표임을 증명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받아든 대표증

떨리는 두손...

흐리어

눈앞이 흐리어

읽을수 없이 범벅이 되는 글발

이제 더는

쇠물을 다루지 못하리라던 손에

이제 더는

마치소리를 울리지 못하리라던 손에
붉은 대표증이 들리어있다

순간

달아오른 그 손에

번쩍이는 그 추억에

광! 광! 흥벽이 울리는 소리

광! 광! 땅의 한복판이 갈라지는 소리

용암을 터치고

뢰성을 부르는 힘-

그 어디에서 실리어왔는가

그 어디에서 솟구쳐올랐는가

사랑의 심연

은덕의 절정

한 당원의 가슴에 받아안기엔

너무나도 뜨거운것이였고

너무나도 아름답것이였나니

아아-

물어보자, 당원들이여, 사람들이여

당이 생겨

당력사가 흘러

어느 나라 어느 당에

영느 나라 어느 당대회에

이런 대표증이, 이런 대표자가 있었던가!

오, 당이여

조선로동당이여!

...

영광의 대회장

거울앞에 선다
거울앞에 선다

수정같이 맑고맑은 그속에
몇번 다시
그 몇번 다시 비춰보는가
마음도 속속들이
옷매무시도 구김없이

알지 말고
청춘으로 되 젊어지라고
생기에 찬, 활력에 넘친
하늘색을 골라 보내주신
선물양복

산뜻한 와이샤쓰에
넥타이도 다시 매여보고
옷깃도 다시 여미여보고
병색도 가셔지고
주름살도 퍼지여
10년은 되 젊어진 얼굴을
보고 또 보는 상배

인간의 삶
당원의 가치
내 지금 어디에 서있느냐
어느 상상봉우에 서있느냐

북받쳐오르는 뜨거움
터져오르는 격정을 누르며
가슴 들먹이는 상배에게로
조용히 들어서는 윤성이

이런 순간에
무슨 말이 소용이라
입장할 시간이 다 되었음을
서로의 눈길로 주고받으며
승엄한 발걸음 함께 옮기여라

복도에 나선 상배와 윤성이
한계단 또 한계단 층층계를 딛고 올라
승엄한 정숙이 짓든
어느 한 방앞에 떳어선다

이 방이
이 방이 입장할 방이란말인가

아, 뜨거워오르는 심장
품속에 손을 넣어 대표증을 꺼내들며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배

윤성이 먼저 문을 여니
밝은 햇빛속에 고요가 어린 방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초상화아래
정히 놓여있는 텔레비존 한대
그앞에 마련된 하나의 좌석

상배는 방안에 들어섰으나
굳어진듯 발걸음 옮기지 못한다
하나의 텔레비존만을 바라볼뿐
하나의 좌석만을 바라볼뿐

《고상배대표동지
이 자리는 ○○○○번을 가진
당 제6차대회의 좌석입니다》

상배는 자리에 다가섰다
하나의 방
하나의 자리
이 방, 이 자리가 대회장이구나!

천리 먼곳에 떨어져있어도
수도에 마련된 대회장은
수많은 대표들의 좌석을 이어
여까지 련번호를 달아온것이구나...

앉을수 없어
앉을수 없어
의자의 등받이와
꼭신한 비로도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는 상배의 손길...

인제는 시간이 되었다고 .
굳이 설유하여
자리를 권하고난 윤성이
텔레비존앞으로 걸음 옮긴다

화면에 어리는 천연색-
수도의 푸른 하늘
수도의 밝은 거리
뒤이어 울리는 방송원의 목소리

《지금부터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실황을
현장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아, 눈앞에 펼쳐졌다
당기발이 휘날리는 장엄한 배경에
수령님의 초상화를 높이 모신
대회의 주석단...

승엄함이 어린 대표들의 얼굴
뜨거움이 굽이치는 만장의 가슴
이제나저제나
초침소리만이 맥박쳐 울릴 뿐...

저 높은 연단우에서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 울릴 것인가
우리 당의 발전의 길에
우리 조국의 미래에

저 높은 연단우에서
얼마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질 것인가
우리의 운명과
우리 삶의 기쁨에

이날을 위하여
이 시각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안고
크나큰 소원안고
온 나라가 달려왔거니

설레이던 이삭들도 숨을 죽이고
우뢰치던 쇠돌산도 정숙에 잠기고
집집의 창문들이 다 열려
온 나라가 귀기울이는 이 시각

...
터져오른다!
땅의 진동...
땅의 활화산...

만세!!-
만세!!-
만세!!-

아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나오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영광의 날이여라

격동의 순간이여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당대회 주석단에 함께 모신 이 기쁨

만세!!-
만세!!-
만세!!-
상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추켜드는 두손
추켜올리는 두손
...

그 손을
그 손을
높이높이 우러르며
운성이라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 붉은 대표증을
붉은 대표증을 높이 든 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병석에 있던 이 고상배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대표증을 들고
당 제6차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흐느끼며 흐느끼며
삼가 감사를 올라는 이 시각에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보고계시여라
장내를 굽어보시는 그 시선으로
천리 북방에 정해주신 자리
○○○○좌석의 대표의 얼굴을

그리고 듣고계시여라
달아오른 강철심장의 그 고동소리를
불타는 강철심장의 그 맹세를
수령님을 우러러
당중앙을 우러러
높이높이 올리는 무쇠마치소리를

당을 받들어 성실히 일해온 그를
멀리에 떨구어둔다면
당대회에는 빈구석이 생길게라고

이 순간에도
당중앙청사우에 휘날리는 기발에서는
고상배동무가 높이 올리는
그 힘찬 마치소리가 울리고있다고

그리도 뜨겁게 하시던 말씀

아아, 북으로 천리
좌석은 이 땅의 끝에 있어도
그이의 시선이 뜨겁게 미쳐와
대표의 얼굴을 보고계시고
심장속에 뛰는 고동소리마저
놓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기에

대회장은 하나
대회장은 온 나라
지붕은 머리우에
푸른 하늘로 들려있고
좌석은 이 땅우에
끝없는 련번호로 이어져

전당의
수백만이
전국의
수천만이
하나의 대회에 참석한 나라여!

강산을 진감하는 환호성, 환호성...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 당의 수위에
변함없이 받들어모시는 대회장이여

만세!!-
만세!!-
만세!!-

상배는 두손을 내리울줄 모른다

아, 무쇠주먹이 울리는 소리
아, 무쇠마치가 울리는 소리
이 땅의 끝에서 부르는 노래
이 땅의 한복판으로 울려가는 노래

기발이여
기발이여
우리 당의 불멸의 기치여
높이 휘날려라, 당중앙청사우에!

그 기발을 틀어쥔 손
그 기발을 추켜든 손
윤성은 바라본다, 이 모든것을
결의권을 행사하는 고상배의 손
채택되는 결정들과 선거되는 지도기관에
대표증을 들어 대표증을 높이 들어
찬성을 표시하는 로당원의 그 손을

아아-
무쇠주먹에 떠받들린 당이여
무쇠마치소리 울리는 당이여
천만의 심장속에 뿌리내리고
천만의 숨결속에 살아숨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
조선의 영원한 봄날을 꽃피우는
위대한 사랑, 혁명의 무궁한 해발이여!

언제나 한번 더하는 마음

황인섭

소조원이 남긴 말 그 얼마나 뜻깊으면
농장원들 날마다 외워보는가
힘들 때나 기쁠 때면
노래처럼 이름처럼 불러보는가

모내는 기계 타고 노래도 흥얼흥얼
또 한배미 모를 내고 툇을 넘을제
잠간만 쉬라고 담배 한대 권했더니
하얀 이 드리내며 웃음속에 대답한 말
-잠간만 더 하구요!
잠간만 더 하구요!

네벌김 끝마친 자랑을 안고
지녁길에 오르던 우리 마을 농장원들

소조원을 부르며 걸음 멈출 때
제초기를 잡은채 머리만 끄덕이며
소조원의 대답은 변함없었네
-잠간만 더 하구요!
잠간만 더 하구요!

그 마음에 뿌리내려 열매를 맺어
례년에 못보던 만풍년 들었는가
구름우에 두둥실 높이 솟은 벼넉거리
사람마다 흐뭇하니 바라보고 섰는데
소조원은 오늘도 아쉬움을 못참네
-저 우에다 한돌기만 더 쌓아놓았으면...
저 우에다 한돌기만 더 쌓아놓았으면...

축전의 막은 내리지 않을것이다

박창민

2월이 왔다.

환희로운 2월

해빛밝은 락원의 이 강산에 생의 기쁨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봄을 주는 은혜로운 당을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2월.

주체시대 혁명이 승승장구할 태일을 약속하는 찬란한 해돋이가 시작된 경사로운 이른봄날에 사람들은 우리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영원히 맡기고 따르는 은혜로운 향도의 품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을 행복에 넘치거나 경사를 많이할 때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행복한곳에는 노래와 춤이 있기 마련이다.

2월을 맞는 조국은 그 어디를 가나 하나의 예술축전무대를 방불케 하고있다.

얼마전에 나는 한 항일혁명투사를 만나기 위해 그가 일하는 기관을 찾아갔다.

《지금 무대에 있어요. 한장 런슘중인데...》

접수실처녀의 말이였다.

정말 그 항일혁명투사는 무대우에 있었다.

그는 장군별을 우리러 헤쳐온 조선혁명의 길을 향도성을 우리러 역세계 이어갈 우리 혁명의 1세, 2세, 3세들의 충성의 맹세를 노래한 시와 이야기의 주인공역을 맡고있었다.

참으로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 감동적인 확박이였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난 지금 조선의 밤하늘에 솟은 장군별을 우리러 감격에 울며 <조선의 별>을 부르던 그때의 심정입니다.

이건 예술소조공연이 아니라 전사의 가슴속에 차고넘치는 행복과 환희의 폭발이지요.》

웅심깊은 뜻을 가지고 지력있게 울리는 그의 말은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2월의 새벽하늘에 금빛노을을 펼치며 찬란히 솟아오른 향도의 별, 그 태양의 빛발을 가슴가슴에 받아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생각하고있을것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백두에서 솟은 향도성이 있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이어갈수 있게 되었고 우리 혁명의 중국적승리로 이끌 위대한 향도의 기치가

혁명의 진두에 휘날리게 되었다는 그 행복과 환희가그대로 노래로 되고 춤이 되어 하나의 무대로 펼쳐진 우리 조국은 얼마나 큰 경사로 설레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만나자면 의례히 《무대》를 찾아가야 한다.

나는 중앙기관의 어느 책임일군도 그렇게 만났다.

그는 향도의 별 빛나는 조선의 영광을 노래하는 중창에서 선창을 하는데 어찌나 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감정을 안고 부르는지 눈곱이 축축히 젖어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이름할수 없는 숭엄한 감정의 밀물이 가슴가득 흘러들었다.

지금 2월의 하늘에는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충성의 노래, 축원의 노래로 가득차있다.

인민군부대에 가면 장령과 전사들이 무대에 올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러 노래부르고 공장, 기업소에 가면 지배인이며 당비서들이 로동자들과 함께 영원히 그이를 따라갈 맹세를 담아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고 재담을 하고 악기를 연주한다.

그 어느 기관, 그 어느 부서에 들려도 하나의 선률에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참으로 조국이 그대로 하나의 커다란 무대라면 전체 인민은 출연자, 배우라고 해야 할것이다.

전국예술축전도, 그 무슨 예술경연도 아닌데 어찌하여 온 나라가 그대로 무대가 되고 우리 인민모두가 그대로 배우가 되였는가.

그것은 우리 당을 향도하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열화같은 흠모의 정의 폭포이며 자신들의 삶을 꽃피워주시고 먼 앞날까지 이끌어주시는 그이에 대한 전인민적인 충성의 송가인것이다.

자신들의 운명은 물론 후대들의 장래와 운명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보살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위대한 사랑을 주시여 곡절많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까지도 마음의 그늘을가시고 삶의 보람으로 가슴 설레게 하는 고마운 그 품!

꽃을 피우지 못하는 고목은 배여버리고 새 나무를 심듯이 사람이 늙으면 물려나갔는것이 인생의 리치이건만 은혜로운 당의 해빛은 고목에도 꽃을 피워준다.

은혜로운 그 품이 있어 철부지아이들로부터 인

생말년의 고향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인민들이
당의 품에 모든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한가닥의
시름도 없이 오늘의 행복과 래일의 희망으로 부
풀어오르는 기쁨을 안고 혁명적량만과 정열에 넘
쳐 값높고 보람있는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이 땅에 흘러넘치는 그 감정이 노래가 되고 춤
이 되어 이렇게 축원의 무대, 충성의 무대를 펼
쳐놓는것이 아닌가.

무릇 노래는 시대의 감정이며 동시에 인간들의
감정이며 시대의 정신, 시대의 지향이라고 한다.
노래와 춤은 언제나 시대를 반영한다.

격동적이고 환희로운 생활이 없이는 환희로운
노래와 춤을 생각할수 없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무대에 오르는 이 감동적
인 사변을 그런 거대한 감정과 지향이 없이 생각
할수 있으랴.

영광스러운 주체시대의 위대한 령도자로 나서
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무한히 흠모하고 따르
는 인민의 감정이 하나의 거류가 되어 시대의
한복판을 유유히 흘러가니 이렇게 하나의 무대가
펼쳐지고 하나의 목소리가 울리고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조국의 력사에는 이렇게 온
나라가 무대가 되고 전체 인민이 출연자가 된 격
동적인 시기가 많았다.

일제통치의 암담하던 시기 조국과 민족을 구원
해주실 민족의 태양,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장군

님을 맞이하여 삼천만은 환희에 넘쳐 《조선의
별》을 부르고 불렀다.

우리 인민들이 것처럼 갈망하던 세기적속원인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었을 때는 이 나라 그 어
느 마을, 그 어느 발머리에서나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어 팽파리를 울리고 북을
치며 춤판이 벌어졌다.

조국의 운명을 관가리하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
에는 우리 인민모두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미체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이 땅을 피로
써 사수하였다.

그때 화선악기를 울리며 불타는 전호속에서 승
리의 노래를 부르던 우리 전사들을 모란봉지하극
장에서 축전무대를 빛나게 장식하여 사람들에게
세월을 두고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감격의 메아리가 세월을 넘어 아직도 쟁쟁
히 울려오는데 지금은 또 얼마나 감동적인 무대
를 해마다 보게 되는가.

박사중창단, 공훈광부중창단, 로인기악중주단,
영웅중창단, 가족예술소조공연...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 따르는 친애하는 지도
자동지를 우리러 부르는 충성의 노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해마다 2월이 오면 벌어지는 이 대예술축전의
막은 영원히 내리지 않을것이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

김희조

반가워라 내 그 이름은 몰라도
어깨엔 곡괭이 한손엔 기발을 든채
오늘도 열차를 바래누나 저 철길원
철길가에 기둥처럼 우뚝 서서
기관사 나를 바래주누나

신발은 젖었으리 이른새벽 눈길에
눈오면 눈이 와서 비오면 비가 와서
두줄기 철길을 못떠나는 사람아

땅속깊이 뿌리를 퍼고
눈속에서도 년륜을 감는 저 소나무처럼
심심산중 철길에 인생을 엮고
쏟아진 돌사래 묵묵히 안아내며
철길을 트랙처럼 걷는 사람아

철길은 조국의 피줄이어서
철길우가 아니고선
제품의 피도 뚫지 않을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말없이 말없이 받들어가는

그대의 걸음으로 내가 가누나
그대의 걸음으로 열차가 가누나
사람들에게 안겨줄 기쁨을 싣고

아, 내 그대 이름 모른들 어떠랴
이 땅의 눈부신 거리, 흥성이는 마을
어디나 행복한 사람들 그 이름으로
그대 이름은 빛나고있는데
오늘도 만나는 사람아, 날마다 만나는 사람아

우리 문학에 형상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품모

박춘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문학은 시대의 지향과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요구, 로동계급의 문학이 지니고있는 혁명적사명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활동과 숭고한 공산주의적품모를 최대의 정중성과 충성심을 다하여 빛나게 형상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하고 숭고한 품모를 형상하는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있는 우리 혁명문학의 사명과 임무, 그 인식교양적기능과 역할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으로 되며 주체문학의 면모를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로 된다.

이것은 우리 문학의 최고의 영예이며 더없는 자랑이다.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은 우리 인민들을 매우 기쁘게 하여주고있으며 그들의 주체의 혁명관, 혁명적수령관확립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활동과 숭고한 품모를 형상한 작품들은 그이께서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그리고 그이께서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오신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을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현명한 령도, 인민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만대에 길이 빛날 혁명업적의 불멸성을 깊이 있고 격조높게 형상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참으로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은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과 예술적형상의 참신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혁명적수령관확립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문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지도자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찌기 어

리신 시절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다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오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의 위대한 귀감이 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언제나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인민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였으며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하시는것을 당과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가장 신성한 의무로 간직하시였다.

단편소설 《고요》(리종렬), 《우러르는 한마음》(백현우)는 그이께서 지니신 이러한 숭고한 품모를 감동적으로 형상한 훌륭한 예술적화폭들이다.

단편소설 《고요》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최대의 정성을 다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결한 품모를 심오하게 그리고있다.

산간지대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시기 위해 길도 없는 숲과 산을 오르내리시며 잠도 휴식도 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돌아오는 렬차안에서도 밤늦도록 일을 보시다가 방금 잠이 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들의 생활때문에 걱정하시며 밤마저 편히 쉬지 못하시고 렬차집무실에서 일을 보시다가 잠이 드시였을 때 이것을 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슴은 못내 아프시였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세월의 모진 눈비와 찬바람을 다 맞으시며 한평생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길, 그것은 설한풍 휘몰아치는 백두밀림에서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나날이며 그날의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새조국 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의 어려운 길을 헤쳐오신 겹쌓인 고난의 나날이 아니였던가.

이 험난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시려고 온 나라의 공장과 농촌, 어촌과 산간마을에 이르기까지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피로에 피로가 겹치시고 평양에 가시면 또 방대한 사업을 보셔야 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잠깐 잠드신 한순간이나마 편히 쉬시도록 해드릴 마음을 간직하시고 특별렬차를 운산명밀의 자그마한 간이역인 만곡역에 몇게 하신다. 그런데 특별렬차를 세운 만곡역은 조용한곳이 못되였다. 역의 아래우쪽의 산굽이를 돌 때 모든 렬차들이 기적소리를 길게 내게

되어있었고 기적이 울리면 그 소리가 모든 골짜기들에 메아리쳐 소리울림은 대단한것이였다.

이러한 사실을 헤아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천상수역장에게 수령님께서 잠시라도 폭 쉬시도록 하시려면 고요해야 한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이의 고매한 뜻을 받아안은 천상수역장은 벽계역과 하산역에 이제부터 통과하는 모든 열차들이 기적소리를 울리지 말도록 당부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역의 고요를 보장할뿐아니라 역구내의 외등불빛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신다. 이때 역장은 환한 외등불빛이 차안에 흘러들면 수령님께서 주무시는데 방해되지 않을 가싶어 외등스위치는 끄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었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혹시 수령님께서 잠을 깨셨다가 역구내가 캄캄한것을 보시면 순간이나마 걱정하실수 있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차광막을 가리워 외등불빛을 막으면 된다고 하시며 스위치를 끄지 말라고 하신다. 작품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이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하실수 있다는것을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편히 주무실수 있도록 만단의 조치를 다 취하시고도 자신께서는 여전히 교대없는 위병처럼 특별열차를 거니시는것이다.

이 장면은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술적화폭이다. 작품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보여주는 뜻깊은 장면들을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이것은 작품의 사상적내용과 심오성을 보장하여주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있다.

만곡역은 운산령을 굽이굽이 감돌아 치달아오른 철도선의 심심산중 간이역이다. 그런데 인민의 리해관계나 심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철도관리국 부국장의 그릇된 처사로 이 역이 곧 폐쇄되게 되였다. 만곡역장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료해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경제적효과성》을 운운하며 인민들의 편리와 리해관계를 짓밟는 부국장에게 수령님께서 13명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자그마한 정거장까지 마련하여주시는데 이미 있던 역이야 무엇때문에 없애겠는가, 큰 사업때문에 인민들의 조그마한 리해관계를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무시해버려도 좋다는 법은 없다 인민들의 심정이나 리해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것은 우리 혁명의 근본원리와 목적에도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사상감정이라고 강

조하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기 인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인민들에게 헌신복무할 대신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위대한 수령님께 근심만 끼쳐드리는 일군들 수령님께 충실하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는가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하시는 길이 곧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과 하나로 잇닿아져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뜻깊은 형상이다.

이렇듯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보장하며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활짝 꽃피우려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그이의 숭고하고 웅심깊은 내면세계를 심오하게 펼쳐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소설의 감화력과 견인력이 있는것이다. 작품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생경한 론리로써가 아니라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확증하고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특징적인 세부들을 찾아내어 그런 구성상특징과도 관련된다.

작품에서는 종자와 주제사상적요구에 맞게 특색있는 극을 안고있는 심오한 인간관계를 탐구하고 있음으로 하여 구성에서 이 주제의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특색을 나타내고있다.

작품에서는 만곡역 폐쇄문제를 설정하고 역장 천상수와 관리국부국장을 등장시켜 이들과의 극적 호상관계를 잘 설정하고있다. 30여년간 역장으로 일해오는 천상수는 1948년 여름 하산역의 조역으로 있을 때 이곳 역에 내리시여 샘물을 뜨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웠으며 그이께서 열차에 오르시여 떠나실 때는 메꽃을 안겨드렸었다.

역장은 그후 30여년세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왔다. 그런데 그가 책임진 만곡역이 일부 일군들의 편협한 견해에 따라 없어지게 되였다. 이것이 역장 천상수에게는 몹시도 섭섭하고 서글픈 일이었다. 이러한 그가 특별열차가 벗어난 역의 고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기에게 감사를 전하며 뜨겁게 손잡아주실 때 그이의 숭고한 풍모앞에 감격에 목메이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30여년동안 어디도 가지 않았고 이 역에 있던것을 아시고 인민의 총복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며 경제적효과성보다 인민의 리해관계를 먼저 보고 만곡역 폐쇄를 철회하게 하시는 그이의 높이신 덕성을 드겁게 체험하게 된다. 작품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품에 안겨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천상수역장을 인상깊게 보여줄뿐아니라 언제나 평범한 인민들속에서 그들의 벗으로, 동지로 허물없이 지내시며 그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감명깊

에 보여주고있다.

우리 문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는 또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몸소 진두에서 조직령도해나가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가시는 사상의 영재, 령도의 영재로서의 위대한 품모를 철학적이며 과학적인 기초우에서 심오하게 형상하고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은 그 고상한 리념에 있어서나 오랜 세월 인간의 사색이 미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밝히는 그 비범한 예지에 있어서나 아무리 복잡한속에서도 심오한 진리를 끝까지 탐구하고야 마는 지칠줄 모르는 그 정력에 있어서 누구도 따를수 없는 높이에 이르고있다.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시어 주체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는 력사의 새 진군길을 열어놓으신 친애하는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때문에 우리 문학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을 깊이있게 형상하는데로 지향하는것은지극히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것은 그이의 위대한 품모에 대한 진실한 형상을 담보하는 진실한 형상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상리론의 영재로서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려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높이 추켜드시고 대답하고 통이 큰 작전과 비범한 혁명적전개력, 불굴의 혁명적의지와 비상한 정력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어나가고계신다. 그리하여 사회와 자연, 사상과 도덕, 교육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인류문명의 새로운 개화기가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작품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릴 때 그이의 위대성이 진실하게 확인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단편소설 《조선시간》(성혜량)에는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품모가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되어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단위로 력사와 세기를 재고 인생을 한도짓던 종래의 시간개념은 속도전의 새 시대에 사는 조선사람에게는 더는 맞지 않게 되었다. 바로 조선땅우에는 속도전의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조선시간이 장엄하게 탄생하고있다. 이 위대한 조선시간은 과연 어떻게 이 땅우에 탄생하였는가. 작품의 종자는 바로 여기에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한 기계공장에서 《어머니기대》라고 할수있는 큰 기대의 지하구조물의 대보수를 하게 되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을 40여일이 아니라 10일에 할것을 바라시기에 무조건 10일에 끝내야 하며 또 끝낼수 있다는 립장을 가지시고 이 보수공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알아보신다.

이런 립장과 자세를 지니신 그이시였기에 마침내 28일기준수치를 깨뜨릴수 있는 예비를 탐구하시였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교수를 기계공장에 파견하시면서 렬차안에서 필요한 계산을 하도록 빈틈없는 사업조직을 하시였다.

교수의 사업을 도와줄 일군, 계산수 그리고 그의 건강을 돌봐줄 간호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성원들을 보내주시고 도중역들에서 교수의 사업진행정형을 보고하게 하고 해당한 지시를 전달반도록 도중역에서 군당책임비서를 대기시키는 등 빈틈없는 사업조직은 참으로 놀라운것이였다.

드디어 보수공사는 40일이 아니라 7일에 끝났다.

작품은 교수와 함께 밤을 지새우시며 물샷틈없는 철저한 사업조직으로 일을 밀어주시고 한없이 뜨거운 손길을 보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품모와 매사에 철저한 조직력과 완강한 정력, 전대미문의 강한 요구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교서관철에서의 무조건성의 립장과 자세, 철저한 사업조직, 강한 요구성과 사업에서의 정력적인 투신, 바로 이것이 오늘의 속도전을 불러일으켰다는것을 보여주면서 속도전은 바로 이렇게 어비이수령님께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열화와 같은 충성심이 낳은 위대한 산물이라는것을 격조높이 형상하고있다.

그리하여 작품은 《조선시간》은 탁월한 령도품모를 지니신 그이의 세련된 령도로 탄생된것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가지는 철학적심오성이 있는것이다.

이 작품이 철학적으로 심오한 작품으로 되게 된 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사적이 깃든 력사적사실자료에서 철학적인 종자를 똑바로 잡아쥐고 그 사적의 깊은 뜻을 밝혀내어 작품의 높은 사상성을 보장하였을뿐아니라 실감있고 감동적인화폭을 창조하여 작품의 예술성을 높였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모신 작품에서 중요한 력사적사건과 사실들에서 종자를 똑바로 찾아쥐는것은 그 사건과 사실의 본질과 정치사상적의의를 심오히 밝혀내고 작품의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한 근본열쇠로 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모신 작품들은 그이의 혁명사적이 깃든 력사적사실과 자료를 소재로 하고있다.

이 사실과 자료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빛

나는 예지와 탁월한 정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 품모가 체현되어있다. 그러므로 그 사실들은 그 자체만으로써도 불멸의 의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키고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그 사적에 깃들어있는 심오한 사상적내용이다. 따라서 창작에서 중요한것은 그 사실자료를 진실하게 그리는것과 함께 그 사실자료 밑바닥에 깔려있는 심오한 사상적의미를 옳바로 탐구하는것이다.

만일 작가들이 그 사적에서 심오한 사상적알맹이를 취지 못하고 이 사실자료들을 그대로 라렬하는데 그친다면 작품이 회상실기화되어 인간학으로서의 풍격을 갖추지 못한다. 오직 사적자료에서 심오한 사상적알맹이를 똑바로 골라잡을 때에만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고 그것을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할수 있다.

단편소설 《조선시간》의 종자는 속도전시대의 《조선시간》의 탄생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문제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비약적 발전원천에 관한 문제이다.

작품은 사적자료에서 《조선시간》의 탄생과 같은 심오한 철학적의의를 가지고있는 문제를 탐구하고 그것을 종자로 하여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오늘의 기적의 원천을 예술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모든 혁신적성파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정도 밑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정도의 결과에 의하여 이룩되었다는것을 심오하게 밝혀낼수 있었다. 오직 독창적으로 탐구한 이러한 종자를 심어놓음으로써만 작품의 소재로 되고있는 역사적사실에 깃들어있는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의의를 깊이있게 형상해낼수 있게 되었다. 만일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지 못했다면 역사적사실속에 깃든 속도전의 위력과 그 힘의 원천을 옳바로 천명하지 못했을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펼쳐나가신 그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철학적인 종자를 똑바로 찾아쥐고 특색있게 형상한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사상 예술적성파가 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이 단편소설뿐아니라 야금기업소들을 자동화, 현대화하여 야금노동자들의 일터를 신선한 꽃향기로 충만시켜주시려 심혈을 바쳐가시는 그이의 숭고한 품모를 모신 단편소설 《아카시아 꽃필무렵》(최학수), 세계 일등급의 남포갑문 건설에 대한 그이의 현명한 정도와 건설자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형상한 《잊을수 없는 화폭》(엄단웅)과 같은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이 내놓았다.

우리 문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는 또한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인간애와 혁명적동지에, 자애로운 덕성과 숭고한 인간세계를 감동깊이 그린것이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과 교락을 같이 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감명깊게 그리는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형상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도자이실뿐아니라 인민의 자애로운 스승 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력사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력사로서 거기에는 위대한 인민의 지도자 위대한 인간만이 쌓아올릴수 있는 숭고한 인간세계가 찬란히 수놓아져있다.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배려, 다정다감한 감정, 대해같은 포용력, 이 모든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품이다.

단편소설 《기억》(현승걸), 《대지》(현승걸), 《심장의 메아리》(권정웅), 《아끼시는 마음》(박현)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은 감동적인 생활들로 충만된 극정정황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민과 혁명동지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사랑, 황홀하고 매혹적인 인품,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고상한 인간세계를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다. 단편소설 《기억》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영예군인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심원한것인가를 형상적으로 확증하고있는 작품이다.

앞 못보는 영예군인 리명천은 작업장의 외진곳에서 일하고있다. 그리하여 공장에 일꾼들이 많이 내려왔다 가지만 그를 만나준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인제는 자기도 거기에 습관되어있었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구석진곳에 있는 그를 보시고 가시던 걸음을 돌려세우신다. 손이 왜 이렇게 찬가고, 속타이 있지 않는가고 다정히 물으시던 그이께서는 《내 인사가 늦었소.

용서하오.》라고 가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어깨를 끌어안으신다. 비록 눈은 보지 못하지만 리명천은 이렇게 구석진곳에 있는 자기를 알아보신분은, 이렇게 인정깊게 걱정하시고 또 이렇게 뜨겁게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분은 오직 이 세상에 한분밖에 없으며 바로 그분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라고 굳게 믿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리명천의 딸을 만나시여서는 눈비 사나운 사시장철 긴긴나날 등불이 되어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부축하면서 공장길을 오갔으며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려고 오늘까지 애쓴 그의 남모르는 수고까지 친어버이 심정으로 헤아려주신다.

감격에 흐느끼는 그에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리신 음성으로 《내앞에서는 울어도 일없소. ... 몸이 불편한 아버지앞에서야 피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울수 없었겠지. ...20년나마 아버지를 돌보느라고 수고했소. 우리는 멀리 있으니 마음뿐이었지. ...나는 언제 한번 동무 아버지의 손목을 잡아주지 못했소. 우리를 대신해서

고생이야 동무가 했지. 고맙소. 고마워...》라고 하시면서 동무 아버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모두가 돌봐야 할 영예군인이고 당을 위해 광명을 바친 혁명가라고, 우리 당이 아버지와 같은 동지들을 보살피는것은 마땅한 의무이고 혁명적도리이며 우리의 뜻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보여주는 감동깊은 장면이며 위대한 인간이신 그이의 인간세계가 얼마나 숭고한가를 보여주는 극치의 예술적화폭이다.

리명천은 그이께서 자기와 딸을 나란히 세우고 공장정문을 향해 걸으실 때 눈앞에 불타는 태양을 보는듯하였다. 이 순간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우러러 의리와 도덕, 위대한 인품과 거룩한 사상과 량심, 조선의 참모습을 보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이 성격형상의 철학성이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에야 비로소 아시게 된 귀중한 혁명동지인 리명천과 그의 딸 리호심의 모습과 음성, 그들의 깨끗하고 거룩한 량심과 그 어디에도 기록해두지 못했으며 그리하여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망각될수 있는 그들의 위훈을 자신께서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해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것이다.

이런일은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 그것도 위대한 심장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준엄한 나날에 목숨바쳐 조국을 지켜낸 영예군인들의 인간적성실성과 거룩한 량심과 숭고한 혁명정신을 조국과 더불어 빛내여주고 그들의 삶을 가장 보람찬 인간의 삶으로 빛내여주시는분은 오직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

니고계시며 위대한 심장을 지니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다.

그러기에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혁명적동지에, 고매한 인간애를 지니신 그이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기쁨과 영광, 행복은 끝이 없는것이다.

바로 위대한 심장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이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격조높이 형상한고데 이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가가 있는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감명깊게 형상한데서 비롯된것이다.

위대한 생활은 범속한 보통생활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 창조하는 가장아름답고 숭고하며 가치있는 생활이다.

작품은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묘사하는 원칙에 서서 생활을 탐구하고 생동하게 그려나갔기에 것처럼 작품의 화폭이 감동적인것으로 된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영예군인 리명천의 실명한 눈의 부상처와 반나마 흰 머리, 입귀의

주름살과 투박한 손을 더듬으시며 자신을 알아봐주어서 고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딸의 얼굴을 보아주시는 장면, 앞 못보는 리명천의 불편을 깊이 헤아리시다가 심장으로 조국의 현실을 본다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는 감사하다고 하시며 동무의 처지에서 조국의 번영을

놓치지 않고 리해하기에 몇급질 수고가 많았겠다고 아직 그 누구도 헤아려보지 못한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리시는 모습... 작품에 그려진 이런 뜻깊은 생활들이야말로 인간사랑의 고상한 정신과 리념,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는 끝없는 로고와 헌신성, 인간의 운명에 대한 세심한 배려, 가장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충만된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인것이다.

작품에서 그려진 생활장면들과 세부들은 작품의 소재인 력사적사실의 본질과 의미를 뜻깊게 밝혀내고 형상에 대한 생동한 감수와 미확정적적 감수성을 확고히 담보하여주고있다. 만일 작품에서 이러한 생활들이 깊이있게 그려지지 못했더라면 소설은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실무지도과정의 력사적사실만으로 자료적으로 보여주는데 머물렀을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학작품이 아니라 단순한 력사기록으로 되고말았을것이다. 그러나 작품은 정당하게도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기초하면서도 사건기록이나 자료라렬식으로가 아니라 인간세계에 깊이 파고들어 생활을 풍부하고 심오하게 그리고 정서적으로 기쁨지게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하는데서 우리 문학이 이룩한 성과는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아직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창작되고있는 일부 작품들은 높은 사상예술적풍격을 보장하지 못하고있다.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는 우리 작가들에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 원대한 품모를 형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과 함께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진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이의 숭고한 품모를 형상한 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우리 혁명문학의 위력을 온 누리에 더욱 찬연히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

아, 그이께서 오신다!

박함집

아직은 이른새벽이여도
가슴속에 해빛을 안고선 역구내
아, 이 아침
친애하는 그이께서 우리 교장에 오신다!

나무아지 서둘러 단즙을 빨아들이고
노래를 굴리며 새들이 날아들어라
꽃들은 애오라지 이 새벽을 기다려
겨우내 간직한 향기를 풍기는데

한없이 멀게만 보이던
그 많은 소원과 꿈이
이 한 역구내에 다 모여와
웃자락에 매달리고 문턱을 쓰다듬어라

아, 찬비 뿌리는가을날에 오시여선
북망산거리를 대견히 보아주시며
저게 바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거라고...
살림집을 더 높이 더 빼곡이 세워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자고...

베푸신 은정 끝간데 없어
곡절 많던 한 예술인도 품에 안아
혁명가극의 지휘봉을 친히 안겨주신건
어느해 어느 여름날 밤의 무대였던가

정녕 그이의 사랑은 해빛과도 같아

보배로 키우신 손길
대지에 닿으면 꽃이 웃는 봄
마음속에 흘러들면 시들잖는 청춘

이제 여기서
이 땅에 알지 못하는 놀라움이
세기의 언덕을 짚고 일어서리
베푸신 은정은 하늘에 닿아
지울수 없는 광채로 노을은 불타리

사람들의 가슴가슴
그래서 더 의젓해가고
집집의 창문들은
또 얼마나 황홀해질것이나

아아 새벽이 들린다
꽃들은 분주히 향기를 실어날라라
오늘의 해돋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목청을 굴리며 새들도 속삭여라
따사로운 그이의 사랑 담아서
우리도 하늘중천 날아보자고...

새벽이 들린다
새벽이 들린다
행복의 러명 앞세우시고
아, 이 아침
친애하는 그이께서 우리 교장에 오신다!

어머님의 고향땅을 지나시며

신지락

못잊을 추억을 더듬으시는가
차창너머 물결처럼 흘러가는
백살구꽃 하얗게 피어난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시며
그이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얼마나 감회가 깊으시랴
달빛밝은 백두밀영의 밤
어머님 품에 안기시여
만경대와 더불어 그려보시던
마음의 고향 회령

해방의 그날부터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사랑하는 어머님과 함께
한번 찾아보고싶으시던
정다운 어머님의 고향땅...

잠시라도 들려가시자고
이번엔 꼭 들리셔야 한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들을 우러르며
벌써 그 몇번째
일군들은 간절히 말씀드리건만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어머님 고향집부터 찾겠는가
기차를 세우지 말고
청년건설자들이 기다리는
왕채산대기념비건설장으로 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여라

-우리 어머님도
이것을 아신다면
아마 기뻐하실겁니다

아, 해방된 그날엔
 김정숙어머님께서
 수령님 높은 뜻 받들어가시며
 령님어 무산땅까지 오시고도
 아니들리시더니

오늘은 우리 지도자동지
 어머님의 그 충성을 이어
 위대한 수령님 혁명위업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

지나시면서도 아니들리시누나

찾아보고싶으시던 그 마음
 못잊을 그 땅을 뒤에 남기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회령역을 지나가시는데

저 멀리 오산덕마루에서
 김정숙어머님
 해빛같은 미소를 보내시며
 그이를 바래워드리여라

나의 당생활

한상호

걸음마다 빛나는 생활이여도
 보기엔 수수하더라
 이른아침 집을 나서 일터로 가는것도
 저녁마다 아이들의 숙제를 검열하는것도
 나의 당생활이여라

벗을 만나
 정답게 이야기를 나눌 때도
 오색기 날리며
 금요로동 현장으로 맨션참 가는것도...

붉은 당원증을 품은 그날로부터
 자각과 투쟁으로 이어지는 생활!-
 누구나 다같이 동지라 부르며
 말은 혁명임무속에
 생활의 목표를 두고 살더라

얼마나 뜨거운 심장으로
 얼마나 열렬한 마음으로
 당의 지시와 결정을 받들었는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자기를 준절히 총화짓고

그것을 한치라도 어겼다면
 가슴아파도
 동지를 친절히 비판해야 하고
 그러면 그것이
 더 두터운 동지적신뢰가 되어
 우리의 생활은 꽃피더라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말끔히 불살라버리며
 만족과 성과보다 결함을 더 찾고
 한일보다 해야 할 일을 두고
 심장은 뛸뛰거니

심산속이라

바다만리라
 어디서 그 무엇을 하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에 운명을 맡기고
 오직 당이 이끄는 한길로만
 치달아오르는
 아, 조선로동당원의 당생활!

고열의 용광로속에서
 철이 구워져나오듯
 아 불도가니속에서
 인간의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배우고
 인간에 대한 고귀한 사랑과 믿음을 배우고

이 불도가니속에서
 당의 숨결로 숨쉬고
 당의 목소리로 말하고
 당의 의지로 일어서는
 혁명가의 고귀한 신념을 간직하나니

순간을 멈추라
 멈추면 녹이 쏘여라
 그때문에 로당원이건 젊은 당원이건
 여기서 강철로 의지를 버리고
 여기서 보석같이 마음을 닦아라

변치 않으리라
 한점의 터라도 앓을세라
 피땀이 손잡아이어줄주는
 어머니당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야 한다면
 내 가슴 선뜻 내대려니

끝나지 않아라
 육체적생명은 진다 해도
 고귀한 정치적생명우로 길이 빛날
 아, 나의 당생활!
 우리 당중앙을 따라 한길에

시조

우산장에서

김시권

내 첫뺨을 주며

아름다운 우산장의 풍치
맑은 창문에 담긴 방에서
내 처음 뺨을 쥐니
가슴은 뜨거웁에 젖어라

아름다운 시상 피어나라고
이 풍치좋은 창작실에
나를 안아주신 이 방은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요람

이 방이 아니던가
그이께서 교묘한 사색속에
글을 무르익히라고 문소리까지
가슴하시며 몸소 들어오신것은..

나는 느끼노라, 온몸으로
지금도 그이의 따뜻한 시선
내 글쓰는 모습
굽어보시며 보살펴주시는듯

아, 내 오늘 그이께서 친히
이 손에 쥐여준 뺨을 들어
원고지우를 달려가니
설레이는 가슴 진정할수 없어라

우리의 사랑받는 시가들이
우리의 이름높은 소설들이

바로 지도자동지의 이 사랑속에
얼마나 자랑높이 탄생했던가

우산장의 숲처럼 무성하게
우산장의 꽃처럼 아름답게
주체문학의 화원만발하게 한
내 안긴 사랑의 창작의 보금자리여

아, 나를 품어준 우산장에서
그이의 은정앞에
내 시인된 도의를 다 못한다면
그이앞에 어이 얼굴을 들라

잊지 않으리라, 이 가슴속에
그이의 뜻으로 숨결높이 살며
나는 쓰리라 탐구의 사색 쏟으며
뺨이 닳고 또 닳도록

지쳐 쓰러진들 어떠라
그이의 뜻을 담은
아름다운 심원한 시세계를
이 한몸바쳐 그려놓을수만 있다면

아, 내 뺨과 심장의 피 다바쳐
우리 지도자동지께 기쁨 드릴
충성의 노래, 혁명의 노래
한몸 다하여 영원히 울리리라!

풍월루

허공중에 추녀끝을
나래 높이 펼친 풍월루-
너는 웃는 달의 고운 얼굴
가까이 보고싶어 높이 솟았는가
종구나, 너의 란간에 올라

지도자동지 주신 뺨을 들어
이 밤, 저 밝게 웃는 달
쳐다보며 기뻐 노래짓기란...
허나 이보다 기쁜것은 저 달

그이 사랑받는 이 시인이 부러워
추녀끝에 내려와 얼굴 가까이

내 시를 들여다봄이 더 행복하여라

꽃과 금붕어

꽃밭에 들어서면
꽃들이 웃으며 반겨맞아주고
금붕어못에 찾아가면
금붕어들이 재롱피우며 다가오거니

아, 내 창작에 지친 마음
즐거움에 기쁘라고
저리도 꽃들은 웃음 밝고
저리도 금붕어들은 재롱 다하는가

아,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안고
꽃은 고운 얼굴로 미소짓고

금붕어는 고운 물동으로 꼬리치며
저마다 한껏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나니

아름다운 주옥같은 시를 지어
그이께 바친 기쁨없이
내 꽃과 금붕어를 즐거웁게 볼수 없나니
너희들도 나의 붓을 가듬게 하누나

그 은정 안으리라, 이 가슴에
너희들이 준 즐거운 샘솟는 힘 안고
내 노래도 우리 인민들에게
기쁘고 새힘 샘솟게 보여주리라

취향정을 찾아서

향기 그윽히 핀 수련화들
맑은 물위에 떠있는 련못엔
조용히 발부리 잠그고
취한듯 바라보는 취향정

아, 수련화의 향기에 나도 취하는가
이보다 이 몸을 안아주신
지도자동지의 은정
취향정에 가득 넘쳐 내 행복에 취하노라

숲속에서

울창한 숲속에서
내 혼자 앉았노라면
머리위에 온갖 새들
즐겁게 우짖는 소리

그 정다운 새소리 아니던가
전호가의 숲속에서 들을 땐
이 병사를 낳아준
고향의 어머니를 생각해 한것은

오늘 우산장 숲속에 안겨
듣는 즐거운 새소리
나를 시인으로 키워준
은정깊은 지도자동지를 생각해 하나니

내 노래 숲속의 새처럼
청곱게 목청을 다듬어
그이의 은정 영원히 잊지 못해
너처럼 조국의 하늘높이 울리리라

그날의 화차앞에서

김용연

얼마전 우리는 풍치좋은 대동강변에 자리잡은 철도부 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우리는 해설원의 안내를 받으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께서 1945년 12월 22일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 건설로선을 받들고 청진일대에 찾아가시여 정력적인 정치사업을 벌리시다가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돌아오시는길에 타고오신 평범한 유개화차앞에 섰다.

순간 우리는 숨연한 감정에 휩싸여 웃기를 여미며 화차를 우러러보았다. .

해설원처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친위전사로 그 이름 별처럼 빛나는 김정숙녀사를 모시게 된 철도수송전사들의 감격은 비길데 없이 컸지만 당시 청진구내에는 그이를 모실만한 변변한 객차 하나 없어 죄송스러운 마음을 안고 객차를 구해올 까지 단 하루라도 기다려주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었습니다.

그러자 한없이 소박하고 겸허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유개화차결에 모여서서 죄송함을 금치 못해하는 철도일군들앞에서 해빛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장군님께서는 밀림의 그 밤을 이으시여 새조국 건설의 새벽길을 헤쳐가시는데 그이의 친위전사들이 어떻게 한시인을 지체하겠습니까? 산에서 왜놈들과 싸울 때 눈속에서 가랑이를 깔고 자던 우리가 화차라고 나무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는것이 더 편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애롭게 웃으시였습니다.》

아! 얼마나 가스뜨거운 말씀이신가!...

항일의 혈전만리 불비속을 헤치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시였으며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정숙동지!

귀기울이면 회령강의 여울물소리 점답게 들려올듯한 정녕 꿈결에도 못잇는 고향을 지척에 두시고도 항일전의 친위전사의 그 모습 그 자세로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 건설로선을 받들어 충성의 길을 이어가시는 김정숙동지의 앞길에 비단필로 꽃주단을 펴드리여도 지성이 모자랄것만 같은우리 인민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아닌가!

우리는 북받쳐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오래도록 화차를 우러러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

한 혁명가였습니다.》

우러러볼수록 화차안에 깔아놓은 수수한 구름나무노전이며 식사를 지으시던 소박한 남비와 칼도마, 마치 항일전의 그날 사령부천막안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식사를 지으시던 김정숙녀사의 그 정성 그 손길이 어려웠고 자애로운 그 영상이 사무치게 안겨왔다.

력사의 그날 김정숙녀사께서는 동행한 투사들에게 기관차승무원들의 생활을 좀 보자고 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관차에 찾아오시여 승무원들과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기름문은 작업복도 만져보시며 추운 겨울날에 기관차를 몰자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육중한 기관차를 몰아가는 동무들이 제일 미덥고 장해보입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시며 아직은 모든것이 불비한 증기기관차를 보시고도 인민의 철도로 된 해방된 조국땅에서 우리의 기술로 기관차를 몰아가는 승무원들을 그토록 대견해하시며 크나큰 믿음과 한없는 은정을 주시였다.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창 보리밭이 꿩고이는 승무원들의 밥뚜껑까지 열어보시고는 저으기 안색을 흐리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나라가 방금 해방된 그때 설사 밥을 한끼 번진다 한들 그것을 타할 사람도 생활의 불편으로 느끼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기관차승무원들이 보리밭에 된장을 먹는것을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기관차승무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시며 소중히 보관해오시던 쌀과 부식물까지 가져다주시였다.

정녕 마음속 깊이 우리러 생각할수록 김정숙녀사의 숭고한 그날의 영상이 뜨겁게 안겨와 사람들은 오래도록 발길을 떼지 못했다.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의 친위전사로 수령님을 받들어 충성의 한마음을 고스란히 바쳐오신 김정숙동지!

불요불굴의 항일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생전에 그처럼 바라시던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락우너의 이 강산에 아버지수령님과 당중앙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전기화된 철길로 행복의 열차가 수많은 기쁨과 자랑실고 노래를 싣고 달리고있다.

아! 오늘도 그날에 그 사랑 안겨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받들며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를 빛나는 모범으로 가르쳐주시며 우리 모두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성의 한길로 힘있게 떠밀어주요계시는 김정숙동지!

하기에 오늘 철도수송전사들은 잊지 못할 력사의 날에 녀사께서 바라시던 그 념원, 그 뜻을 가슴에 안고 《5. 18무사고정시건인초과운동》의 불길 드높이 조국의 철길우에 충성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가고있는것이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는 영광의 화차여!

불멸의 그 이야기 만대에 길이길이 전하라!

휴식

김봉문

어인 일인가
석양노을 불타도
소식은 없으니
한시간 또 한시간
돌격대장은 단잠에 취해 웃고

알리 없으랴
그 무슨 사연인지
휴계실에서 기다리라고
우에서 지시가 왔으니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돌격대장을 데리고 온
련대장의 초조한 다음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문기척소리가 언제면 있으랴
손목시계만 자주 들여다보았다

시간은 흘러...
드디어 들려오는 발자욱소리
우렁우렁한 목소리
똑똑...
대기실문이 열리더니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방안으로 들어서시는
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돌격대장도 다급히 일어서
그이께 삼가 인사를 올리는데
-한잠 폭 잤는가
뜨거운 은정답아 하시는 말씀

굴진의 최고 돌파로
지하평양건설을 앞당긴
전투의 나날
막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돌격대장을
그토록 아끼시는
그이 한없는 사랑이여

폭 잤으면 됐다고

이젠 금강산 휴양소로 가야겠다고
지휘관들이 전사들을 돌봐주어야
큰일을 제낄수 있다고
또다시 이으시는 그이의 말씀

새로운 전투임무 주시려나
해종일 기다리고기다리던
돌격대장도 련대장도
그이의 인자하신 모습 우러르는데

그제야 알았구나
한 전사의 휴식을 위해
한낮에 마련된 푸짐한 식탁이며
대기실의 폭신한 침대
이름까지 박아쓴 휴양권, 휴양권

그제야 알았구나
지도자동지의 가장 큰 기쁨
그것은 전사들의 건장한 모습이었고
휴식의 즐거운 행복속에 있었음을

위대한 그 사랑
크나큰 그 믿음
가슴가득 받아안고
해저문 저녁길에 나선
돌격대장과 련대장

멀리 저 멀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떠나시는 길을 향해
오래오래 굳어진듯 서있었다
하염없이 고이는 눈물
목메이는 감격을 진정 못하며

머나먼 실무지도의 길을 이으시며
당중앙창가에서 언제나 새벽을 맞으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품속에서
전사의 휴식은
영원한 사랑의 노래로
하늘땅에 넘쳐 흐르고흐르리라

정원길

김동욱

눈내리는 이른새벽이었다.

형식은 전나무 못가진 눈덮인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한손엔 막내아들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엔 빨간 꽃송이를 안고있었는데 어텐가 초조한 기색이었다.

오늘은 혁명렬사릉을 새로 한 다음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어서 그는 전에없애 서둘러 남먼저 집을 나섰던것이다.

밤새 눈이 내린데다 아직은 새벽이어서 룡으로 올라가는 길엔 어느 누구의 발자국도 없었다. 그것은 남모르게 피운 꽃을 누구보다 먼저 김정숙녀사앞에 드리우고싶던 그에게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얼마후 대문을 지나 중심계단으로 올라가려던 그는 하얀 눈우에 찍힌 발자국을 보자 무춤하고 섰다. 발자국은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어텐가 사색에 잠겨 걸은듯 천천히 계단으로 올라가며 찍혀있었다.

(누굴가?...)

형식은 이 새벽 렬사릉으로 벌써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것이 기쁘면서도 웬일인지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계단을 바빠 올라갔다.

그러나 좌우랑옆으로 군상들이 쪽 늘어서 서 멀리 시원하게 올라다보이는 교양마당에는 앞서 올라온 사람이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잠시 서있던 형식은 녀사의 조각상앞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 투사들의 반신상구역앞에 있는 화환진정대에 방금 가져다놓은듯한 생생한 화환을 보자 다시 섰다. 화환에는 굴발이 새겨진 빨간 땡기가 걸려있었는데 눈덮인 언덕에서 불꽃처럼 유난히 빛났다.

(지도자동지께서?!...)

굴발을 바빠 내리읽던 형식은 눈내리는 이 새벽 누구보다 먼저 투사들을 만나보시고 가신분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라는것을 알았다.

형식은 기쁘면서도 일부 지휘관들과 함께 반신상구역 맨 옷단에 모신 녀사의 조각상 가까이애 따로 꽃이 없는것을 보자 마음이 서운해졌다. 꽃은 대성산애 모신 투사모두를 추모하여 반신상구역앞에만 놓여있었다.

그이께서 꽃은 여기에다 놓으시고 저 멀리엔 잠시 눈길을 보내시다가 떠나셨으리라는 생각애 형식은 마음이 승업해지면서 짜릿한 아픔을 느꼈

다.

정녕 이 아침애마저...

형식은 이 새벽 그 모든 마음속 아픔을 토설치 않고서는 그대로 녀사의 조각상앞으로 올라갈수 없었다.

그는 룡 좌측길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며 찍힌 발자취를 따라 대문쪽으로 달려갔다.

거기에서는 수도의 거리들이 지도처럼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지금은 하늘과 땅이 온통 눈송이로 짝 차서인지 그이께서 타고가시는 승용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남산재 먼 하늘가에서 그 무슨 뜻깊은 사연이라도 이야기하듯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왔다. ...

그날도 눈이 내렸고 막내아들은 대성산으로 따라가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한창 렬사릉공사를 하던중인데다가 그때따라 일이 바빠서 데리고갈수 없었다. 그래서 새벽부터 좀 언짢은 일이 생겼다.

그날새벽 렬사릉공사장으로 나갔던 형식은 저으기 흥분된 얼굴로 돌아왔다.

그러나 늘그막애 본 아홉살짜리 막내아들을 끔찍이 위하던 그는 집으로 인차 들어가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다. 대성산으로 데리고가지 않은 일로 지금까지 뿌루통해있을 명국이를 복도애라도 《불러내여》 웃겨주고싶었던것이다.

하지만 손가락끝이 넘숙해지도록 초인종을 눌러도 애는 나오자 않았다.

(이녀석이 또 자는가?)

그는 장갑을 벗어 옷애 묻은 눈을 털고 복도문을 슬며시 열었다. 서늘한 눈기운이 발밑으로 쓸어들어가면서 매캐한 땀난내가 뒤말려나오고 전에없이 빨래방치소리가 탁! 탁! 튕겨나왔다. 활짝 열어제낀 세면장안에서 안해가 두팔을 걷어붙이고 빨래를 와락와락 밀었다.

《명국인 어데 갔소?》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이 뻐끔히 열린 애들방을 들여다보며 슬그머니 물었다. 안해는 대답없고 그 대신 방 저쪽 베란다에서 《보천보! 달리기!》, 《보천보! 달리기!》 하는 명국이의 애된 구령소리가 포랑포랑 들렸다.

형식이가 썩-들어가 바깥문을 열자 내의바람애 불이 퍼렇게 열어가지고 제자리걸음으로 《달리기》를 하던 명국이가 벌쭉 웃으며 와 안겼다.

알고보니 첫 새벽애 아버지를 따라나섰던 애는

집으로 인차 들어가지 않고 살얼음을 타다가 물도랑에 빠졌는데 제일바쁜 아침시간에 안해는 옷을 빨고 애녀석은 벌을 받고있었다.

《허, 이런 변이라구야... 여보! 그 밥가마나 좀 내려놓소.》

형식은 어이없어 빙그레 웃으며 세면장에 대고 말했다.

안해가 밥가마를 내려놓으며 저대로 중얼거렸으나 그는 어간문을 꼭 닫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 들볶이우다가 밥먹으러 들어온 시간애나마 애하고 웃으며 잠시 머리를 쉬려던것이 그마저 글러진것이다.

애가 남달리 장단이 심해 하루에도 몇번씩 옷을 빨고 닥달질하지만 아무리 장난이 세차기로 애 하나 키우는게 저다지도 힘겹단말인가?

느닷없이 김정숙녀사께서 유자녀들 일로 바치신 고심어린 나날들이 되새겨지면서 녀사의 정이 그리워졌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자란 그에게서 녀사의 정은 어린시절에 그가 받아안은 사랑의 전부이기도 했다.

녀사께서는 그를 몹시 사랑했었다. 녀사께서 자기를 남달리 사랑해주신다는것을 안 그는 친부모앞에서도 하지 못했던 엉석을 그이앞에서 다 부렸다.

형식은 늘 녀사를 걱정시켰고 고생시켰다. 애들과 싸우고 남몰래 학원에서 나가 한밤중에 찾아다니시게도 했고 언젠가는 운동경기를 봐주시려 학원에 나오신 그이를 저대로 1등을 하여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앞서달리는 애의 다리를 걸어 몹시 노엽히기도 했었다.

지금은 다들 그이께 기쁨을 드리던것만 이야기하니 그렇지 그때 만경대학원에 다니던 유자녀들치고 녀사의 속을 태우지 않은 애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는 녀사께서 평생 고생만 하시다 너무도 일찌기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 때면 저대로 그것이 늘 속에 걸렸고 이제 다시 기쁨을 드릴수 없다는 그 기막힌 현실때문에 가슴이 저렸다.

그는 오늘도 김정숙녀사의 조각상 가까이에 화환진정대를 하나 더 만들어놓는 일때문에 첫새벽에 공사장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길인데 어쨌든 녀사의 조각상을 잘 모셔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대성산주작봉에는 희생된 항일투사들의 반신상이 줄별로 단을 지으며 네모지게 하나의 반신상 구역을 형성하고있었는데 얼마전에 공사장을 찾아주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그앞에 화환진정대를 만들어놓으라고 하시였다.

그런데 공사장지휘부에서 일하고있던 형식은 그것을 반신상구역앞이 아니라 반신상구역 맨 윗

단에 모신 녀사의 조각상가까이에 만들어놓고싶었다. 그것은 녀사의 일로 언제나 가슴아파하는 자기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였다. 공사장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찾아오는 지원자들모두의 심정이 그랬고 온 나라 인민들의 심정이 그랬다.

하지만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사에서 제기되는 수백가지 제의를 다 받아주시면서도 그 청만은 거둬들 말씀드려도 받아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루에 몇번씩 들으면서도 돌격대원들은 돌격대원들대로 형식을 찾아와 한번 더 말씀드려보자고 들이댔다. 누군 집을 떠나올 때 이미 자기 마을 《대표》로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가 하면 누군 자기 공장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청원한다고도 했다.

그들 모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이를 모시고 일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만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승낙해주시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던 그의 마음은 더 안타까웠다.

그는 생각다 못해 녀사의 조각상을 모신 맨 윗단주변을 넓히고 거기에 화환진정대를 하나 더 만들어놓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기전에 그이께서 현장에 나오시든가 아시게 되면 일이 다 틀어진다는 생각에 그의 신경은 바늘끝처럼 긴장되고 일은 누구도 모르게 진행되였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일은 당시 건설에 참가했던 사람들조차 다는 모르고있었다.

형식은 선발된 얼마 안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몸에 불달린 사람처럼 뛰어다니며 일손을 다그쳤다. 그때문에 오늘도 식전에 현장으로 나갔던것이 고 인젠 지대도 넓히고 거기애다 화환진정대모형을 만들어 형태와 색깔도 확정했기때문에 당장 시공에 착수하려던것인데 누구보다 열을 올리며 나서던 설계실장이 아직도 설계를 끝내지 못했다고 하는통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게 된것이다.

담배불이 손톱까지 타들어가는것도 모르고 알아있던 그는 갑자기 안해가 들어오며 전화종이 울린다고 알려주는 바람에 담배불을 얼른 끄며 일어섰다.

그런데 언제 벌써 들어갔는지 명국이가 먼저 전화를 받고있었다.

《예, 벌을 좀... 섰습니다!》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명국이가 수화기를 잡고 쭈뼛쭈뼛하며 웃는다.

아니, 저 애가 누구하고 저런 소리를...

형식이가 다급히 애한테로 달려갔다.

《아버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

명국은 자기가 얼마나 버릇없이 굴었는지도 모르고 지도자동지의 전화를 받은게 너무도 기뻐 강충강충 뛰었다.

(지도자동지께서!!)

형석은 벅찬 감격과 함께 뭔가 크게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해가 황급히 들어와 애를 데리고 나가며 문을 조심히 닫았다.

잠시 옷매무시를 바로잡은 형석은 송수화기를 받쳐들었다. 그는 아무도 황송하여 량해를 구했으나 그이께서는 아무 일 없다고 하시며 껄껄 웃으시었다. 그이의 호방한 웃음소리를 듣자 언제나 정력에 넘친 그이를 우러러마주선듯 형석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지도자동지!》

한동안 당황했던 형석은 그제야 비로소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이미 아침에 벌어진 일을 전부 아시게 되신듯 여전히 웃으시며 인사도 허물없이 받으시었다.

《형석동무! 인사는 벌써 애한테서 받았소. 간밤엔 머리가 좀 무거웠더랬는데 그 녀석 인사를 받구나니 마음이 다 거뽏해졌소. ... 그런데 그 집에선 무슨 벌을 새벽부터 세우오? 거리에 나가보니 장난꾸러기들이 전부 나와 눈우에서 덩굴던데...》

참, 그녀석 숨웃이 울겨올나기 바쁘지 않겠소?》

당과 국가 일에 바쁘시면서도 늘 어린이들에게 먼저 관심두시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오늘도 형석이네 아이문제부터 물으시었다.

그러나 애가 먼저 수화기를 들게 한 일때문에 마음이 송구스러운데다가 자기대로 바빠 보고올릴 자료들을 추려보던 그는 갑자기 애들문제부터 물으시자 어리둥절하여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그이께선 어떻게 되어 첫새벽에 거리로 나오시게 되었으며 전화를 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녀석이란...

《그집 작은 장난군소리요.》

미소어린 다심하게 울리는 음성, 형석은 그제야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뜻을 새겨듣고 그이를 따라 웃다가 무엄하다는 생각에 얼른 그쳤다. 작은 장난군이란 명국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애가 하도 장난이 세차 언젠가 지도자동지께서 그 아버지께 그 아들이라고 웃으시며 온 나라 아이들의 옷쳐뜨리는 《기준》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었던것이다.

말씀은 웃으시며 하시어도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주는 문제와 관련된것이어서 대답은 신중하게 드려야 했다.

《예, 울겨올은... 이니 일없습니다.》

형석은 대답을 얼버무렸다.

《아니, 애들뎐 그제 새걸 해줘야 좋다구 합니다. 뭐랍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애들 옷부터 해줍시다. 당에서 술한 방직공장들을 지어놓구두 뜨듯히 못해입히겠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웬일인지 하시던 말씀을 잠시 끊으시었다.

형석은 전에 녀사께서 늘 원아들의 옷때문에 근심하시던 일이 문득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다. 군사놀이를 하느라고 하루가 멀다하게 옷을 꿰뜨려도 타하지 않으시며 밤늦게 침대머리에 앉아 한뼘한뼘 기워주시던 녀사의 근심어린 모습, 원아들에게 하나같이 학원제복을 해입히시고도 또 뭐가 해주지 못해 마음쓰시던 녀사이시었다.

형석은 어떻게든 녀사의 조각상을 더 잘 모시리라 다시금 마음다졌다.

하지만 그이께선 다음말씀이 없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벌써 다른것을 묻고계시었다.

언제나 심원한 사색의 세계에 잠겨계시는 그이께서는 한가지를 물으시고는 한두마디의 대답에 그 모두를 헤아려보시는듯 다시 두가지 세가지를 련달라 물으시고 바로잡아주시며 일군들을 하나하나 자신께서 오르신 인간세계의 위대한 경지에도 이끌어주시었다.

형석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승화되고 자라는 자기를 무한한 행복속에 느꼈고 그이를 따라 걷는 그 길이 자기의 인생행로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곤했었다.

하지만 참다운 의미에서의 그 길이란 어떤 길인지를 그이를 늘 몸가까이에 모시고 일하는 그자신도 아직은 다 모르고있었다.

긴장된 속에서도 잠시 자기의 《인생행로》를 더듬던 그는 지도자동지께서 갑자기 공사현형을 물으시는바람에 저으기 놀랐다.

《돌격대원들의 기세가 좋지?》

그이께서는 사람들을 두고 먼저 물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셨던 돌격대원들의 기세는 높았다. 형석은 현장에서 절기모임을 가지고 지휘일군들과 함께 대원들속으로 들어가 밤낮없이 돌격전을 벌렸다.

공사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갔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우는것은 붉은기발이었다.

붉은기발은 지도자동지께서 렬사릉에 대문과 문주도 세우고 군상도 여러상 세웠으나 대기념비로서의 중심이 없는것을 헤아려보시고 세우도록 하신것인데 기발은 무게가 있고 보기도 좋고 사상적내용도 깊었다.》

그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씩 거기로 올라가보지만 볼 때마다 느낌이 새로와 이 사람 저 사람 볼잡고 기쁨을 나누는 형석이였다.

하지만 화환진정대일로 몹시 초조해지고 모든것이 뒤범벅이 된 형석은 그저 《예.》 하고 대답했다.

《붉은기발이 이뎐소?》

대답이 성차지 않으시던지 그이께서 다시 물으시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혁명렬사들이 푸른 소나무숲속에 누워있는것두 좋겠지만 필필 휘날라는 붉은 기폭에 싸안겨

있는게 더 좋소!》

형석은 또한번 《예.》 하고 대답했다.

《오늘은 어떻게 말끝마다 <예.> 하는 소리뿐이요?》

지도자동지께서는 말씀하시다 말고 뭔가 짐작 되시는것이 있으시던지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

형석은 그이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일군이였다.

장대한 체구에 인정미가 흐리면서도 눈두덩이 축 처져 어텐가 고집스러워보이는 눈,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바람벽도 문이라고 내미는 불같은 성미, 무슨 일이나 인차 흥분하면서 만나주실 때마다 애들처럼 좋아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좀처럼 일어설줄 모르던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 형석이가 오늘은 그저 《예, 예,》 하고 대답만 한다.

얼마전 맨 옷단 가까이 놓겠다고 하는 화환진정대를 반신상구역앞에다 만들어놓으라고 했을 때에도 형석은 그렇게 대답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 이 아침 그에게 전화를 하신게 된것도 실은 그 석연치 않은 대답때문이었다.

그이께서는 지난밤에도 회생된 투사들생각에 온 밤 잠 못이루시며 새로 확장하는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로 붉은 기발과 군상들도 최상의 수준으로 세우고 화환진정대도 대리석으로 잘해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하지만 형석은 뭔가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지 화환진정대소리는 없이 오늘까지도 끄끄 감작르기만 한다.

그이께선 무슨 일인지 벌써 짐작이 가지였으나 굳이 남이 말 못하고 안타까와하는 문제를 신뜻 물으실수 없으시던지 자신께서도 모르시게 불쑥 다른 말씀을 꺼내시였다.

《...어디 아프지 않소?》

지금껏 그이앞에서 마음속 숨김을 모르던 형석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전화를 심히 불손하게 받고있으며 뭐든 빨리 말씀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지금껏 안고 갑자르던 화환진정대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화환진정대?!.. 그래, 그게 어떻게 됐소?》

화환진정대모형을 벌써 만들어보았다는 말에 그이께서는 몹시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기뻐하시였으나 이제 화환진정대 위치까지 물으시면 어차피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고 그것으로 모든것이 끝난다는 생각때문에 형석은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제발 그것만 묻지 말아주셨으면... 웬일인지 그이께선 묻지 않으시였다.

하지만 다음 말씀이 그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

《좋소! 그러지 않아 동물원확장문제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던 참인데 한번 나가보지요!》

《예?!...》

형석은 소스라치듯 놀라며 또한번 《예.》 했다. 전화로 물어보시는것도 아니고 현장에 직접 나와보시겠다는것이다.

형석의 펄쩍 놀라는 대답에 그이께서 뭔가 또 생각하시는듯싶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으시였다.

형석은 맥없이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아직 설계가 끝나지 못해 녀사의 조각상가까이에 만들어놓은 화환진정대모형을 해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형석은 벌떡 일어섰다.

그는 현장지휘부에 급히 전화를 걸고 정신없이 대성산으로 나갔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설계실에서는 마지막 도면을 끝내고 모형을 막 해체하려고 했다.

《가만!- 그걸 놔두시오!》

형석은 차에서 내리기 바쁘게 화환진정대모형이 있는데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그이께서 와 보시지 않으면 몰라도 그 바쁘신 시간에 친히 현장에까지 나와 봐주시겠다는데 감히 거짓보고를 드릴수 없다는 생각이 오는 도중에 든것이였다. 인젠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더 말씀드려 승낙받는 길밖에 없었다.

대성산앞도로에 벌써 까만 승용차들이 나타나더니 주작봉쪽으로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승용차들이 가까이올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뒤편 지던 오만가지 생각들은 뒤전으로 밀려나고 애들처럼 그저 그이를 만나뵈을 기쁨만이 가슴들먹이 차올랐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앞서달리던 승용차가 주춤하고 서자 뒤따라오던 차들이 그뒤로 련줄런줄 따라섰다. 그리고 누군가 차에서 내려 이쪽을 한동안 올려다보더니 차에 다시 올랐다. 그러자 승용차들이 가볍게 연기를 뿜으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들은 주작봉으로 올라오지 않고 산밑에 있는 동물원쪽으로 서서히 꺾어져들어갔다.

그이께서 동물원쪽으로 나가시겠다는 말씀은 계셨으나 형석은 웬일인지 차들이 련줄런줄 서던 일이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무슨 일일까? 차들이 왜 섰됐을까?...)

형석은 속이 말라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었다.

그는 바쁜속에서도 지도자동지께서 동물원사업을 사업을 봐주시는동안 돌격대원들과 함께 채 정리하지 못했던 현장을 마저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눈길은 여전히 산밑으로 가고 손발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좀 있자 차들이 또 나타났다.

형석은 반기는 마음에 자기가 산우에 서있다는 것도 잊고 앞으로 몇걸음 내달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승용차들은 동물원에서 나와서도 주작봉으로는 올라오지 않고 다시 시내쪽으로

로 천천히 꺾어져들어갔다.

그는 멀어져가는 차들과 함께 것처럼 기다려 지던 기쁨이 사라져간다는 생각에 속이 허전해졌다. 하지만 그보다먼저 행사일정이 변경됐다는 생각이 그를 더 불안하게 했다.

무슨 일일가, 혹시 또 다른곳에?...

이 경우 저 경우 다 생각해봐도 차들을 세우고 그이께서 주작봉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으리라는 생각때문에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가셔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를 택으로 부르신다는 연락이 나왔다.

택에서?!...

이 또한 뜻밖이었다. 지금까지 그의 부르심을 받고 집무실에는 수없이 들어갔어도 이렇게 택에 들어가는 처음이었다.

얼마후 검소한 작업복차림에 방금 정원에서 일손을 잡으셨다 나오시는듯 환히 웃으시며 맞아주시는 그이를 뵈게 되자 형석은 그만 녀사의 모습이 떠올라 눈앞이 캄 흐려졌다.

《하, 어째 또 이러오? 점심이나 함께 들면서 애거나 하자구 불렀는데 오늘 점심은 굶었군...》

그이께선 길게 차크를 채우게 된 웃웃주머니에 두손을 깊숙이 지르시며 유감이라는듯 빙그레 웃으시었으나 웬일인지 자신께서도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언젠 뭐 그러구싶어 그러했나?..》

그런데 맨 웃단얏은 왜 교양마당처럼 그렇게 넓혔소?... 거기다 화환진정대를 하나 더 만들 생각이면 이제라도 그만두오. 고집부리지 말구...》

그이께서는 정원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정길에는 전나무들이 우거졌는데 마치 그이께서 가시는 길에 꽃보라라도 뿌려드리고싶은듯 이가지 저 가지에서 메세들이 포롱포롱 옮겨왔으며 눈송이를 날렸다.

형석은 갑자기 어리둥절해졌다. 아니 그걸 어떻게? 차들이 섰을 때...

《아니, 난 어머니를 납달리 위하러는 동무의 그.마음을 두구 벌써 생각했었소.》

그이께서 언제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지 웃음어린 눈길로 잠시 바라보시었다.

형석은 또한번 놀랐다. 그럼?! ...

그러나 그이께선 아무 말씀없이 다시 걸음을 옮기시었다. 마치 《이서 가가요!》 하고 아직은 형석이가 모르는 그 어떤 인간생활의 높은 언덕으로 또다시 부르시기라도 하듯 그이께서 발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눈덮힌 정원길에 크고 시원한 발자국이 천천히 찍혀나갔다. 그이로부터 조금 떨어져 형석이도 조심조심 따라 걸었다.

그에게는 마치 그 길이 지도자동지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자기의 인생행로처럼 느껴지면서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지금껏 그 길에서 한치의 드림도 모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그이께서 그 모두를 알고계시는 이 시각에마저도 녀사를 모시는 이 일에서만은 그대로 따를수 없는 형석이었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만의 심정이겠는가?

요즘 혁명렬사릉을 다시 확장한다는 말이 전해지자 전국각지에서 사람들이 달려왔다. 집단적으로 달려와 돌격대를 못하고 일하는가 하면 항일투사유가족들은 수많은 지원물자를 들고 인민반들에서는 짹짹이 기운 숨장감과 어깨발치개를 짜들고 개별적으로 찾아오기도 했다. 학생아이들은 공부실참에 노래와 춤을 준비해가지고 돌격대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갖가지 희귀한 나무를 따오고 삼지연의 맑은 물을 따오며 지원의 손길은 하루도 그칠줄 몰랐다.

끊임없이 달려오는 그 하나하나의 마음에서 녀사를 더 잘 모셔달라는 온 나라사람들의 말없는 부탁을 시각마다 뜨겁게 받아안은 형석이었다.

《지도자동지! 이젠 저의 고집이 아니라 인민들이 바라고 항일투사들이 바라는 하나같은 소원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이...》

형석은 불시에 목이 캄 메여올라 저도 모르게 격한 말이 불쑥 나갔다.

지도자동지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눈내리는 하늘 저 너머에서 해빛이라도 받으신듯 갑자기 안광이 번뜩이시었다.

형석은 심히 외람되고 불손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북받쳐오르는 걱정을 참을수 없었다.

성품이 언제나 소박하고 겸허하시여 누구앞에서도 자랑을 모르시던 녀사이시었다.

하지만 원아들한테만 남모르게 들려주시던 몇가지 《자랑》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고향집에 대한 《자랑》이었다.

고향집에 대한 녀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원아들의 기쁨은 컸다. 뒤산엔 백살구꽃이 구름처럼 피어나고 앞내가엔 은구슬이 돌돌 흐르는 오산덕에 대한 녀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의 기쁨이 커가고 꿈이 커갔다.

그때 형석은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그의 머리속에서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녀사의 고향집은 좀더 커지고 보충되어 옛말에 나오는 그 어떤 크고 신기한 집으로 되었다.

그러나 후날 그는 오산덕에 자리잡은 한채의 초가집을 보고 그것이 녀사께서 것처럼 《자랑》하시던 집이라는것을 알자 짹짹 놀랐다. 그리고 그마저도 다는 아니고 방안에 가마를 건 그 초가집웃방만이 녀사께 차례졌던 집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그는 가슴이 찢기는듯 아팠다.

언젠가 형석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녀성투사는 산에서 싸울 때 송기떡 해먹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너사께서 며칠씩 굶다 겨우 차례진 송기떡하나마저 동지들에게 다 돌려주고 그것을 맛나게 드는게 너무도 기뻐서 배고픈줄도 모르시겠다고 하시며 온밤 잠 못드시더라는 눈물겨운 이야기...

그땐 나라가 없어 그랬다 치고 해방된 다음에야 왜 그처럼 그리워하던 그 고향집에마저 다녀오게 하지 못한단말인가?

누구보다 축복받으셔야 할 너사의 그 눈물겨운 자랑, 그 눈물겨운 기쁨!

인민은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고 너사께 올린것이 과연 무엇이란말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어머님앞에 꽃다발만이라도 마음대로 가져다놓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어머님께 올릴수 있는게 그밖에 더 무엇이 있습니까?! 지도자동지!..》

형석은 길옆에 키높이 자란 전나무줄기를 꼭 붙안으며 소리쳐 불렀다. 나무가지에 무겁게 실려던 눈이 흩어져내리며 정원길에 눈안개가 뽕얇게 서렸다.

《안되오!》

그이께선 한마디로 막으시었다. 그러나 인민들의 말없는 부락을 안고있던 형석이라도 더 이상은 물러설수 없었다.

《지도자동지!!...》

《안되오!!》

문득 정원길에 쟁! 우는 노한 음성! 그이의 안방에서 불꽃이 번쩍 일었다.

지도자동지께서 몹시 격하신듯 큰결음을 내짚으시었다. 그이께서 뽕 뽕 발걸음을 옮겨짚으실 때마다 옷자락에 날리고 크고 깊숙한 발자욱이 꼭 꼭 찍혀나갔다. 눈안개가 앞을 가리고 형석이가 당황하여 허둥허둥 따라섰으나 그이께선 하늘을 지붕삼아 딛고선 대지가 좁기라도 하신듯 정원길을 걸어가시었다.

《형석이!-》

그이께서는 문득 멈춰서시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동문 왜 어머님한테서 자랐다른 사람이 어머님을 그렇게두 모르오?...》

아직두 어머님의 기쁨을 모르다니,

동지들의 기쁨을 자신의 모든 기쁨으로 삼으며 한평생 고스란히 바쳐오시던 어머님이 아니요.

...산에서 싸울 때도 동지들은 권했소. 해방이 된 다음에도 고향집에 다녀오시라고 옆에서 또 권했소.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님은 웃으시며 그 모두를 마다하셨소. 자신보다 혁명이 더 귀중하구 사령관동지를 모시구 싸우는 동지들이 더 귀중했던거요.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철창속도 주저하지 않았고 <민생단>혐의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앞에도 서슴없이 막아나서시던 어머님이 아니요.

그래, 며칠만에 겨우 차례진 송기떡 하나마저 동지들한테 넘겨주고 온밤 기뻐서 잠 못드시던 그 어머님이 오늘도 그 동지들한테 꽃다발을 놓아주자구 하지 다들 자기한테로만 찾아온다구 그걸 자기앞에 놓아주길 바라시겠소?

그앞에 화환진정대를 만들어놓다니,

동문 어머님이 인젠 돌아가셨다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앞에다 화환진정대를 만들어놓게 된거요!... 의리두 모르구... 어머님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던 사람들이게...》

웬일인지 한껏 격해지시던 그이의 음성은 갑자기 낮아지면서 가만히 떨렸다.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난밤에도 늦도록 그 생각을 하시며 창가에 서계시였었다. 명절이 가까와오자 거리와 마을이 흥성거리고 애들은 좋아라 눈우에서 덩구는데 눈이 내리면 이국산천에 묻고 온 희생된 동지들이 생각나시여 온밤 잠 못드시며 창가에 서계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르신 것이었다.

《... 난 지난밤에두 40뼉에 줄 혼장추천서들을 보면서 잠을 못갔소...》

일들을 많이 했지, 아깝지 않소... 그런데 어째 그 술한걸 써보내면서 나라를 찾느라고 20대에 허를 물어꿨구 아홉살에 교수대로 올라가던 저 사람들 애긴 반세기 넘도록 써보내는 사람이 없나 그거요? ...

전에 어머님은 명절이 돼두 산에서 같이 싸우다 희생된 동지들이 생각나서 수저를 못들고 수령님께 말씀드리더랬소... 그런데... 우린... 그래, 정말 인젠 아무것두 해줄수 없단말이요?...》

다 주지요! 꽃다발두 혼장두... 수령님을 모시구 혁명하다 희생된 사람들한테 혼장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따라준대두 아깝지 않소!

수령님께 내가 보고드리겠소! 김혁, 차광수! ... 렬사릉에 모신 투사들은 다 영웅들이요!》

그이께서는 흥분하시여 갑자기 하시던 말끝을 끊으시고 눈속을 오가시었다. 문득 광풍이라도 인듯 나무가지들에서 눈몽치들이 쏟아져내리고 하늘높이 눈바람이 솟구쳐올랐다.

《됐소! 이게 바로 어머님이 바라는 마음이고 기쁨이요! 투사들의 반신상앞에 놓는 화환진정대에다 하늘에서도 다 내려다보게 될 영웅메달을 하나 큼직하게 새겨주지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제야 속이 후련하신듯 형석의 어깨를 잡고 한동안 들이다보시다 그 의잔등을 톡 치시었다.

《어떻소? 이 고집쟁이...》

《...》

형석은 이 하루에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도 크고 벽차 아무대답도 드릴수 없었다.

그는 지금껏 누가 뭐라든 사람에게서 한생은

한번이며 동지들에 대한 의리와 사랑도 살아생존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형석은 어머니당이 있어 동지들을 위하는 너사의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있으며 오늘도 계속되는 그 숭고한 의리로 하여 인민은 한마음당을 받들고 우리 당은 필승불패로 된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형석은 비로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난 밤에 훈장추천서들을 봐주시다가 화환진정대일로 전화를 하시게 되어오나 언제나 인민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그이께서 한 전사의 마음에 담아 것처럼 소망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한마디 지시로 자르실수 없어 여기 정원길로 불러주시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형석에게서 그렇게 걷는 정원길은 처음이 아니었다. 자기보다 앞서 달리는 다른 동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을 때에도 너사께서는 정원으로 부르시였고 남한테 차례지는 영예를 가로채려는 못난짓이라고 지금처럼 엄하게 추궁하시었다.

그러나 혁명가유자녀들이 누구한테 축잡히는것이 가슴아프고 제판에는 기쁨을 드리느라고 한철없는 마음을 무작정 나무라실수 없으시여 이 정원길로 불러주시던 그 일이 너무도 고마와 남들은 즐겁던 나날을 추억하여도 형석은 너사께서 추궁받던 그 정원길을 추억하였다.

하지만 형석은 오늘 추억이 아니라 기쁨속에 이 정원길을 다시 걷고 있는것이였다. 그 길을 오늘도 도 계속되고 래일도 모래도 먼 후날에도 계속될 그의 인생행로였다.

형석은 행복하였다. 그는 오늘에야 비로소 지금껏 궁지에 넘쳐 이야기하던 자기의 그 《인생행로》가 다름아닌 자기를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그 어머니의 품을 찾는 길이며 그 길에서 끝내는 찾게 되는 당의 품이 바로 그 위대한 어머니품이고 그품에 안겨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씩없이 걸어간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 품!

내 왜 그것을 물랐을가?...

《인젠 자주 다니오. 이다음에두 이렇게 꼭 찾아야만 오겠소?... 동문 암반파두 틀렸어.》

우렁우렁한 노염에 젖은 음성이 다시 울렸다. 노염을 타시면서도 정어린 너사의 어제날 그 음성, 형석은 가슴이 뭉클하여 천천히 머리를 쳐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두팔을 가볍게 쳐드시고 어딘가 멀리 달아났던 자식이라도 맞는듯한 그 반가우면서도 불안한 어머니의 눈길로 다정히 바라보시었다.

형석은 《지도자동지!!!-》 하고 목놓아부르며 그이의 품에 와락 가 안기고싶었다. 하지만 웬일

인지 목소리가 나가지 않고 온몸이 굳어지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그러자 지도자동지께서는 큰 걸음을 내짚으시여 그를 와락 껴안아주시었다. 그이의 한없이 넓으신 품에 안긴 사나이의 두 어깨가 소리없이 들먹거렸다.

그의 어깨를 꼭 붙안아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눈빛도 흐려지시었다.

김정일 동지의 가슴에서 세차게 뛰는 심장의 박동이 형석의 온몸으로 뜨겁게 흘러들었다. 지도자와 전사가 하나로 불안고 선 그 정원길로 눈은 소리없이 내리고 또 내렸다.

...

화환진정대에는 공화국영웅메달이 송엄하게 아로새겨져있었다. 그리고 빨간 땀기가 걸린 화환이 마치 눈내리는 언 대지라도 덮혀주고싶은듯 하얀 눈우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있었다.

형석이가 대문쪽으로 내려갔다오는 사이에 사람들이 하날루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그앞에다 또 꽃을 놓고 우로우로 올라갔다.

그러나 형석은 굳어진듯 한자리에 서서 붉은기발이 세차게 나뭇기는 영생의 언덕을 오래도록 바라보고있었다.

그앞에 수수한 치마저고리를 입으신 김정숙녀사께서 조용히 계시었다. 어찌보면 붉은 기발을 날리며 방금 행군길에서 돌아온 동지들앞에 꽃이 계속 놓이는것이 못내 기쁘시여 빙그레 웃으시는데 또 어찌보면 먼 적후공작의 어려운 길을 떠나시면서도 사령관동지의 안녕이 근심되시여 잠시 들여다보고계시는듯...

《우리도 꽃을 놓고 어머님한테로 올라가자.》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형석은 너사께서 문득 자기를 부르시는듯한 생각이 들어 아들의 숨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며 말했다.

《싫어, 나도 김정숙어머님께 꽃송이를 가져다 드릴테야!》

아들애는 때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자 형석은 화환진정대앞에서 잠시 머리를 숙이고 꽃송이를 안은채 너사의 조각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띄여보게 되었다. 그것은 그 애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형석은 아들애를 달랠수 없었다. 이 아침 혁명렬사들앞에 어떻게 되어 금별메달이 아로새겨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되어 그앞에 꽃을 놓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꽃이 어떤 꽃인지, 꽃을 안고온 저들도 다는 모를진데 하물며 저 어린것이 어이 그 깊은 뜻을 새기랴. 그리고 설사 그 깊은 뜻을 새긴다 해도 마음속에 안고 올라가는 꽃이야 어찌랴.

형석은 애를 따라 너사의 조각상앞으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전선

조필수

1

김정근은 추억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뼘 일에 다몰리웠다. 시재 급한 파업에 손을 잠그면 또 새일이 다달아 방금 마무리한 일도 돌이켜볼새 없이 먼 일로 되곤했다. 순간이라도 명심하지 않으면 겹쳐드는 일중에서 어느것이 비뚤어지고 어느것이 부실해질지 알수 없었다. 무슨 일이든 어설프게만 여무느듯싶어 마음놓는 날 없이 조바심쳐 사는 그였다. 경험과 교훈을 준 나날들이 사뭇 심정에 파고들 때도 있었다. 그렇게 한 순간 가슴속에 찾아드는 지난날의 추억 역시 당장 치워내는 일도 그전의 일들처럼 홀로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오직 현재만이 있었다. 언제나 새로받은 파업에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듯싶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부터 지나간 나날들을 헤쳐볼래기 여념이 없었다. 며칠후에 열리게 될 시당전원회의에서 경험토론을 하게 된 덕에 그에게도 추억에 잠겨보는 한나절이 차려졌던것이다. 토론의 골자는 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얻은 경험으로 되어야 했다. 그런만큼 30여년동안 해온 사람들과의 사업을 더듬지 않고는 씌먹은 소릴 할것 같지 못했다. 그는 오랜 당일군이였다. 스물살때 소대장시절부터 53년도 여름까지만 세해를 전선에서 싸운걸 내놓고서는 50평생 전부를 당사업에 바쳐왔다. 30대에는 1제철소 당위원회 지도원이였고 40대에는 한개 부서를 책임진 부부장이었다.

1제철소 강철직장 초급당비서가 된 때로부터도 어언간 10여년 세월이 흘렀다. 김정근은 오늘에야 비로소 자기의 인생에 허다한 년륜이 새겨졌음을 보는듯싶었다. 하지만 그 년륜의 돌기돌기에는 범상히 흘러가는 인생의 흔적은 아니였다.

그것은 당일군 김정근의 성장의 자취였다. 그 사연 많은 자취에는 사람들을 이끄는 인간들이 체험하는 갖가지 기쁨과 고통이 어려있었다. 김정근은 한것이 되게 그 나날들을 더듬어 경험이 될만한 이야기들을 몇가지 찾아냈다. 그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성장에 대한것이였다. 사연많은 그 성장의 나날들은 김정근의 인생과 어울려있었다. 못사람들의 성장과 더불어 그가 겪은 피로움과 고민, 그리고 뒤따라 어김없이 찾아든 기쁨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하게 될 토론의 내용이였다.

그러고보면 토론준비는 거의다 된셈이였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허우대가 큰 사람이 멀끔한 신수에 어울리게 미소를 지으며 방안

에 들어섰다.

《스 기계공장 자재과장입니다.》

《먼데서 오셨군요. 어서 앉으시오.》

손님은 김정근이 권하는 의자에 거쿨진 몸을 실리며 색스럽게 장식한 담배꽂부터 깨내들었다. 레사로운 인사말이 오고가지 두줄기의 향기로운 담배연기가 피여올랐다.

《우리 자재일군들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어놓을줄 아는 수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일군들앞에서야 무슨 수단을 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정근은 푸점좋은 손님의 은근한 목소리를 들으며 꺄꺄 웃었다.

《어서 얘길하시오. 내 기꺼이 도울테니.》

김정근이 선선히 나오자 손님은 방금전의 그 여유있는 몸가짐에 어울리지 않게 한숨을 내쉬었다.

《2년전에 김책공대를 졸업한 젊은 기사가 우리 공장에 왔습니다. 첫눈에 재간둥이라는게 알립니다. 정말 신통한 젊은이였습니다. 우리가 보긴 바로 봤지요. 며칠전에 새형의 채탄기를 설계해 냈는데지금 그 분야 학계가 법석 끓어번지고있습니다. 대단한 발견이라는거지요.》

우린 인츰 생산에 들어갈려구 기술준비에 달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딱하게두 강재 한가지가 걸렸습니다.》

손님은 다음말을 잇기가 두려운듯 한숨을 내쉬고는 불안한 눈길로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들문이 열리더니 두눈이 유난스레 검은 처녀가 나타나 머리를 약간 숙여보이고는 도로 나가려했다.

《일없소. 들어오우.》

김정근은 기술준비실에서 제기한 기술혁신안을 보자고 했던 기억이 나 처녀를 한쪽 구석에 불러앉혔다.

《어서 얘길하시오.》

손님은 또다시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눈길을 떨구었다. 언제나 웃음이 넘칠것 같게 시원스레 생긴 그 눈에 번민이 어려들었다. 회숙한 귀밑머리도 그 번민때문에 이즈막에 센것인듯싶었다.

김정근은 손님의 눈을 마주보기가 어려웠다.

《C-강》은 김정근네도 만들어보지 못한것이였다. 그는 언젠가 《C-강》에 대해서 들어본적이 있는것같았다. 하지만 누구한테서 들었던지 기억이 안났다. 그는 하얗게 된 담배재가 적삼우에 떨어져내리는것도 모르고 덤덤히 앉아있었다.

《사실 전 채탄기를 설계해낸 그 젊은이 성화에

못이겨 공걸음을 하는셈치고 왔습니다. 어데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여기서 그걸 만든다는거지요. 내가 모를리 없는데말입니다. 가면 틀림없다고 버쩍 우겨대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것 같더라 말입니다. 허허, 그 젊은이도 행어나해서 그랬겠지요.》

손님은 서글피 웃고나서 이젠 그만 일어서려는듯 책상위의 서류가방을 끄당겨잡았다.

《조금만 더 앉으시오. 그 사람이야 기술잔데 허력으로 우리 직장을 찍진 않았을겁니다. 내 줍...》

김정근은 일어서려는 손님을 만류하며 전화기를 쳐들다가 그만 얼떠름해졌다.

맞은편 구석에 앉은 처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진것을 보았던것이다.

그는 당비서의 눈길을 느꼈는지 흠칫 어깨를 떨더니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버렸다.

(들어올 때까지도 별다른데 없던 혜선이가 왜 저럴가. 빈손으로 돌아갈 손님을 동정해서인가.

이 손님의 사정을 들으면야 누구든 책임감을 느낄테지. 하지만 처녀의 어두워진 얼굴을 그렇게 세사정도로 스쳐볼수야 없지...)

김정근은 전화번호판을 돌리며 이렇게 생각에 잠겨들었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울렸다.

《아, 공정기사동무군. 김정근이요. 나한테 잠간 와주겠소? 바쁘게 앉으면... 그럼 기다리겠소.》

김정근은 전화통을 놓으려다 한순간 그대로 굳어졌다. 짐짓 태연스레 앉은 처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기 시작했던것이다. 문득 김정근은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여기에 나타날 공정기사는 혜선이가 사랑하던 총각이었다. 그들의 첫사랑이 무슨 일로 깨졌는지 그 사연은 누구도 모른다고 한다. 김정근이도 무척 애를 썼지만 결단난 사랑의 속내는 알길이 없었다. 그는 가날피 떠는 처녀의 어깨를 가슴아피 바라보며 서로 멀리 헤어진 젊은이들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런데서 맞세우는 자신의 실수를 한탄했다. 먼 현관한끝에서 벌써 발자욱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건만 죄어드는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키가 큰 젊은이가 조심스레 방안에 들어서더니 공손히 머리를 숙여보였다.

《앉소, 동수동무!》

김정근은 별일이 없다는듯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젊은이는 그대로 서있었다. 그저 빨리 나가고싶은 모양이었다. 눈길은 아직 그쪽으로 돌리지 않았건만 육감으로 곁에 있는 처녀를 느끼게 분명했다.

《난 언젠가 <ㄷ-강>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소. 그런데 누구한테 들었던지 그만 삭막해졌소. 동수동무 <ㄷ-강>을 생각해본적이 없소?》

동수가 흠칫 놀랐다. 어느새 진정된듯했던 처녀의 어깨가 다시 한번 흔들리었다.

《스기계공장에서 젊은 기사가 새 채탄기를 설계해냈소. 그런데 <ㄷ-강>이 없어서 아직 생산에 달라붙지 못했...》

김정근은 불쑥 말을 끊고 움쭉 몸을 일으켰다. 동수가 금시 얼굴이 눈덩이처럼 하얘지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고 처녀의 곁에 주저앉았던것이다. 그는 누가 눈치챌세라 인츰 머리를 쳐들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까스로 말했다.

《전... 잘 모릅니다. <ㄷ-강>은...》

《이제 바쁘데 안됐습니다.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계공장 손님은 자기가 빨리 자리를 떠야 피차 괴롭히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육중한 몸을 가볍게 일으켰다.

김정근은 정문밖까지 따라나가 손님을 배래웠다. 말로나마 빈손으로 가는 사람의 시름을 덜어주고싶었으나 막연한 기약마저 할수 없는 형편이여서 그러지도 못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자기 방에 들어섰다. 동수는 가고 처녀만이 홀로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혜선인 아까 무슨 생각을 했더랬소?》

우리가 <ㄷ-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말이요.》

김정근은 서글피 라는 처녀의 눈을 가슴아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뭘좀... 별치않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처녀는 눈길을 떨구고 애써 태연스레 대답했다.

《그랬었군. 그랬었어. 이젠 좀 보지요. 기술혁신안을...》

김정근은 허전해지는 마음을 견잡을수 없었으나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 처녀가 주는 종이두루마리를 받아들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처녀의 얼굴이 더더욱 어둡게 흐려버렸다.

2

방패같이 둥근 밤하늘의 먼 복판에서 달빛이 흘러내렸다. 나두잎새사이로 스며든 한가닥의 달빛이 창문을 어루만지었다. 김정근은 그 한줄기 빛발속에 제가 모색하며 찾는것이 어려웠기라도 한듯 천천히 창문쪽으로 걸어갔다. 검푸른 어둠속에 길게 누운 강물이 첫눈에 내다보였다. 어둠보다 더 검은 그 강물속에서 은빛 물결들이 구슬처럼 끓어올랐다. 물건너 저쪽 대안기슭에서는 밤주낙꾼들이 좋은 자리를 잡은듯 새빨간 등불들이 군데군데 반짝인다. 유보도에 줄지어 늘어선 가로등들은 저마끔 명상에 잠겨 파르무레한 빛을 뿌리며 까닥 않는다. 멀든 가깝든 눈길이 가닿는곳곳에 불빛은 가득찼다.

하지만 김정근의 가슴은 좀처럼 밝아지지 못했다. 그는 곁에 있는 의자우에 주저앉았다.

《여보!》

언제 아래방에서 올라왔는지 안해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렸다.

《1시예요.》

따뜻한 손이 어깨를 어루만지었다. 김정근은 그 근심어린 손의 애뜻한 맥박을 느낀듯 안해한테로 머리를 돌렸다.

《왜 아직 안자우?》

《참 당신두...》

너인은 남편의 눈을 내려다보며 서글피 웃었다.

《여보.》 김정근은 번민이 어린 눈으로 안해를 올려다보았다. 《당신도 나한테 뭘 속일 때가 있소? 아니... 나몰래 당신 혼자 마음에만 두는게 있나 말ियो? 오해 하지 마오.》

너인은 남편의 눈에서 진실을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읽은듯 저물래 한숨을 지었다. 그는 남편의 어깨에서 손을 내리우고 창문걸로 걸어갔다.

너인이 멈춰서자 방안은 숨소리마저 들릴만큼 고요해졌다. 밤바람이 이는지 강녘에서 백양나무 숲이 설레는 소리가 들려왔다. 검푸른 잎새들이 달빛에 나뭇기는 그 울창한 우듬지너머에서 느닷없이 물결이 술렁였다.

《그런게 있어요.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언제든 말할것들이예요.》

너인은 먼 어둠속의 산밑에서 반짝이는 빨간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음... 그렇됐군.》

김정근은 놀란 눈길로 안해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말좀 하오. 내 사업을 위해서말ियो.》

가슴에만 두고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란게 어떤 것이요? 아니 그 비밀이 어떤 것인가 하는건 중요치 않소. 왜 말을 못하는가 하는게 문제요.》

김정근은 의자에서 일어나 안해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다. 너인은 남편이 앉았던 의자에 주저앉으며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51년도 당신에 소대 3분대 부분대장동무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나오. 내가 그 동물 어찌 잊겠소.》

《당신은 그 동무가 의지가 약하구 용감하지 못하다구 생각했더랬어요. 그래서 그 동물 군관학교에 추천하는데 동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난 그동무가 그렇지 않다는걸 알고있었어요. 그 동무가 어깨에 관통상을 입구 우리 군의소에 입원해있을 때 제가 체험했으니깐요. 어느날 제가 담당한 병동이 폭격을 겪었는데 그때 그 동무가 아니었더라면 술한 환자들이 목숨을 잃을번했어요. 그 동문 불길속에서 나오지 못하구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성한 한팔로 전우들을 업어냈어요. 정신을 잃은 그 동물 제가 찾아냈어요. 한순간만 늦었더라도 그때 벌써 그 동문 잘못되었을거예요. 얼마나 의지가 강하구 용감한 동문가요. 하

지만 난 그때 당신에게 그 동무가 비겁한 사람이 아니란걸 말해주지 못했어요. 그때 말할수 없었어요.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었을 때니까요. 당신의 기분을 거슬릴가봐 두려웠어요. 당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고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그 부분대장동무가 군관이 되어 전사한 뒤에도 난 그때 애길 못했어요. 그때 또 당신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싶지 않았거든요. 지금두 전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 괴롭기 그지없어요. 내 행복만 생각하다나니 더 큰걸 생각지 못했지요.》

너인은 말을 마치고 그윽히 빛나는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창너머 먼 하늘 한끝에서 푸른 섬광이 소리없이 번뜩이었다. 간단없이 솟구치는 그 용접광들에 부딪쳐 높은 집들의 지붕이 허공에서 드러났다.

《됐소, 이제 됐소. 내려가 눈을 좀 붙ियो.》

김정근은 안해의 어깨를 두손으로 잡아일킨 다음 조심스레 아래방쪽으로 떠밀었다.

새벽 2시를 알리는 벽시계의 종소리가 어둠에 지척에 숨어서 울리는듯 은은히 들려왔다.

(저 사람은 자기 행복만 생각하다나니 더 큰걸 생각지 못했다고 했지. 옳다. 그 말이 옳다. 3분대 부분대장동무의 그 군센 의지와 용감성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걸 몰랐단민이지. 동수기사... 동수기사... <ㄷ-강>에 대해 묻자 그 젊은인 쓰러질번했지. 그러니 <ㄷ-강>과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인가. 음... 난 3분대 부분대장장동무 잘못 봤었지.

비겁하다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동수기산 내 눈에 어떤 젊은이로 비쳐들었는가. 그저 평범한 기사, 착실한 공정기사일뿐이지.

난 3분대 부분대장동문 지휘관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었지. 아니다. 동수동무에겐 재능이 있다.

우리가 받들어주지 못했을뿐이다. 그렇다. 동수동무도 처음 왔을 땐 무엇인가 연구한다고 했었지.

그게 혹시 <ㄷ-강>이 아니었던가.

나한테 누가 <ㄷ-강>에 대해서 말했든가... 누가...)

김정근의 달아오른 머리속에서 이런 말이 두서없이 울리고 또 울리었다.

새벽 3시를 알리는 벽시계의 종소리가 선명하게 귀청을 쳤다. 무슨 뜻이던 깨우치려고 울리는 듯 싶은 그 종소리는 깊은 밤의 고요속에 여운도 없이 묻혀버렸다. 그 야릇한 음향이 사라지자 높은 집들너머 멀리 교외가 시작되는 어데쯤에선 지 기적소리가 아득히 울리었다.

《그래... 그래... 그렇지!》

김정근은 갑자기 기쁨에 겨워 중얼거리었다.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 이제야 생각나는군..

이제야. <ㄷ-강>... <ㄷ-강>... 그렇지. 부직장장동무가 <ㄷ-강>에 대해서 말했지. 두해전이었어.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지. 우린 눈을 맞으며 걸었었어. 동수동무에 대해서 <ㄷ-강>에 대해서 말하며… 이제야 생각나는군… 이제야…》

김정근은 진정할길이 없는듯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는 힘껏 기지개를 켜고 아래방문을 열었다. 불시에 줄음이 덮쳐들며 구석쪽에 있는 침대가 아득히 멀어보였다. 아무데든 되는데로 누워버리고싶었다. 굳잠이 든 안해의 숨소리가 어둠속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홀연 막을길 없이 밀려들던 줄음이 가신듯이 사라졌다. 단잠이 든 안해의 고르로운 숨소리는 더 들리지 않고 수심에 잠간 혜선의 얼굴이 눈앞에 우뚝이 떠올랐다. 그는 옷방쪽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이 밤을 밝히며 피로와하고있을 혜선이와 동수의 얼굴이 눈에 밟혀들어 침대에 누울수가 없었다.

비가 떨어지며 창문을 쳤다.

그는 차거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저멀리 물역까지 펼쳐진 유우너지속으로 어느덧 새벽빛이 솟아들었다.

나무잎이 한껏 푸르러진 6월의 밤이건만 땅은 무엇인가 영원한 일애 골몰하는듯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받아머금는다. 김정근은 성장의 기쁨에 취한듯싶은 해묵은 백양나무의 검푸른 우듬지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새롭고 의의있는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크나큰 흥분속에서 느끼었다.

3

날이 밝자 김정근은 서둘러 출근길에 나섰다. 밤교대생산을 막아 지휘한 부직장장 유화영이 사무실앞에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유화영은 심각한 낮빛이 되어 지난밤에 공정기사 리동수가 빈혈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알리었다. 김정근은 유화영이와 함께 총총히 공장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두사람이 입원실에 들어섰을때 리동수는 기척을 느꼈는지 눈을 떴다.

그는 자기앞에 앉아있는 초급당비서와 부직장을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어쭈게 미소를 지으며 밤새 까실까실 타버린 입술을 간신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바쁜통에… 짧은놈이 늑기까지해서…》

짧은이는 말끝을 흐리고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무슨 소릴 하우… 내가 미안하우…》

김정근은 제가 무슨 뜻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갈린 소리로 중얼거리었다. 그는 꼭 자기때문에 짧은이가 쓰러진것처럼 생각되었다.

김정근의 말이 어떤 의미로 들렸는지 짧은이는 다시 눈을 떴다. 놀라움이 어린 눈이 한순간 불타는듯하더니 다시 힘겨이 감겨져버렸다. 김정근은 짧은이의 하얗게 피색이 빠진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치료를 잘 받소. 일걱정은 말구…우리 또 오

지…》

김정근은 앓아있기가 피로와 이렇게 마지막말을 하고 일어섰다. 가슴을 터놓고 세월없이 이야기를 나누고싶었으나 그런 때가 쉬이 올것 같지 않았다.

숲이 우거진 정원을 지나 병원마당을 벗어나자 두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맞추었다. 김정근은 깊은 생각에 빠진 모양으로 내치 발길을 옮기다가는 한참씩 걸음을 멈추고 묵묵히 서있곤했다. 옥 걸음을 내디더도 얼마를 못가고 발이 무거워졌다. 그래도 두 사람의 발자욱소리는 여전히 하나로 울리었다. 김정근은 어느쪽이 어느쪽에 맞추는지 알길 없는 그 발자욱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며 걸잡을수 없는 흥분속에 빠져들었다. 드디어 《ㄷ-강》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되었던것이다.

이제 무슨 대답이 나올는지 지레 가슴부터 답답했다. 유화영이마저 모른다면 일은 건질길 없이 망가진 셈이었다. 발자욱 소리는 다시금 하나로 합쳐졌다.

(두해전에 우린 이 길을 지금처럼 나란히 걸었지. 그때 부직장장동문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공정기사로 배치된수동무에 대해 말했었지. 그는 동수기사에게 신발을 잘 신겨야 하겠다고 귀뜸하면서 오자부터 《ㄷ-강》이란걸 연구한다고 들며 돌아치면서 말은 일에 착실치 못하다고 근심했었지. 참 그해 첫눈이 그날에 내렸지. 난 하얀 눈송이들이 뒤엉켜 가물거리는 우유빛 하늘을 바라보며끝없는 생각에 잠겼더랬지. 한송이… 또 한송이… 머나먼 하늘을 떠나 땅우로 날아내리는 저 눈송이들… 수정쪽과 같이 반짝이는 저 눈송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이룩하려고 저렇듯 들까불며 내려오는것일가? 그런 생각이 들자 느닷없이 마음이 기빠졌지.)

뚜걱… 뚜걱…

김정근은 또다시 하나로 합쳐진 발자욱소리를 들으며 더더욱 깊이 추억속에 빠져들었다.

(눈이 내렸지… 눈이… 소담스러운 눈이… 눈결에 스쳐보면 얼핏 쌓였다가 녹고마는듯싶은 가얏픈 눈송이들이… 하지만 땅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알수 있을것 같더라말이지. 그 작은 눈송이들이 해빛으로 자기를 녹여 땅속에 피처럼 스며든다는것을 알수 있을것 같더라 말이지. 동수기사에 대해 들은덕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겠지. 동수기사와 <ㄷ-강>은 그렇게 내 머리속에 새겨졌어.)

김정근은 걸음을 멈추고 길너에 우뚝 솟은 소나무를 쳐다보았다. 황금빛 해살속에서 새파람 바늘잎들이 승벽으로 반짝이였다.

발자욱소리가 다시 울렸다.

(머칠이 지나 부직장장동문 두번째로 동수기사에 대해 이야기했지. 역시 들떠돌아친다는거였어. 그날부터 난 동수기사가 쇠물에 정을 붙이게 해주려고 은근히 공을 들였어. 생산에서 걸린 문제

를 그한테 맡겨 풀게 두 했구 생산공정을 현대화 하는 사업두 그한테 맡겼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그 사람은 마음을 다잡는듯싶었어. 하지만 난 <ㄷ-강>에 대해서는 한번도 말한적이 없었어. 자칫 잘못하면 젊은 가사의 꿈을 깨버릴수도 있을테니까. 난 믿었어. 그 사람은 자기의 꿈을 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말이지. 결에서 부추기지도 않아도 제앞치리나 근심없이 웅골게 하게 되면 자연히<ㄷ-강>을 만들자구 달라붙은줄로 알았지. 어느날 공장 <전투속보>에 동수기사의 알뜰한 일본새를 소개하는 글이 났었어.

부직장장동무가 써낸 글이었어. 그후엔 <ㄷ-강>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지. 그래서 영영 잊어 버리고말았지.)

《혹시 기억이 안나우? <ㄷ-강>이.》

김정근은 걸음을 멈추고 금방 기침을 터뜨릴듯 가슴을 헐떡이다가 힘겨이 말을 뱉다.

《<ㄷ-강>이요?》

유화영은 길녘에 서있는 등치 굵은 나무에 넓고 살집 좋은 어깨를 기대고 눈을 쏘프리였다.

《글쎄요. 들어본듯도 한데요.》

《2년전에 나화구 이 길을 걸은 기억이 안나우?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소.》

유화영은 눈귀가 쳐들린 부리부리한 눈을 꼭 감고 다시금 생각에 잠기더니 머리를 끄덕이였다.

《기억이 납니다. 비서동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눈을 맞으면서 걸었었지요.》

《그래 <ㄷ-강>이 생각나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강은 어디서 달라는데 두 없었는데요. 어느 젊은 공상가가 한마디 한게 비서동지의 마음에 걸린게군요.》

유화영이 시원스레 뿜힌 굵은 목을 뒤로 젖히고 꺾꺾 웃었다.

김정근은 발밑에서 모가 진 가시풀이라도 솟구친듯 황급히 발을 쳐들며 걸음을 땀다. 웬일인지 지금껏 무탈하던 오금이 맥없이 떨려들었다. 어데든 한숨 주저앉지 않으면 휘저드는 몸을 가눌 것 같지 못했다. 그래도 발길은 체력대로 어데론가 내쳐 가단기만 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 사람은 잊어버렸다. 정녕 이 사람은 그때 일을 잊어버렸다. 나도 잊어버렸었구...》

<ㄷ-강>... <ㄷ-강>...》

김정근은 강철직장 마당에 들어설 때까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

4

김정근은 사무실앞에서 유화영이와 헤어진뒤 용해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6월의 눈부신 해가 푸른 하늘 한복판에서 빛을 뿌리었다. 따뜻한 별이 어데든 비졌다. 아늑한 거기가 제일인듯 해빛속에서 새들이 우짖었다. 5

월은 어느덧 가버렸어도 봄빛이 여적 이런 때 해빛속에 몸을 잠그면 시름겨운 마음마저 저 새들처럼 즐거워질것 같았다. 하지만 김정근은 여름이 자결을 서두르는 이 은근하고도 열정적인 날의 신비로움을 느끼지 못했다.

구내길에는 것처럼 걸음을 다긋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일생에 지금처럼 촉박감을 느껴보기는 처음인것 같았다.

《<ㄷ-강>, 혜선이, 동수, 유화영이, 새 채탄기... 걸음걸음 끝없는 생각이 김정근의 머리속에 엉키고 또 엉켜들었다.

쇠물을 싣고오는 기관차가 뜨거운 열기를 뿜으며 그의 걸을 지나 용해장으로 들이닥쳤다. 노을처럼 붉은 빛발이 자우룩히 서린 용해장 천정밑에서 되알진 호각소리가 울렸다.

김정근은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쳐들었다. 우람진 전로가 불빛이 어려 너울거리는 검붉은 밀둥을 서서히 쳐들었다.

그러자 시뻘건 불줄기가 솟구쳐올라 허공은 헤가르며 휘날렸다. 보석이 깨진듯 불꽃이 터져올라 승벽을 반짝이더니 김정근의 발치로 떨어져내렸다.

《교관아바이, 수고하십니다. 요즘 생산이 부쩍 오르는걸 보니 기세가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쇠물이 잘 익었습니다.》

김정근은 어두운 마음을 내비치지 않으려고고 웃음을 지었다.

《경사로온 명절이 겹쳐서 다가오니 쇠물도 저렇게 흥청거립니다요. 8월 명절... 10월 명절...》

아바이는 흥겨로운 마음을 녹찾힐 힘이 없는듯 방열복 앞섶을 헤치고 꺾꺾 웃었다. 김정근이도 따라웃었다.

《가만... 비서동무 밤중에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다그러. 이쯤하면 천정이 울리게 통폐해야 할 비서동무의 웃음소리가 왜 이리 시름스럽게 들립니까?》

그는 허영게 센 눈섭밑에 묻힌 작은 눈으로 김정근을 지긋게 살펴보았다.

《지금껏 그렇게 마음놓고 웃을 형편이 못되는 걸 웃었지요. 제구실을 못하면서 웃었다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비서동무가 언제 일을 그르쳤단말이요. 난 비서동무 잘 알지요. 20여년을 같이 살지 않았소. 비서동무와 함께 당을 받드는 길에서 난 영웅이 되었습시다. 젊었을 때두 그랬구 60이 넘어 내 피줄이 터질때두 그랬구 비서동무 가슴속엔 늘 이 김대원이 근심이 없혀있었지요. 난 다 압니다. 비서동무가 어떻게 효성스런 마음으로 당을 받드는가 하는걸... 한 사람의 당원이라도 불효할세라 늘 애태우며 살았지요. 일을 그르치다니요. 그런 말을 마시우.》

《아바인 날 위로하는군요.》

《아니요. 비서동무한테 위론 무슨 위로요.》

두사람은 한동안 덤덤히 앉아있었다.

천정기중기가 그들의 머리위로 지나가고 호각 소리가 겨끔내기로 울렸다.

《오늘 저녁에 초급당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소?》

《스기제공장에서 새형의 채탄기를 설계했습니다. 아주 좋은거랍니다.》

《그거 참 경사로군. 석탄전선이 은을 크게 냈구만.》

《그런데 새 채탄기를 만들자니 강재가 한가지 걸렸습니다.

<ㄷ-강>이 꼭 있어야 한답니다. 저기 자재과장 동무가 행어나해서 어제 우리한테 왔다갔습시다.》

《거참... 면목이 없이 됐군. 생산지표에두 없는 강재니...》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겠습니까. 그것두 며칠 새말입니다. 래일아침쯤이면 <ㄷ-강>을 연구하던 동무가 우리앞에 나타날겁니다.》

(아니... 나한테 이렇게 확신할 무슨 근거라도 있는것인가. 내가 동수동물 오늘밤중으로 일으켜 세울수 있단말인가.

그는 <ㄷ-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했다. 나는 그가 무엇때문에 <ㄷ-강>연구를 포기했는지 아직 모르지 않는가. 아니 그도 힘과 믿음을 주면 반드시 일어설것이다.)

김정근은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놀라며 목단추를 끌러놓았다.

《합시다. 사실 나두 요즘 고민이 있었소. 수령님께서 내 가슴에 영웅메달을 달아주셨는데 경사로운 이해에 맡은 일이나 해서 되겠나말이요.》

아바이는 희스히 선 머리를 두손으로 쓰다듬어 올리고나서 주먹을 흔들어보였다.

《용해공동무들한테 먼저 털어놓구 얘길 합시다.》

김정근이 전기로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그래야지요. 그녀석들이 욱욱하고 떨쳐나설겁니다.》

그는 호탕하게 웃고나서 목에 건 호각을 두툼한 입술에 물고 불을 불구었다. 되알진 호각소리가 귀청따갑게 울려져졌다.

《비서동무가 새소식을 가지고왔소.》

방금 한남비 쇠물을 부어낸 용해공들이 김정근의 옆으로 우르르 몰쳐들었다. 김정근이 성냥불을 켜들자 술한 담배가치들이 입술에 물린채 모여들었다.

웃음소리가 훑날리고 담배불들이 병긋거리었다.

《새소식이란게 뭐가 하니 큼직한 일을 하나 해제끼자는거요.》

김정근이 가슴깊이 빨아들었던 푸릿한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운을 뗐다.

《그거 반가운 소식입니다.》

젊은이들이 와 하고 웃어댔다.

《스기제공장에서 새형의 채탄기를 설계해냈소. 대단한거요. 그런데 <ㄷ-강>이 없어서 당장 생산에 넘어가지 못하고있소. 탄광들에서는 한시가 급해하는데말이요.》

어떻소? 우리가 <ㄷ-강>을 못주어서 새 채탄기를 만들지 못한단말이요.

부끄럽게 되였소. 제철소사람들이 머릴 못들게 했소. 난 사실 이런 일이 생길줄은 몰랐소. 그래서 벌써 두해전에 어느 기사가 <ㄷ-강>을 연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두 무심해있었소. 난 그를 도와주지 못했소. 내가 일을 그르쳤소. 내가 나라에 큰 손실을 쳤소.》

《됐습시다. 비서동지.》

걱정이 어린 목소리가 김정근의 말을 중등 끊어버렸다. 젊은 용해공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게 무슨 비서동지의 잘못입니까. 참 비서동진... 동무들 어떻게? 우리가 떨쳐나서면 그 기사동무두 용길 낼거란말이요. 우리야 이런데 습관된 사람들이 아니요.》

청년이 눈물이 글썽해 웨치자 젊은이들이 와와 함성을 올렸다.

김정근은 한결 가벼워진 걸음으로 용해장을 떠나 사무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동수생각이 미쳐들어 다시금 가슴안이 어두워들었다. 혜선을 찾았으나 종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문밖에서 무슨 기척이 나는듯하다가 그대로 잠잠해졌다. 김정근은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누가 놀라기라도 할세라 살머시 문을 열었다. 문밖에 혜선이가 머리를 떨구고 서있었다. 뜨거운 그 무엇이 김정근의 가슴안에 짝 차들었다.

《왔구만. 혜선이가... 혜선이가... 어서 들어가자구. 어서... 우리가 혜선동물 얼마나 찾았대구...》

김정근은 웬일인지 목이 메어들며 말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처녀는 방안에 들어서서도 한동안 그대로 머리를 떨구고 서있었다. 구슬같은 눈물방울이 처녀의 발등에 점점이 떨어져내렸다.

《비서동지의 발걸음소리만 들어도 제 가슴은 터치는듯했습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전... 전... 따라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아... 아니예요. 비서동지에겐 잘못이 없어요. 쥘... 저에게 있어요. 쥘 저에게...》

처녀는 츠름츠름 이슬이 고인 눈으로 김정근일쳐다보며 목메여 속삭였다.

《전 다 말하겠습니다. 다 끝장이 났지만... 그 래두...》

처녀는 입술을 떨며 흐느끼었다.

《저와 동수동문 한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동수동문 어렸을적부터 뛰어나게 공불 잘했습니다.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자 그 동문 대학에 가구전 군대에 나갔습니다. 제가 제대되어 여기 강철직장에 오니 뜻밖에도 동수동무가 있더군요. 생활은 우리들을 어린시절처럼 언제나 함께 있게 했어요.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우린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앞날을 약속하던 그날 그 동문 저에게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ㄷ-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와 제일 친한 동무가 새 채탄기를 설계하고있는데 거기에 없어서는 안될 강재가 바로 <ㄷ-강>이라는거였어요. 두 기사는 대학을 졸업할 때 하루빨리 성공하여 당에 기쁨을 드리자고 약속했다고 했어요.》

《음... 그래서 새 채탄기를 설계한 그 기사가 우리한테 자재과장동물 보냈던군. 그래서 동수동무가 병원에 눕게 되구...》

《그런데 놀랍게도 동수동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부직장장동지밀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맥을 잃더군요.》

부직장장동진 동수동물 단단히 틀어쥔려구 잡도리를 한것 같았어요. 여기는 연구기관이 아니다. 동수동무는 연구사가 아니라 공정기사다, 맡은 일을 착실히 하는것이 발전에도 유리한 길이다, 연구니 뭐니 하는건 후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부직장장동진 동수동물 움쩍 못하게 통제했어요. 자기가 할 일까지 시키면서요.》

김정근은 너무나 뜻밖의 말에 억이 막혀 가슴을 헐떡거리었다.

《그러면서도 부직장장동문 동수동물 극진히 위하는척했어요. 온갖 하정은 혼자 다 아는척하구요. 이런 위선 이런 거짓사랑에 사람들이 어찌 홀리우지 않겠나요.》

처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으나 크고 검은 눈동자에서는 불꽃이 번쩍이었다.

《그 위선 그 거짓 사랑에 동수동무의 꿈은 시들어버렸어요. 동수동문 부직장장동지의 일까지 말아하는 착실한 공정기사가 되었지요. 부직장장동지의 뜻대로 된셈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내막은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제힘으로 동수동물 돌려세울수가 없었어요. 간절히 애원도 해봤지만 쓸데없었어요. 희망과 꿈을 버리는데 대해서 가슴에 못이 박히게 비난도 했어요. 하지만 동수동문 어찌지 못하더군요. 난 동수동물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린 결별했어요.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동수동문 없습니다.》

처녀는 떨리는 입술을 옥물더니 더 말을 이어대지 못했다.

《음...》

김정근이 마디 굵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소리를 터뜨렸다.

《내가 동수동무의 꿈을 깨버렸소. 난 동수동무에게 <ㄷ-강>연굴 건어치우라고 말한적은 없소. 하지만 동수동문 내 눈빛을 알았을거요. 초급당 비서가 뭘 바라는가 하는결말이요. 나는 그 동무가 공정기사로써 착실히 일할걸 바랬소. 하루빨리 <ㄷ-강>을 만들어내길 바라는 마음은 적었던 말이요. 내 눈빛에 내 마음이 어려있었을거요. 내 눈빛때문에 국가가 얼마나 큰 손해를 봤소. 젊은 이들의 꿈은 깨지구 사람은 두쪽이 나구.》

김정근은 머리를 싸친채 뜨겁게 끓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런데 동문 왜 나한테 말좀 못했소?》

《몇번이고... 몇번이고 말하고싶었어요.》

하지만 말할수가 없었어요. 동수동무가 연구사가 아니고 공정기사인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자기가 맡은 일을 착실히 해야 한다는것도 옳지 않나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할수가 있겠나요. 제가 죄를 졌어요. 비서동질 좀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지금처럼 일을 망치진 않았을거예요. 평범한 노동자들두 훌륭한걸 연구해내는 지금에... 제가 죄를 졌어요.》

처녀는 다시금 얼굴을 싸쥐더니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김정근은 처녀의 손밑으로 흘러내리는 수정같은 눈물방울을 가슴아피 바라보았다.

손기척이 울리고 나들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유화영의 혈색좋은 얼굴이 나타났다.

《담화중입니까?》

유화영은 시름실린 얼굴을 약간 숙일사하고 한 발은 문밖에 놓은채 맞은편 김정근을 바라보았다.

《이젠 다 끝났소. 어서 들어오시오.》

김정근이 저으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동수동무한테 또 갔다오는길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아픈 가슴이 나을는지 제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여기 혜선동무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하찮은 일을 가지구 티각태각하는걸 알면서두 잘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가슴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유화영이 금시 눈물이 솟을것 같은지 두눈을 감고 머리를 떨구었다.

《부직장장동문 아직 잘 모를겁니다. 내가 당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하는걸 모를겁니다.》

김정근이 끓어오르는 격정을 애써 누잠하며 근엄히 말했다. 살이 빠진 볼편이 푸들푸들 떨더니 뒤따라 아래턱이 흔들리었다.

《<ㄷ-강>이 아직도 생각 안납니까?》

《어데서... 들은듯한데요.》

유화영이 허리를 꼴꼴이 편채 굳어지며 분명치 않은 소리로 떠들거렸다.

《보우, 우린 다 잊어버렸소. 잊어버렸단말아요. 지금쯤 동수동무의 <ㄷ-강>이 성공했다면 얼마

나 좋겠소. 수령님께 새 채탄기를 올렸을거란말
이요. 그러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
소.》

김정근은 몇밤을 지새서 그리됐는지 알길 없게
갈려버린 목소리로 이렇게 나직이 말하고는 천
천히 창문걸로 다가갔다. 용광로에 쇠물을 싣
고왔던 기관차가 떠나가는지 웅글진 경적소리가
울렸다. 뒤이어 무쇠바퀴들이 뒤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전쟁때에 자기 대원을 잘못 봤던적이 있소.
의지가 약하구 용감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그 사람을 군관학교에 추천하는데 동의하
지 않았소. 소대장인 내가 반대하니 상부에서
꺼려하지 않을수 없었소. 그땐 그럴수 있었소.
한사람의 지휘관이 변변치 못하면 크던 작던
전선의 한개 구역이 부실해지는 판이었소. 어느
지휘관이 그런 든든치 못한 지휘관을 익측에 두
려고 하겠소.》

그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하나로 이
어져있었소. 지휘관과 지휘관, 병사와 병사, 지휘
관과 병사... 그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하나로 이
어져있었소.

내결의 사람이 쓰러지면 내가 그대신 넓은 땅
을 지켜내야 했소. 또 내가 죽으면 내대신 내결
의 사람이 내가 지켜야 했던 모든것을 내가 흘려
야 할 피까지 합쳐서 흘리며 막아내야 했소. 하
기에 모든 장병들이 좌우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
과 똑같이 여겼소. 지휘관들은 전사 한사람한사
람의 힘과 정신을 조국의 운명과 련관시켜 생각
했소. 우린 전선에서 이런걸 배웠소.》

김정근은 창문걸에서 물러나 걸음을 옮기기 시
작했다. 조용하면서도 걱정이 어린듯싶은 김정근
의 목소리가 그 어떤 고결한 노래의 선율처럼 다
시금 울렸다.

《52년도 봄 어느날 우리 소대가 습격전투에 나
가게 되었소. 난 밤을 새워가며 적정을 연구하고
전투임무를 작성했소. 그런데 한개 조를 책임지
워야 할 하사관이 한사람 모자랐소. 아까 말한
그 3분대 부분대장이 있었으나 역시 믿음이 가지
않았소. 내가 골머릴 앓고있는데 문화부중대장
동무가 찾아왔소. 그 부분대장동무에게 조장책임
을 맡기자고 하면서 자기가 함께 가겠다고 했소.
습격전투는 승리적으로 끝났소. 그런데 그 싸움
에서 문화부중대장동무가 전사했소. 그는 내 가
슴에 안겨 숨이 지면서 3분대 부분대장동물 군관
학교에 추천해도 되지 않겠는가고 물었소. 그 말
한마디 남기고 그 사람은 영영 떠나가버렸소.

문화부중대장동문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
지휘관감을 얻어냈소. 문화부중대장동문 전사 한
사람한사람의 힘과 지혜와 정신을 조국의 운명과
련관시켜 생각하는 사람이였기에 용감한 지휘관

감을 찾아낼수 있었소.

당에 충실한 지휘관들은 이렇게 했소. 사람들
의 힘과 지혜와 정신을 조국에 바칠수 있도록 이
끌어줬단말이요. 그후 3분대 부분대장동문 소대
장이 되여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했소. 전선에서
이런걸 체험했소.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
소. 하지만 난 어제와 오늘사이에 30여년전 그때
처럼 심각한것을 체험했소. 그때나 지금이나 역
시 사람들의 운명을 조국의 운명과 련결시켜 생
각할줄 모르는 지휘관은 혁명에 손해만을 끼친다
는것을 절감했단말이요.》

유화영이 부시럭부시럭 호주머니를 들추더니
담배를 꺼내물었다. 성냥을 그어대는 손이 세차
게 떨렸다. 그는 입에 물었던 담배가치를 도루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젠... 기억이 납니다. <ㄷ-강>이...》

유화영이 입술을 떨며 힘겨이 말했다.

《좀 더 생각해보오. 좀더...》

김정근이 이렇게 유화영에게 말하고 혜선이앞
으로 다가갔다. 처녀의 크고 검은 눈이 무슨 뜻
을 머금었는지 끝없이 깊어보였다. 김정근은 그
그윽한 눈동자속에 어려든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래... 그래... 그래야지.》

김정근이 기쁨에 겨워 중얼거려였다.

그는 두사람이 나간 다음에도 오래돌록 그래로
서있었다. 이제 잠시후면 초급당위원회에 참가
할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올것이었다. 회의를 끝
내고는 병원에 갈 계획이었다. 그는 왜서인지 마
음이 점점 더 조급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아니
그 어떤 거대한 일을 앞두었을 때처럼 가슴이 벅
차올랐다.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김정근이 전화통을 쳐들고 갈린 소리로 웨쳤
다.

《동수동무입니까!》

귀전에서 정녕 동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혜선동무가 왔습시다. 부직장장동지두
오구요. 다 들었습시다. 비서동지가 얼마나 괴로
워하는가 하는걸 다 들었습시다. 전... 전... 용서
하십시오. 제 이제 가겠습니다.》

《아... 아니요. 가만있소. 조금만 더 누워있소.
회의가 끝나면 내가 가겠소. 30분이면 되요. 30
분이면... 동물 책임자로 하는 기술혁신조를 조직
하면 되요. <ㄷ-강>을 만들 사람들이요. 어떻소?
수령님께 명절전으로 새 채탄기를 만들어 올릴
수 있겠지!》

김정근은 목이 메여들어 가까스로 말을 마쳤
다.

맑은 이슬이 그의 눈귀에서 번뜩이였다. 문제
없다고 하는 대답소리가 귀청을 쳤다.

그 순간 김정근은 래일부터 열리게 될 시당전

원회의에서 할 자기의 토론준비가 다 되었다는것을 혼연히 느끼었다. 그는 어제와 오늘사이에 있는 일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면 뜻이 깊은 토론을 할수 있을것 같았다. 물론 경험토론 대신 자기 스스로 비판토론을 한다는것이 수월치는 않을것이였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것이 동지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지없이 기뻐다.

그는 아득히 흘러간 젊은시절 전우들의 시체를

가사

넘으며 찾은 교훈을 평화로운 오늘에 와서 다시금 동지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던것이다. 그리고 보면 그의 인생은 위훈과 더불어 변함없이 흘러가는 샘이였다. 이제 또 새로운 고민이 그를 괴로힐것이며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될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결하고 빛나는 세계로 한생을 다해 치달아오르며 영예를 누릴 운명인듯싶었다.

룡남산

류민호

언제나 그리워 찾아오면
못잊을 영상이 안겨오네
향도의 자욱이 빛나는곳
영광의 언덕 룡남산이여
아 조선을 빛낼 우리 당의 맹세가
아 노래로 울리네

자주의 새시대 꽃피우는
봄빛을 누리에 펼치는가
태양의 위업을 빛내가는
우리 당 의지로 높이 솟은곳

아 조선을 떨칠 우리 당의 맹세가
아 노래로 울리네

그날의 그 맹세 꽃피는 방에서
인민은 노래하네 룡남산을
우리 당 위업을 받들어갈
불타는 한마음 다져주는곳
아 위대한 맹세 새겨진 룡남산
아 영원히 빛나라

봄빛

박 철

한차례 봄비가 지나가자
금방 앞이 푸르렀는가
제방 한끝 현장식당
파아란 한뼘기 파발
돌격대원들의 발걸음 붙잡누나

-아이... 파예요!
-아, 파!
처녀의 속삭임 총각의 환성
가슴들엔 출렁이네 환희의 파도가

-고맙구나
거치른 날바다 한가운데 찾아온

선구자
간석지의 첫봄아!

파발에 들어선 처녀총각들
가만히 가만히 이파리를 뜯어보네
늘 잔물에 젖고 마르던 눈
구슬같은 봄이슬에 함뻑히 젖네

오, 탓하지 말라. 바쁜 걸음 멈추었다고
아는가 이 시각 돌격대젊은이들
한뼘기 파발이 아니라
30만정보 간석지에 넘치는
푸르른 봄에 취해있음을

빛나는 삶

리일복

(전호에서 계속)

2. 태양의 빛발속에서

우리는 시외버스에 올라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가 자리잡고있는 삼석으로 향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탁월한 령도아래 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열리게 될 영광스런 력사의 일단을 보여주는듯 촬영소는 경치 아름다운 술밭속에 높이 솟아 오늘도 드바쁜 창조사업으로 들끓고있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인민배우 리동무는 찾아온 사연을 알자 더욱 기쁜 표정으로 우리를 아담한 방으로 이끌었다.

《작가 김사량동무가 해방된 조국땅에서 쓴 첫 작품인 희곡 <퇴성>을 무대에 연극으로 올릴 때가 바로 그 주인공역으로 출연했답니다.》

그는 감회깊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남달리 컸던 김사량동무는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자마자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항일무장투쟁사적을 열심히 연구하였지요. 그는 항일투사들을 찾아다니며 검질지게 이야기를 듣곤했다고 합니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던 한 항일투사는 지금도 작가 김사량이 자기의 사업노트까지 빼앗아가며 여러날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적을 묻곤했다고 회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불멸의 력사는 작가를 흥분시켰고 마침내는 작품으로 쓰지 않을수 없는 세찬 충동을 불러일으켰던것입니다. 김사량동무는 밤을 밝혀가면서 짧은 기간에 전4막 6장으로 된 큰 작품인 희곡 <퇴성>을 써냈습니다.

당시 중앙예술공작단 망라되어있던 우리 창조집단은 희곡대본을 받아 대환성을 올렸습니다.

작품은 력사적인 서강회의 이후시기 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활동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영웅적인 항일혁명전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형상을 직접 모신것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수령님을 전면적으로 작품의 중심에 높이 모신 대작이라고 말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방후 어중이떠중이들이 <혁명가>라고 저마다 떠들던 그 복잡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로 형상한 작품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게 창작한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 있는 재간과 열성을 다하여 연극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작가 김사량도 창조성원의 한사람이 되어 늘 극장에 나와 배우들의 연기형상을 도와주면서 연출가와 공동작업을 했지요.

드디어 영광의 날이 왔습니다.

1946년 8월 28일, 력사적인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가 열린 이날 저녁 7시, 평양3.1극장에서 당대회를 축하하여 연극 <퇴성>이 공연의 막을 올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저녁 친히 극장에 나오시여 이 공연을 보아주시였습니다.

우리 창조성원들의 감격은 비길에 없이 컸습니다. 김사량동무는 어린애처럼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다시금 되살아오는듯 인민배우 리동무는 이슬비낀 눈길을 창밖에 던지였다.

마침 창밖의 술밭속에서는 새 영화를 찍는지 한창 야외촬영이 진행되고있었다.

《저기 지금 어머니역을 하는 공훈배우 최동무가 그때 연극 <퇴성>에서 항일의 녀전사역을 맡았었지요.》

그날 공연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관중들은 크나큰 감동속에 연극을 보았으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날 공연이 끝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휴게실에서 일군들과 함께 작가 김사량을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사량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시를 주시였다.

중앙예술창작단이 조직된지 얼마 안되는데 그 사이 연극을 빨리 창조하였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진실합니다.

…연극은 굴할줄 모르는 강毅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운 항일빨찌산들의 투쟁정신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의의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공연에 출연한 배우들과 창작가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하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분에 넘치는 치하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김사량은 저도 모르게 두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견잡을수 없었다.

그 언제 그 누가 그의 작품을 살뜰히 보아준적이 있었던가. 량심적인 글을 쓴것으로 하여 원썬들의 박해를 받아야 했던것은 얼마였으며 늘 눈들의 감시속에 행동의 자유마저 빼앗기고 살지 않으면 안되었던 일은 그 얼마였던가.

글다운 글을 쓰기도 시비중상속에 피로움을 당하고 멸시를 받아야 했던것이 그의 쓰라린 과거였다. 그런데 바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가 쓴 작품을 것처럼 높이 치하해주시고 그의 작가적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신것이였다. 그는 처음으로 작가로 된 영광과 행복을 심장깊이 느꼈다.

《그후 연극 <퇴성>은 처음은 평양시에서, 다음은 청진과 신의주와 해주 등 전국 각지 시, 군들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연극의 제4막에서 보천보전투가 승리로 끝난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인민들앞에 나서시여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연설을 하시는 장면에서 이르러서는 무대의 등장인물들과 함께 온 장내의 관객들이 모두다 일어나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곤하였습니다.》

인민배우 리동무는 그때의 감격이 다시금 생생히 가슴속에 북받쳐오르는지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차 촬영에 참가할 바쁜 때여서 우리는 할수 없이 그와 헤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후날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시내로 향하였다.

우리는 사적일군인 김동무를 찾아갔다.

마침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해방직후의 혁명사적자료들을 정리하고있다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체육관이며 병상관, 청류관 등 현대적인 건물들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천리마거리의 사무실에서 김동무는 우리의 요구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가 김사랑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는 참으로 크고도 컸습니다.

그가 귀국하자 곧 만나주시고 귀중한 교시를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 자주 만나주시고 일깨움을 주시면서 작가로서 문학예술부문의 책임적인 일군으로서 그가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김사랑은 북조선예술총련맹 집행위원과 국제문화국장의 중책을 지니게 되었으며 평남도예술련맹위원장, 평남도예술공작단 단장의 사업까지 맡아보게 되었던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사랑의 사업과 창작활동을 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주시면서 그를 이끌어주시고 그의 사업성과를 두고 치하를 아끼지 않으시였다.

1946년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예술총련맹 집행위원회를 만나신 자리에서 김사랑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업했기때문에 예술총련맹 창립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높은 치하를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1947년 1월 5일에는 몇몇 작가들과 함께 김사랑을 친히 만나주시고 혁명전통주제의 작품 창작에서 강력적지침으로 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1947년 4월29일에도 김사랑과 몇명의 작가들을 친히 저택으로 부르시여 만나주시는 은정을 베푸시였다.

4월의 그 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히 작가들과 마주 앉으시여 농마국수도 드시면서 밤을 지새우시며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새 조국 건설에서 나서는 작가들의 임무에 대하여 깨우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특히 김사랑에게 건강은 어떤가고 친근히 물어주시고 문예총산하 작가들이 생산현장에 나가 선전전을 활발히 벌리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치하하시면서 작가들이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야 사상적으로 건전해지고 로동계급이 요구하는 좋은 글을 쓸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가 김사랑에게 기울으신 자애로운 지도의 손길과 따뜻한 보살피심은 각별한것이였다.

《1948년 5월중순의 어느 일요일에 있는 일이였습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히 승용차를 보내시여 김사랑을 그의 가족과 함께 마람유원지로 불러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경치좋은 유원지 호수가의 잔디밭우에서 김사랑의 가족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식사도 함께 나누시며 휴식일의 하루를 즐기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사랑을 옆에 앉게 하시고 그와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특히 김사랑이 초고를 쓰고 작가, 예술인들 13명으로 련명으로 만든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사령관놈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예리하게 폭로 단죄한 내용을 잘 썼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김사랑의 영광과 행복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날 오후 어버이수령님께서 가족들의 오락회에 참석하시여 김사랑의 어린 딸애를 안아주시며 그 애의 재롱도 허물없이 받아주실 때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고매한 인민적품모양에서 솟

구치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길 없어했습니다.》

사적일군 김동무도 저으기 감동되는듯 보통강 기슭을 물기어린 눈길로 바라보는것이였다.

웅장화려한 현대적건물들과 휘늘어진 수양버들과 잘 꾸려진 유원지들로 눈부시게 안겨오는 보통강기슭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문득 김사량의 소설에서 읽은 토성랑풍경이 대조적으로 떠올랐다.

토성랑의 천대받고 짓밟히는 빈민들의 정상앞에서 비분의 눈물을 뿌리던 식민지지식인였던 김사량을 아버지수령님께서 것처럼 따듯이 품에 안으시여 보살펴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셨다고 생각하니 우리도 뜨거워오는 가슴을 진정할길 없었다.

《참으로 작가 김사량은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해와 같은 그 사랑, 그 은정속에서 김사량은 혁명적인 작가로 자라났으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을 받드는 신념이 변해서는 안된다는 참된 인간의 넋을 지니게 되었던것입니다.》

사적일군 김동무와 헤어져오면서도 우리는 뜨거운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 김사량이 것처럼 정력적으로 사업하고 창작활동을 벌리게 된것도, 또 그가 준엄한 전쟁의 날 것처럼 땀땀하게 싸울수 있는것도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에 뿌리를 둔것임을 느낄수록 가슴은 더욱 뜨거웠다.

며칠후 우리가 소설가 리동무를 만났을 때도 그는 같은 말을 했다.

《김사량의 변하지 않는 충성심과 신념은 바로 아버지수령님께서 키워주신것입니다.

그이의 사랑의 해빛이 이처럼 따사롭기때문에 빛을 그리던 그가 한가슴 가득 해빛을 안고 건국사업과 창작에 발벗고 나섰던것입니다.

우리 작가들중에서도 김사량은 열정과 패기에서 으뜸이었습니다. 그는 문예총사업과 예술공장단사업으로 드바빠 돌아치면서도 남보다 더 많은 작품을 써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언제 깨고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글을 쓰는지 알수 없을지경이었습니다.

아마도 태양의 빛발을 가슴에 안은 작가의 열정은 시간과는 관계없이 왕성한 창작적결실을 가져오는 모양이더군요.》

참으로 그러했다.

김사량은 장막희곡 《퇴성》을 쓴데 이어 곧 장막희곡 《더빙이와 배뱅이》를 썼으며 《마식령》, 《남에서 온 편지》등 소설들을 썼다.

그러면서 그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격류속에

뛰어들어 혈실속에 발을 잠그기도 하였다.

우리의 손으로 복구되어 장쾌하게 쇠물을 뽑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곁에서 용해공들과 마주서서 땀을 흐리며 웃는 김사량의 모습을 사람들은 기쁘게 바라보았으며 북부란전 막장속에서 간데라불을 들고 탄부들과 함께 걷는 키 큰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을 새 조선의 새 지식인의 밝은 모습을 보았다.

또한 문화선전공작대로 각지에 파견되는 사람들속에서는 김사량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이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그가 이번에 로동자들속에 선전교양사업을 하러나갔다가 오히려 그들에게서 크게 배우고왔다고 한 말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있다.

김사량은 군중대회나 선동모임들에 시인들과 함께 자주 출연하여 벽소설도 격동적으로 랑독하곤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김사량의 손에서는 해방된 새 조국의 들끓는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 소설과 희곡들, 그리고 정론, 수필들이 쏟아져나오게 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그의 소설집이 출판되었으며 그외에도 장막희곡 <지열>, 단막희곡 <복돌의 군복>그리고 장편기행문집들이 속속 출판되었지요.》

《해방후부터 전쟁시기까지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참으로 많은 글을 썼군요.》

우리도 감동을 금할수 없어 놀라움을 표시했다.

《놀라운 창작활동이지요. 다시금 말하지만 그 열정, 그 재능, 그 열매는 어디서 온것이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광휘로운 해빛은 그와 같이 복잡한 우여곡절의 길을 걸어온 지식인도 순결한 혁명가로 키우는 은혜로운 자양분이였으며 상상할수 없는 열정과 힘을 발휘하게 한 위력한 원천이였으며 한번 안으면 다시는 변치 않을 신념의 넋을 키우는 기름진 토양이였다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소설가 리동무는 나이에 비해 아직 젊음이 넘치는 얼굴에 흥조를 띠우며 마치 시인파도 같이 열정적으로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도 그에 공감함을 표시하였다.

그렇다! 위대한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은 김사량의 가슴에 정치적생명이라는 불변의 신념과 영생의 빛을 안겨준것이다.

그토록 빛을 그리던 김사량은 이제는 해빛밝은 조국의 대지위로 젖줄기마냥 그 빛을 빨아들이며 씩씩하게 활보하게 된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사회적문제의 제기와 형상적해명

-단편소설 《검은금》을 읽고-

오춘식

생활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는것은 훌륭한 작품 창작의 성과를 좌우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그만큼 종자의 옳은 선택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작품형상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구현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또한 중요한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에서는 종자를 잘 가꾸어야 훌륭한 열매를 거둘수 있다.》

훌륭한 종자를 골라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상으로 안겨오도록 옳게 가꾸지 않는다면 웅대한 결실을 거둘수 없다.

작품에서 작가의 사상미학적인도는 예술적형상을 떠나서 구현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형상의 모든 요소들속에 구체적으로 체현됨으로써만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안겨올수 있게 되는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편소설 《검은금》(허인수 《조선문학》1985년 9호)은 우리들에게 일정한 긍정적시사를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의 사상예술성은 우선 이야기자체가 생동하고 흥미있게 전개되고있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소설작품의 문제성이 그 어떤 논리적해설이나 작가의 생경한 구호에 의하여 덧붙여지는 식으로 제기되고 해명되는것이 아니라 할 때 우리는 이 소설의 문제성이 생활 그자체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하자면 전반적인 형상체계를 통하여 스스로 자연스럽게 안겨오도록 되고있는데 대하여 이야기해야 할것이다.

인간관계의 설정과 짜인 구성, 생활에 대한 매개 인물들의 태도 등은 모두 작품이 제기한 문제성을 해명하는데 복종되고있다.

주인공의 청춘시절에 대한 회상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현진국과 검은옥의 사랑은 참으로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준다. 그리고 그것은 그전날의 지옥단, 오늘의 영식아들이 예정문제와 관련하여 일시 가지게 되었던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로 되고있다.

이런 형상들속에서 독자들은 이 소설이 제기하는 기본문제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애정률리문제가 아닌가 생각할수도 있다. 이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러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일관되어 있으며 또 실제로 청년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생활을 어떻게 대하며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가 하는 문제들을 말하고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단순히 그러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에 머물러있는것이 아니다. 만약 거기에만 머물렀다면 작가의 주장은 너무도 그 대가 약하고 심도가 없는것으로 될수 있었을것이다.

이 소설의 사상미학적내용의 심도는 애정률리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보다 예리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한데 있다. 그 사회적문제란 다름아닌 우리 사회에서 탄부는 당에서 누구들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그래서 가장 귀중한 인간들이라는 주장이다. 탄부들을 사랑하고 탄부들을 아끼고 귀중히 대하라는것이 이 소설이 독자대중에게 호소하는 사상이다.

때문에 이 소설에는 탄부의 영예와 긍지, 존엄에 대한 작가의 주장이 높이 울리고있다. 바로 여기에 애정률리문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보다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승화시켜 보여준 이 작품의 성과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석탄을 검은금이라고 한다. 그것은 석탄에 대한 그 무슨 지질학적개념인것이 아니라 인민경제에서 쓰이는 그 가치의 귀중함을 념두에 둔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석탄을 검은금이라고 불렀고 또 제목도 그렇게 달고있는 것은 그때문만이 아니다.

작품에서 밝혀지고있는것처럼 검은금이라는 이 말속에는 우리 탄부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며 높이 내세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다.

나라없던 지난 세월에는 우리 탄부들이 캐내는 석탄을 금이라고 불려준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결코 그때에는 석탄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것이 아니였다. 버럭처럼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그 시절에 탄부들이 어디 사람대우를 받거나 했던가.

지지리 못살고 착취만 받아왔던 탄부들에게 시집오겠다는 처녀도 없어 가정을 이루는것도 어려울 형편이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제도 우리 사회에서 탄부는 누구보다 가장 긍지높은 이름으로 불리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탄부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높이 내세워주시기때문이며 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기때문이다.

여기에 탄부들의 자랑과 긍지가 있고 그의 인간적존엄과 높은 사회적지위가 있다.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려고 한 사상미학적인 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이 작품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제일선을 맡아나선 우리 탄부들, 탄광로동계급에 대한 작가의 열렬한 사랑과 긍정의 열정이 넘쳐흐르고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애정윤리문제에도 옳은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사람의 인격과 가치는 그의 사람됨됨에 의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초로 하는 사상정신적도덕적품모에 의하여 결정되고 평가된다.

때문에 그것은 결코 그의 사회적지위나 직업의 차이와 같은 외적표징에 따라 규정되는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옳은 인식은 청년들의 사랑과 결혼, 가정문제를 정당하게 대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만약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인간의 고상하고 깨끗한 정신미를 보는데 앞서 그의 어떤 다른 부차적인 표징들을 보다 중요시하는데 떨어진다면 그러한 사랑은 저속한것으로 리기적인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작품은 주인공 현진국과 그의 안해 김은옥의 애정관계를 통하여 이것을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현진국은 탄부의 명예와 존엄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탄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높고 감한 인물이다.

때문에 그는 탄부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그 어떤 행동이나 탄부들에 대한 그 어떤 사소한 모욕도 참고 견디지 못한다. 하기에 그는 자기 딸과 함께 짝을 무어줄 굴진공 최영식이 아직 탄부의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장 그를 불러내어 탄부란 어떤 사람인가하는것을 툭툭히 깨닫도록 하여주기 위하여 28년전에 있었던 자기의 체험담을 이야기해주는것이다.

그 시절 서옥단을 비롯한 견방직공장의 일부 처녀들은 인간의 전면모는 보지 않고 전연초소에서 싸우다 돌아온 제대군인총각들이 탄부의 직업을 가졌다는것으로 하여 사랑을 주저하며 마음을 주기 꺼려한다. 세상에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책상앞에 앉아서 일하는 직종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시켜면 탄가루를 뒤집어쓰고 한평생 탄 캐는 일을 하는 사람과 살아가겠는가 하는것이 서옥단과 같은 처녀들의 그릇된 인생관이며 애정윤리관이었던것이다.

그래서 서옥단은 아버지의 힘을 빌어 자기가 사랑하는 최만호를 탄광에서 빼내려고까지 하는것이다. 이에 현진국은 참을수 없는 모욕과 격분을 느끼는것이다. 그는 꽃보자기에 석탄을 싸가지고 그 처녀가 소속되어있는 견방직공장 민청위

원장을 찾아가 가차없는 공격을 들이댄다. 탄부의 존엄과 참된 인간적가치를 가려보지 못하는 그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야 하였던것이다.

작품은 이처럼 탄부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주인공 현진국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개성화하고있다.

김은옥의 형상 역시 매력적이다. 그는 탄부의 명예를 아끼고 그 존엄을 지켜주는 탄부의 안해로서의 높은 긍지를 안고사는 아름답고 고상한 녀성이다.

그는 한 공장의 민청위원장으로, 후에는 당비서로 일하고있지만 결코 자기를 특별할 녀자로 생각하지 않으며 사회적의무에 충실할뿐아니라 가정에서도 탄부의 안해로서의 자기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있다.

물론 처녀시절에 그는 탄부의 인간적가치를 다 알고 살아온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한 제대군인 탄부의 인간적존엄과 자존심, 일부 처녀들의 탄광로동계급에 대한 그릇된 관점앞에서 그는 심각한 번민에 싸여 자기자신을 빼쳐리게 검토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자신부터 먼저 옳은 인생관을 가져야 다른 처녀들도 깨우치고 참되게 이끌수 있다는것을 깊이 뉘우친다.

가정을 이룬후에도 녀성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는것이다.

따라서 그의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하였다.

작품은 이처럼 주인공 현진국과 그의 안해 김은옥을 탄부된 자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아름다운 인간들로 형상하면서 극히 사소하고 단순한것 같은 도덕윤리문제를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로 심화시키고있으며 생활에서 찾아친 종자를 참신하고 인상깊은 형상으로 꽃피우고있다.

작품은 일련의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진국에 대한 은옥의 사랑을 실무적인 감이 나게 그리고있는것이다. 처녀시절에 은옥이가 현진국에 대하여 느끼는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별로 마음은 없지만 다른 처녀들을 교양하기 위한 사회적의무감때문에 사랑하게 된것 같은 인상을 부분적인 요소들에서 풍기고있는것이다. 작품은 탄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는 현진국의 맹렬한 공격을 받은후 은옥이로 하여금 그와 《오작교》에서 자주 만나게 하고 다른 처녀들도 그들의 뒤를 따라 탄부들과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다는것을 인위적으로 그림으로써 조작감이 나게 하고 작품의 진실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것은 은옥의 정신적품모를 떨어뜨리게 하였을뿐아니라 성격을 생활의 론리대로 그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은옥이가 현진국을 만나고 그를 리해하는 과정에 그의 사람됨과 고상한 정신세계에 깊이 공

감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다라면 은옥의 성격이 더욱 돋보였을 것이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애정류리관도 더 정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또한 자기의 사상미학적주장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탄부의 안해들을 학교 교장이나 병원 원장과 같은 일정한 사회적지위에 있는 여성들로 만들어놓았는데 이것 역시 인위적인 감이 나고 따라서 진실성을 흐리게 하고있다. 이런 설정은 현진국과 김은옥의 형상을 통해 탄부의 존엄과 긍지를 주장하면서도 본의아니게 은

연중 그것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설은 또한 마감부분을 작가의 호소적인 말로 계속짓고있는데 이것은 작품의 전반적인 형상론리에 잘 맞지 않는, 필요없이 덧붙인 군더더기이다.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는 작품형상을 통해 밝혀지고 이야기되었기때문에 이러한 호소를 구태여 덧붙여 반복강조하지 않아도 되었을것이라고 본다.

이 단편소설은 이러한 부족점이 있으나 전반적 형상으로 보아 일정하게 성과가 있는 작품이라고 말하고싶다.

한순간을 걷는다해도

서봉제

설레는 나무잎도
물안개에 젖어 흐르는가
못가의 은모래 밟으며 걷는
내 자옥의 끝은 어디...

질은 봄빛에
호수가는 부풀건만
마음속에 눈보라를 불러오는
내 생각의 끝은 어디...

이 기슭이었구나
아득히 멀고먼 눈보라 행군속에서도
마음가득 그려보던 그 봄빛을
수정같이 맑은 물에 정히 떠안고
투사들 목이 메여 바라보던
조국산천 !

이 기슭이었구나
볼수록 아름답다고
너전사가 삼가 안아올린
한아름의 그 진달래에 뜻을 담아
아버이장군님 인민의 밝은 웃음을
여기 호수가에 피워보시던 그 강산

못잇을 그날에 장군님 모시고
투사들 취할듯 바라보던 산천이여
이랑이랑 물결에 추억을 싣고
마음의 갈피마다 향기를 심어주며
조국땅엔 넘쳐나는 봄빛이여!

아, 새벽하늘가에 타는 노을
못가에 흐르는 젖빛안개
차마 놓지 못할 이 아름다움을
투사들은 한순간에 새기고 떠났구나

내 가슴에
조국이란 그 뜻을
이렇듯 공고한 백두의 새벽빛속에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이어주고
투사들은 혈전만리를 헤쳐갔구나

그날의 투사들처럼
눈보라도 불바다도 헤쳐온일 없는
나를 반겨 우젖는 새들의 저 노래-
아, 사무치는 투사들의 모습 물결에 어려
이 가슴에 비껴드는
신성한 빛과 향기가
진정 내 조국의 숨결로 되었구나

천이랑 만이랑 끝없이 속삭이며
천이랑 만이랑 끝없이 깨여치며
이 가슴에 출렁이는 조국의 호수여
내 노래불러 적어가노라
네 기슭에서 읊기는 나의 발자욱

한순간을 걷는다 해도
이 나라 금수강산을 다 새길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걸음이구나!

다시 찾은 일터

시간의 흐름속에 세상의 온갖 만물은 자기의 생명력과 본색을 잃기마련인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엄연한 객관적법칙이기때문이라. 하지만 나는 당중앙이 뿌려준 불멸의 영원한 활력의 빛발을 안고 날을 따라 몰라보게 갱신되는 모습을 목격환적이 있었다. 내가 얼마전 한 공장의 공무직장을 찾아갔을 때 일이었다. 그곳으로 말하면 내가 지난날 현실체험으로 찾아갔던 일터여서 자못 감회가 새로왔다.

나에게 선반기운전법을 배워주던 기능공들이며 나의 작품의 원형으로 삼았던 수많은 직장사람들은 잘들 있는지? 그리고 현실체험기간 내가 《견송공》이 되어 말아 돌리던 정다운 《청년》호 선반기는 그대로 있는지?... 생각을 굴러볼수록 나의 가슴속에서는 야릇한 추억의 잔물결이 일렁이는것이였다. 나는 초행지가 아니어서 누구의 안내도 받음이 없이 스스로 일터를 찾아갔다.

해빛을 받아 빛나는 넓다란 채광창들이며 청록색으로 말쑥하게 단장된 직장건물은 눈에 익은 모습 그대로인듯싶었다. 나는 느닷없이 울렁거리는 가슴의 파동을 다잡고 방금 누구의 알뜰한 손질에 깨끗이 씻겨진듯싶은 구내길을 따라 활짝 열린 현장으로 들어섰다. 이 순간 눈뿌리 모자라도록 평쳐진 아득한 《기계바다》의 물결과 함께 갖가지 기대동음의 조화로운 음향이 장엄한 교향곡마냥 가슴을 세차게 뒤흔드는것이였다. 창조의 정다운 숨결, 짜릿한 향수의 선물로 가슴 적시여주던 세찬 동음... 감회에 젖은 시선으로 눈부시도록 알뜰알뜰 빛을 뿌리는 크고작은 기대들을 둘러보던 나는 사뭇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눈을 슴뻑거렸다. 한것은 모든 절삭기대들이 그때에 있던것과 다른 《새 기계》들이였기때문이었다.

(아니 그동안에 또 새 기대들로 교체한모양인가?)

어리둥절해진 나는 창문열 세번째줄에 있는 《청년》호 선반기앞으로 저도 모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 기대가 바로 지난날 현실체험기간에 내가 돌린적이 있는 선반기때문이다. 새로 들어온듯싶은은 낯선 중발머리처녀가 새별눈을 반짝이며 선반을 돌리고있었다. 이윽고 기대를 더듬어보던 나의 눈은 다시금 멍해졌다. 그 기대 역시 내가 돌리던 선반이 아니였다. 방금 기계공장에서 새로 받아온듯 연록빛 에나멜도색표면우에 기대공처녀의 동실한 얼굴의 거울처럼 또렷이 비껴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흠집 한점 없는 면판과 인물대, 기름기 찰찰 흐르는 베트와 이송축, 먼지 한오

리기창

리 끼지 않은 기름주기구멍들... 어디를 뜯어살피도 눈에 익은곳을 찾아볼수 없는 새형의 《청년》호 선반이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니까 그 기대는 사용기한이 되기도 전에 새 기대와 바꾸어놓은모양이구나!)

그러자 어쩐지 가슴 한구석에 까닭모를 허전감이 갈마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허나 그 아쉬움이 아마도 나의 고리타분하고 달작한 향수심의 여파의 산물일것이라고 의식되자 분연히 일촉해버렸다.

잠시 망연히 서있던 나는 중발머리 기대공처녀에게 다가서며 새 선반기는 언제 받아온것인지 모르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머루알같은 눈으로 말뚱히 쳐다보더니 《그전부터 있던거라던데요.》라고 대답하는것이였다.

《동문 새로 와서 잘 모르는 모양이구만.》

이렇게 말하고 명판을 더듬어보던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듯 꺾적거렸다. 명판扉에는 분명히 지난날 현실체험기간에 내가 다루던 그 기대의 제작년도가 박혀있지 않는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가? 기대소리를 다시 새겨들어도 그전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고르롭고 경쾌한것이요, 기대요소를 눈여겨보아도 지난날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수 없는 새 선반이다!

《이것이 어떻게 새 기대로 <둔갑>했을까?》

내가 영문을 몰라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자 나 어린 기대공처녀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아저씨는 혹시 이 직장에 있었나보지요?》

《그렇소. 나도 바로 이 선반을 돌린적이 있었소.》

《그래요? ! 그럼 우리 반장동무를 만나보세요.》

하고 처녀는 저쪽 작업대앞에서 무슨 기계부속품같은것을 손질하고있는 한 녀성을 가리키는것이였다. 나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칠칠한 머리칼을 작업모밑에 봉긋이 밀어넣고 다림발이 선회색작업복을 산뜻하게 입은 처녀였다.

《수고하십니다.》

나의 인사말에 반장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우리는 서로 무춤 굳어졌다.

《아니 작가동무가 아니세요?》

《옥심동무가...?!》

나는 반색하며 다가섰다. 알고보니 지난날 나에게 선반기운전을 배워주던 옥심이라는 처녀가 오늘은 작업반장이 된것이였다.

《제가 그때 돌리던 저 선반기가 어떻게 아직까지 새것으로 남아있소?》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처녀는 얼굴에 웃음을 짓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여는 것이었다. 《그건 한마디로 밀해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몸소 지퍼주신 한점의 불꽃에서 이룩된 것이예요. 다시 말하자면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렸기 때문이랍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나는 머리에 엉켜돌던 의문의 실머리를 풀수가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모범기대작업반, 모범기대직장, 모범기대공장 대렬을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옥심반장은 선반기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잘 알겠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수한 작업복차림으로 26호선반을 친히 말아보시며 닦아 떨어진 기대표면에 손수 칠감도 새로 바르시고 흠집간 자리들을 줄칼로 쓸어주시고 심지어는 기름때에 파묻혀 기대공조차 까맣게 잊은채 가려볼수 없었던 기름구멍을 찾아주시면서 새 기대로 소생시켰을뿐아니라 능률높은 공구지구와 바이트까지 창안하시여 제품가공의 속도와 질을 현저히 높여주시었다는 그 위대한 품모가 깃든 사적을 학습하며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저희들은 기대관리를 보다 주인답게 할결의로 가슴을 불태우게 되었지요. 우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엄한 뜻과 영광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26호선반을 마음의 거울로 삼아 비쳐보며 자기 기대들의 원상복구에 떨쳐나섰고 기대를 더욱 새롭게 갱신함으로써 저렇게 2중모범기대, 모범기대작업반, 모범기대직장의 영예를 빛내가지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나자 새로운 눈길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아닌게아니라 모든 기대와 작업반마당에는 찬란한 오각별의 빛발속에 26호선반이 부각된 모범기대청호휘장들이 주련이 빛나고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26호선반에 뿌려주신 찬란한 빛발이 여기만이 아닌 온 나라 방방곡곡의 일터마다에 비쳐지고있음을 뜨겁게 느낄수가 있었다. 참으로 다시 찾은 일터조차 몰라보리만큼 새롭게 전변되는 오늘의 위대한 력사는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의 세찬 불바람속에 시작되었던것이다.

그렇다, 날을 따라 모든 기대와 설비들은 청춘기대로 창조의 벽찬 숲결,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소리 더욱 힘차게 높여가고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나는 그 어떤 자석에 이끌리듯 인연깊은 《청년》호 선반기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기대공처녀에게 랑해를 구한 다음 난생처음으로 새 선반기앞에 서는 신입공마냥 울렁이는 가슴을 견잡지 못하며 기대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부드럽고 경쾌한 동음속에 예리한 바이트끝에서 은빛쇠밥이 라선모양을 이루며 끊임없이 타래쳐오르는데따라 급높은 정결도로 하여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원형축의 제품이 순식간에 가공되어나왔다.

그러자 불현듯 나는 또다시 기대공이 되어 26호선반을 마음의 거울로 삼아 충성의 불꽃을 세차게 날리고싶은 충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렇다. 다시 찾은 일터에서 새롭게 변모된 《청춘기대》들을 보고난 나의 온몸에도 약동하는 젊음이 되살아난듯싶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아래 마련된 기계공업의 새봄은 영원한 청춘을 자랑하며 이렇듯 무르녹고있지 않는가 !

가사

신념의 맹세

심봉원

총검을 비껴든 가슴에
신념의 맹세를 다지네
당중앙 받드는 길우에
만병초 꽃처럼 피리라

광풍이 세차도 웃으며
시련의 밤길도 헤치리

당중앙 따르는 한마음
천지의 물처럼 맑아라

통일된 조국을 안고서
주체의 위업을 빛내리
당의 뜻 꽃피갈 그 충성
백두의 노을로 불타라

표창장

강귀미

대철지배인은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요란한 박수갈채... 불빛이 눈부신 토론연단...
연신 번쩍번쩍거리는 사진조명의 섬광... 만사람
의 선망의 눈길,

아직도 무리등이 휘황한 회의장이 눈앞에 선하
다.

이번에도 그는 노상 거창한 생활속에 한생을
보내는 자신을 보았다.

그런 대철이를 한장의 편지가 기다리고있었다.

고향에서 막내동생이 보낸것이였다. 봉투속에
서는 웬 처녀의 사진이 나왔다.

웬 처녀일까?...

사진을 보자 뭔가 생각나는것이 있어서 대철은
서둘러 편지를 보았다. 짐작대로 사진은 막내동
생의 약혼녀였다. 온 가족이 전원 찬성으로 잔치
를 하게 되어 급히 큰형에게 알린다는 사연이었
다.

아버지는 룡산협동농장 농장원, 처녀는 축산반
사양공...

평범한 능촌가정의 평범한 농사군처녀였다.

대철은 또다시 처녀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생
김새가 수수하다. 차림새도 수수하다. 사진을 보
고난 그는 아무런 흥심도 없이 구들바닥에 그것
을 도로 내려놓았다. 담배 한대를 꺼내어 천천히
불을 붙여물었다. 묵묵히 뿌연 연기만 내뿜었다.
(온 집안이 좋아한다지.)

대철은 속으로 되뇌였다.

안해가 부엌에서 들어오자 처녀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물었다.

《어떻소?》

《얹전하고 수수해보여서 좋아요.》

안해의 대답이였다.

《그런데 아무런 특징이 없구만. 그래도 만제수
랑 둘째제수는...》

대철은 말을 끊고 까닭없이 한숨을 쉬었다.

문득 자기가 끌라준 두 제수의 모습이 떠올랐
다. 흰한 이마와 속눈썹이 긴 눈에 리지와 지성
이 깃들어보이는 대학교수의 딸-만제수, 깊은 산
속의 하얀 백합꽃을 연상케 하는 해맑은 얼굴의
아름다운 둘째 제수...

대철은 침울하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왜 이 혼사에 참여하지 못했던가. 조금이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막내에게 혼수를 틀지 못했던
가.

피우던 담배를 비벼끄고 사진에 또 눈길을 보
냈다. 안경까지 끼고 그 어떤 류다른것을 찾아보
려고 애썼으나 역시 그 처녀는 특별히 곱지도 밋
지도 않았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안경을 잡아벗기고 다시 담
배를 꺼내물었다.

아무래도 그 처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그럴가, 이렇다 하게 흠잡을데도 없지 않는
가. 자기가 끌라준 처녀가 아니여서 그럴가, 아니
면 제일 사랑하는 막내여서 지나치게 얼빠한 처
녀를 택해주려고 했던탓일까.

무언가 알수 없는 아쉬움과 그 어떤 특별한것
에 대한 검질긴 미련이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 자
리잡았다.

일이 바빠서 어제 안해를 먼저 고향으로 떠나
보낸 대철은 뒤늦게야 고향을 향해 떠났다.

승용차는 포장한 도로로 경쾌하게 달리고있었
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도라지》의 흥겹고
건드러진 선율, 차창으로 불어오는 선들바람이
운기가 반지르르한 대철의 머리칼을 가볍게 날린
다.

젊은 운전사가 이따금 후사경에 비친 대철의
얼굴을 슬금슬금 엿보고있었다.

그러나 대철은 그런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
는듯 아주 방심한 표정으로 차창밖만 내다본다.

좋은 포장길을 살같이 달리던 차는 미침내 울
통불통한 촌길에 꺾어들었다. 얼마 못가서 차가
들추기 시작했다.

운전사가 미안한 기색으로 말했다.

《지배인동지, 몹시 들추지요.》

대철은 아무 말이 없다가 잠시후 나직이 뇌이
였다.

《그래도 좋구만.》

《에?!》

뜻밖의 대답에 운전사는 흠칫 놀라기까지 하였
다. 대철은 아랑곳없이 오불꼬불하게 뻗은 누런
황토색길을 그 어떤 친근감을 가지고 바라보고있
었다. 차가 대철의 육중한 몸집을 사정없이 좌우
로 마구 흔들어놓았다. 허나 그는 역증도 신경질
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유쾌하였다. 운전사가 이
상스러워 거울에 비친 지배인을 흘끔 쳐다본다.

하긴 도시에서 나서자란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심정을 알리가 있겠는가.

맨발로 발목이 시도록 이 울통불통한 길을 달

음박질도 하고 소망울이 왈랑질랑거리는 소달구지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집으로 가던 일을...

차창밖으로는 무연한 남새밭이 펼쳐졌다. 갑자기 두엄냄새가 짙 코를 찔렀다. 웬만한 향수내도 비길수 없는 구수한 두엄냄새는 대철이를 푹 취하게 하였다.

운전사는 열렸던 차창을 닫아버렸다.

대철은 미소를 머금고 자기곁에 달린 차창을 살며시 열어놓았다. 길은 땅내가 그의 폐부에 깊이 스며들었다. 오랜 세월 몸에 배인 향수내도 휘발유내도 순식간에 다 달아났다. 그는 과거의 흠내에 인차 익숙했고 그것이 더 좋았다.

차가 고향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울퉁불퉁한 그 길은 더욱 정이 가고 길은 땅의 향기는 온몸에 깊숙히 배어들었다.

《여보게, 차를 천천히 몰라구.》

개울가에 이르자 대철은 머리를 차창밖에 쑥 내밀었다.

바로 여기였었지. 군에 비료를 가지러 갔다가 트랙토르가 빠져서 온밤 애먹던곳, 저녁밥도 못 먹고 출출 굶던 시내가...

그것이 벌써 20년전 일이다.

운전사는 영문을 모르고 덮어놓고 차를 천천히 몰았다. 경지도 별로 볼만하지 못한 바깥에는 아예 눈도 돌리지 않았다.

대철이만이 돌다리가 놓인 개울가에서 줄곧 눈길을 떼지 못했다.

가을걷이를 끝낸 밭의 그루터기들도, 푸르른 저하늘로 달음박질해가는 송이구름도 눈에 비치는 고향의 모든것이 유정해보이고 소박한 사람들의 터전에 왔을 때의 그런 안정감과 일종의 흐뭇한 감을 주는 것이었다.

자기를 낳아준 생활터전에 돌아온 그는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큰 공장의 지배인이 아니라 한줌의 흙을 소중히 가꾸던 어제날의 농사꾼으로 돌아온 것이다!

차가 동구밖에 나타나자 조무래기들이 와-하고 뒤따라왔다. 그들속에는 두 어른이 끼워있었다.

《차를 세우게.》

대철이 다급히 소리치자 차는 급정거했다.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두 농장원이 대철이를 향해 반갑게 달려왔다.

《오래간만일세. 친구들.》

대철이 두 팔을 짹 벌렸다.

《여, 첫째!》

기쁨이 장대한 구레나룻의 사나이인 대철의 아명을 부르며 그의 손을 무릅없이 잡고 놓지 않았다. 술뚜껑처럼 크고 껌껌한 손이었다.

대철은 그 손을 마주잡고 생각했다.

이 친구의 손은 여전하구나. 내 손도 이렇게 크고 역세였었지. 찍하면 이 친구와 팔씨름도 하고... 그때는 이 친구한테 내가 이겼었는데... 참 세월이 멀리도 흘렀구나... 이제는 어림도 없겠지...

《이거 지배인동지... 안녕...》

바지를 정쟁이까지 걸어올린 작달막한 또 한 친구가 흠뻑은 손을 바지에 슬슬 문지르며 어색하게 더듬거렸다.

대철이 그의 어깨를 탁 쳤다.

《지배인동지가 뭐야. 졸장부같은이라구.》

바지를 걸어올린 친구가 뒤더수기를 굵적거린다.

《대철이-》

밭머리에서 또 한송아지동무가 나타났다. 소고삐까지 집어던지고 환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그러다가 넘어지겠네.》

대철이 마주 달려가며 얼싸안았다.

그 친구의 밀짚모자밑으로는 굵습습한 머리칼이 삐죽이 밀려나와있었다. 그는 대철의 아래우를 유심히 훑어보며 빙글거렸다.

《자넨 우리와는 하늘땅 차일세. 하지만 틀차린 인사는 그만두겠네. 자네가 높은 연단에서 연설하는걸 텔레비전에서 봤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매일반이야. 영웅호걸이 되어도 송아지동무야 송아지동무지.》

《이 친구 제법 말재간이 늘었군. 예크 저놈...》

대철이가 뚱뚱한 몸으로 어느새 달아나려는 소있는쪽으로 뚱다 달렸다. 날새게 발로 소고삐를 밟았다.

《이라-》

그는 천연스럽게 소를 몰아왔다. 친구들이 꺾꺾 웃으며 떠들어댔다.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운전사도 어이없이 웃는다.

《어때, 이 양복만 벗으면 옛날 소몰이군이 신통하지.》

자신만만한 대철의 말에 굵습머리가 소고삐를 받아쥐며 스스럼없이 말했다.

《아니 별웃을 갈아입어도 자네는 올데갈데없는 지배인일세.》

대철은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세월속에서도 변함없는 송아지동무들, 소박한 그들속에 돌아온 그는 어쩐지 감개무량했다.

《자, 그럼 가보세. 가족들이 기다리겠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승용차가 그의 곁에 와닿았다.

《나는 걸겠네.》

대철은 운전사쪽을 흘끗 바라보고나서 친구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걸음을 옮겼다. 누구도 만류하지 않았다. 응당 그러리라 여겼던지 옛친

구들은 햇빛 넘치는 동구길을 함께 걸었다.

뒤따르던 누렁소도 덩달아 기쁜듯 머리를 내저으며 영각을 길게 뽑았다.

영웅이 되어 찾아온 맏아들을 맞은 고향집은 들쭉거렸다.

《네가 바빠서 오지 못할줄 알았구나. 아이적엔 문턱이 닳도록 성화를 먹이더니만 이젠 영웅이 되어서 그러나. 이 문턱을 한번 넘어서기가 그리도 힘이 드냐.》

밥주걱을 손에 든채 마당가에 뛰어나온 어머니가 맏아들의 너른 어깨를 탁탁 털어주며 기쁨에 겨워 어쩔줄 몰라했다. 일가친척들이 아이들을 앞세우고 줄레줄레 나와 인사를 했다.

대철의 눈에 의젓하고 아름다운 두 제수의 얼굴이 류달리 눈에 띄었다.

문득 편지속에 들어있던 처녀의 사진이 떠올랐다.

순간 고향에 오면서 잊어버렸던 아쉬움이 왈칵 되살아났다. 그는 토방앞을 오락가락했다. 선뜻 발을 올려놓게 안되는 그였다. 셋째 제수의 잔치가 기다릴 저 방안...

대철이는 번거로와지는 마음을 털어버리며 아버지를 찾아 방안으로 들어갔다.

진회색양복차림을 한 아버지가 울방자를 들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안색이 여느때없이 밝았다.

《아버님, 그새 편안하십니까?》

《음, 네가 왔구나. 빨리 왔으면 사돈집에 새머리를 데리러 네가 갈걸 그랬구나. 둘째랑 막내랑 새벽차에 떠났다.》

《기차로요?》

《정거장이 코앞인데 뭐라나.》

아버지는 담배만 풀썩풀썩 태우며 잠시 말이 없었다. 이윽고 맏아들을 바라보더니 자못 자랑스럽게 말했다.

《뛰니뛰니해도 이번 머느리가 농사군의 딸이라니 아버는 처음부터 찬성했다. 그 애 할아버지는 토지개혁 때 열성농민이였구 아버지는 모범농장원이라는구나. 처녀도 몸이 실박한게 괜찮다더라.》

《그래요?》

《난 막내녀석이 제일 대견하다. 이 배나무집 농사군의 대를 잇겠다니 얼마나 기특하냐...》

막내를 칭찬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대철은 생각했다.

여기까지 소문이 났겠는데 왜 아버지는 이 아들앞에서 한마디 말도 없을까. 맏아들의 경사를 두고.

부모앞에서 자식은 어느 때나 철부지아이라더

니 귀밑머리가 희여지고도 아버지의 칭찬을 바라는 자신이 우습기도 했다. 그러나 왜그런지 아버지앞에서 좀 서운했다.

하긴 아버지는 옛날부터 저랬지. 평가하고싶은 사람앞에서는 노상 침묵을 지켰었지.

서운한 마음이 가셔지고 셋째 제수에 대한 화제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석이 이번에 색시감도 슬쩍 잘 골랐거든. 처녀가 힘장수라 군적으로 소문이 지자하다누나. 저희끼리 눈이 맞았지... 군에서 조직한 새땅찾기공사장에서 만났다더라.》

대철은 허허 웃고말았다.

아버지가 만족해하는 그 처녀는 대체 어떤 처녀일까.

아버지의 눈은 좀 다르지. 맏제수와 둘째 제수를 두고 허리가 휘친휘친한게 물동이나 변변히 이겠느냐고 얼마나 눈에 차하지 않았던가.

방에서 나온 대철은 고향집을 한바퀴 빙 돌아보았다. 부엌에 수도가 팔팔 나오나 그 무슨 유물이기라도 한듯 우물도 막돌을 깬 우물길도 이전그대로였고 장난을 즐기던 그 시절에 토방의 큰 기둥에 칼로 새긴 날자도 옛대로였다. 이날이 무슨날이었던가. 토끼가 새끼를 낳은 날이었지...

그는 천천히 뒤뜰안에 걸어나가 배나무도 만져보았다. 언제면 제구실을 하겠는가 하며 온 가족이 아침저녁 물을 주던 나무가 지심깊이 뿌리내려 주렁진 열매로 하늘을 덮었다.

대철은 그 배나무를 올려다보면서 큰 열매로 가득찬 자기의 벼차고 보람찬 인생의 년륜들을 되그려보았다.

평양에서 돌아오는 연석차칸에서 마주앉았던 도당의 책임일군이 하던 말이 귀전에 들려왔다.

《건설이 진행되여도 온 나라가 알고 생산계획을 넘쳐해도 온 나라가 아는 공장의 지배인이라...》

표창을 받아도 큰 표창을 받고 공장이 감사장을 받아도 높은 감사장을 받으니...

허참, 지배인이 부럽거든...》

대철은 담배 한대를 꼬나물었다.

(생산을 더 올려야지. 적어도 지금보다 1.3배로, 새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안을 세우고 부족된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기본건설설계를 다 그쳐야지. 늦어도 이번주안으로.)

엄청나게 높아질 생산수자와 확장공사가 활발히 벌어질 공장이 눈앞에 떠올랐다. 온몸에 힘이 솟구쳤다.

《어머니, 첫째 있나요?》

《결혼식도 축하할겸, 송아지동무도 만날겸.》

대철은 마당가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말소리

에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담배를 얹어 문채 그들을 마중하러 나왔다.

《허, 우리 지배인이 소풍을 하시누만.》

《어서 들어가세.》

《오늘은 쉬는날이어서 이렇게 대낮에 왔네.》

《어머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시오.》

얼굴에 호합진 웃음을 담은 대철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오냐, 넌 꼭 총각때처럼 말하는구나.》

어머니는 아들을 대견스레 바라보다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미구에 옛친구들은 꾸집한 음식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대철이 친구들에게 한잔씩 부었다. 구레나룻과 곱슬머리 친구가 서슴없이 잔을 비웠다.

길가에서 《지배인동지》라 했다가 메주를 먹은 친구만이 찰랑거리는 잔을 든채 어찌할바를 모른다.

《쫓쫓... 그건 첫째가 주는 잔이야. 어려워말고 쫓- 그렇지. 단숨에...》

구레나룻친구가 커다란 손으로 대철의 잔등을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대철이 이사람아, 자네 생각나나. 목마에 탔던 일이》

《목마에?!》

대철은 의아해서 구레나룻을 쳐다보았다.

깊은 감회에 잠긴 친구의 얼굴을 마주본 순간 대철은 저도 모르게 머리를 끄덕였다.

《생각나구말구.》

머리가 희끗희끗한 구레나룻은 만족하여 꺼칠한 턱수염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아무렴 잊을수가 없을테지. 잊어서야 안되지.》

대철은 생각난다고 대답했으나 종시 목마에 탔던 일이 떠오르지 않아서 속으로 미안한 감을 금할수 없었다.

마당쪽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차에 새색새일행이 오지 않았다는 《비상사고》였다.

《이런 변이라구야.》

어머니가 울상이 되어 방안에 들어왔다. 만아들더러 어떻게 해보라는것이였다.

곱슬머리가 넋지시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잔치집에 새색시가 안올라구요. 여, 대철이, 일어나지 말게, 술맛 잡지겠네.》

동무들때문에 그냥 눌러앉아있었으나 대철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잔치날에 시간을 란쪽하게 어긴 처녀, 그 미지의 처녀는 대체 어떤 처녀일까?

대철에게는 주둥이에 고추를 물고 목을 꼴꼴이 세워 큰상에 오른 삶은 닭까지도 색이 바래서

새색시를 기다리기에 지쳐버린듯 보였다.

그 처녀가 잔치날 분위기를 다 흐려놓은것이 다.

대철의 마음속에서 무시로 불안스런 아쉬움을 자아내는 처녀!

혹시 저녁차에까지 나타나지 않아 동네망신이 라도 시키지 않을가 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어머니, 신랑신부없는 싱거운 잔치에 왔다가 슬금슬금 꼬리를 사리는 손님들, 해가 서산에 기울자 투덜거리며 가버린 사진사아바이.

대철은 마당가에 서서 연산 즐담배만 피웠다.

아침에 고향땅을 밟았던 감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창고지붕우에 주련이 놓여있는 큼직한 음식 그릇들조차 눈에 거슬렸다.

(젠장, 잔치판은 크게도 벌렸다.)

정말 저녁차로 오려나. 길이 어긋나는 한이 있어도 아까 승용차를 가지고 떠났어야 하는건데...

그때는 왜 그런지 그렇게까지 하고싶은 생각이 없었었다. 조화였다. 이제는 이미 때가 늦었다.

저녁차가 들어올 시간이 거의 가까와왔다.

부엌에서 서성거리던 아낙네들까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부산을 피우더니 정거장으로 우르르 밀려갔다.

한참후 철길쪽에서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대철이도 마음이 뒤숭숭하여 앉아있을수가 없어 밖으로 나갔다.

정거장으로 가는 고개길에서 셋째와 마주쳤다.

《왔느냐?》

《왔어요. 뒤에서 너자들이 천천히 데려오고있어요. 저는 사진사아바이를 끌고오겠어요.》

셋째는 갈림길로 들어섰다.

잠시후 너자들의 말소리 웃음소리가 뒤따라왔다. 대철은 얼른 그들을 피했다.

새각시 단장을 시키도록 처녀와 둘러리를 옷집에 들여보내고난 두 제수가 가만가만 주고받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대철이 있는데까지 들려왔다.

《그래 왜 늦었대?》

《글쎄 기가 막혀서... 새각시가 말아보던 어미돼지가 새끼를 예정일에 낳지 못했더니요. 공교롭게도 어제밤부터 기색이 달라진게 오늘이야 가물에 콩나듯 낳았는지 않아요. 돼지가 새끼를 낳는거야 낳는거구 시집갈 처녀가 그걸 우두커니 지키고있었으니... 누가 데리러 가도 돌아보지도 않더라고요.》

《참 굉장한 처녀구나. 보통내기가 아니겠어.》

대철도 놀랐다. 정말 세상에 그런 처녀도 있는가싶었다.

어미돼지결에 근심어린 얼굴로 내려다보며 쭈그리고 앉아있었을 처녀의 모습이 언뜻 지나갔

다.

그래 한평생에 한번밖에 없는 이 경사에…

그러나 어쩐지 이 처녀를 마중나가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걸려 가슴이 알찌근하였다.

뒤집을 지고 담장결에 서있던 그는 이제라도 신부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싶었다. 방안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높이 고인 큰상의 음식을 더 돋구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방안에 텅글고있는 축수 높은 두개의 전등이 눈에 띄었다. 분명 사진을 찍기 위한 《조명》용이라고 생각한 그는 팔을 걷어올리고 의자우에 올랐다 내려다 했다.

드디어 배나무집 넷째 머느리가 대문에 들어섰다.

대철이는 결혼식장을 더 환하게 하느라고 축수 높은 전등을 켜다. 순간 새각시의 얼굴이 불빛 속에 환히 드러났다. 대철은 저도모르게 그를 뜯어보았다. 될수록 잘 보려고 애썼다.

아무리 진한 화장을 하였어도 그는 아무데서나 만날수 있는 수수한 농촌녀성이었다.

저런 평범한 처녀한테서 어떻게 새끼돼지와 사양공에 대한 특이한 이야기가 창조되었을가.

막내녀석은 색시결에서 싱글벙글거리고있었다.

농촌풍의 식도 끝나고 사진도 여러장 찍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다 돌아간후 가족과 친척들만이 모여앉았다. 둘러리가 새각시에게 자그마한 려행가방을 가져다주었다. 그속에는 시부모에게 줄 옷감이 들어있었다.

새각시는 살며시 일어서서 시부모에게 머리숙여 첫 인사를 한다음 정성들여 마련해온 그 옷감을 내놓았다.

늙은 부모의 얼굴에 희색이 만면했다. 모두 흐뭇한 눈길로 새각시를 바라보았다. 유치원에 다니는 대철이의 조카녀석이 살금살금 려행가방결으로 다가가고있었다. 그 애는 가방안에서 꽃보자기에 정히 찢것을 꺼내들었다. 어머니가 바빠맞아 그것을 나꾸어줬다. 찰나에 무언가 방바닥에 흘러떨어졌다.

《저런.》

무례한 장난꾸러기에게 혀를 차면서도 모두들 떨어진 물건에 시선을 모았다. 그것은 두툼한 종이장이었다. 재빨리 뒤집어보니 뜻밖에도 상장이었다.

무슨 표창장일가? 대철이도 거기에 호기심이 갔다. 행여나 처녀의 인상을 뒤집어놓을수 있는 높은 표창장일수도 있지 않는가.

《군사로칭 표창장!》

말제수가 읽으려다 말고 말꼬리를 흐리며 상장을 슬그머니 손에서 놓았다.

(군사로칭…)

대철은 놀랐다.

여기저기서 얼굴들을 마주보며 서로서로 눈짓을 한다. 가벼운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습새여나온다.

《고모, 나도 저런 표창장을 탔어.》

중학교에 다니는 조카애가 눈치없이 자랑하는 바람에 방안이 한결 더 설레었다.

(철부지애까지 탄 저런 표창장을, 그것도 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였는지. 누르스름해진결 시집보는 날 가지고오다니…)

대철이는 어이없어 웃음이 나갔다.

하지만 다음순간 문득 웃음은 굳어지고 그는 정색해졌다. 영예에 취한듯한 발그스레 홍조가 비낀 그 녀자의 얼굴과 얼굴에 만족과 자부심으로 충만된 웃음을 본것이다. 저 밝은 얼굴과 구김없는 웃음, 유난히도 절박한 그 어떤 상념이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들이쳤다. 그는 내심의 그 충격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낮에 구레나룻친구가 한 말이 귀전을 때리었다.

불현듯 20여년전 일이 그의 기억속에 생생하게 되살아올랐다.

(아, 그날이었구나! 목마, 목마에 탔던 일이…)

기억에서 멀리 사라져버렸던 그 일이 저 표창장앞에서 아니 저 소박한 표창장을 안고온 새색시의 모습앞에서 생각나다니…

…대철은 그날 난생처음으로 표창장을 탔다. 군민청 표창장이었다. 자기 리에서 혼자 선발되어갔었다. 군에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휘파람이 절로 나왔다. 이제 가면… 신혼살림을 꾸려놓은 분파같은 방에서 표창장을 받아쥐며 반갑게 맞아줄 안해의 정다운 얼굴이 눈앞에 어려오기도 했다. 줄줄줄 흘러가는 시내물이 그를 손저어불렀다. 그는 걸음 멈추고 다정히 시내물을 들여다보았다. 가슴에 표창장을 안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기쁨과 행복에 겨워 웃고있는 밝은 얼굴이었다. 시집오는 날 표창장을 안고온 그 처녀와 같이…

동구밖에 이르자 뜻밖에도 세친구가 와- 소리쳐며 달려왔다. 아까 술좌석에 앉았던 그들이었다.

키가 장승같은 털보가 먼저 달려오더니 손에는 표창장을 아타보았다.

《우리 첫째가 괜찮거든.》

그는 친구들에게 소리쳤다.

《첫째를 목마에 태우자!》

바빠맞은 대철이 뺑소니치려 했으나 친구들은 눈감박할사이에 그를 공중 들였다놓더니 정말 목마에 태워 온 마을을 한바퀴 빙 돌고는 집앞에 이르렀다.

《자, 새서방을 받으시유.》

삼작문을 열고나왔던 안해가 기겁을 해서 도망쳐버렸었다.

...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잊다니. 목마태워준 동무들까지도 아니 인생의 첫 표창장마저도...

대철은 그만 머리를 떨구었다.

전번에 나는 군사로청 표창장을 전달할 때 깊은 생각없이 책상우에 쌓인 표창장을 회의실에 가져다놓고 매 청년들에게 어떤 공적이 있는지, 지어는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순서대로 이름을 내리볼러 한장씩 시간을 재촉하며 전달하지 않았던가.

그것을 소중히 받아안던 청년들의 엄숙하고 티없는 얼굴들이 지금에야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 모습으로 살아났다.

그 사랑스런 모습들을 내가 어느새 벌써 깡그리 망각의 심연속으로 밀어던져버렸을가.

언젠가 한 기중기운전공의 이름을 헛갈려 불렀을 때 그는 얼마나 서운한 눈길로 나를 올려다보았던가. 얼굴을 붉히며 말없이 돌아서가던 그 뒤모습이 지금에야 눈에 삼삼히 떠오른다.

기중기운전공처녀 역시 셋째 제수처럼 그렇듯 수수하고 순박한 처녀였다. 그리고 아무런 특징도 없었다. 그래서 어느새 그 처녀를 망각해버린 것이다.

맞은편에서 어머니가 새각시의 투박한 손을 만지고있다. 그것이 얼핏 대철의 시야에 들어왔다. 터실터실 터갈라진 손이었다. 대철은 무언가 가슴을 꼭 찢리우는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나도 일하는 사람들의 저런 손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은... 공로자, 재능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의 으리으리한 사무실 문고리를 빈번히 잡아당기였다. 1년 열두달 같은 공장에 있는 기중기운전공처녀는 찾아오지 않아도 천리밖에서 축하공연오는 인민배우, 공훈배우들이 뺨질나게 지배인실로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었다.

대철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인기있는 배우의 이름은 새겨두어도 직장장시절에 허물없이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하게 지내던 기중기운전공의 이름은 까맣게 잊어버리였다. 평범한 인간들과 점차 멀어진 나, 이것이 대철지배인이였다.

오늘에야 그는 노상 《특별한것》속에 에워싸여 흘러가는 생활의 격류속에서 《특출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의 벗이 된 자신을 발견했던것이다.

그리고 사진에서 본 수수한 처녀, 셋째 제수가 왜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하는것도 깨달았다.

특별한데가 없는 평범성, 바로 그것이었다.

높은 직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 세상에 이름이 뜨르르하게 알려진 사람들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한 자신이 과연 어제날 설레이는 가슴에 군민청 표창장을 안고 달려오던 소박한 그 인간이었던말인가!

대철은 머리를 들었다.

자기앞에 아름다운 녀성이 고개를 소곳이 숙이고 앉아있다.

인생을 새 출발하는 날에 자그마한 표창장을 소중히 간직해온 그 녀자.

세상에서 가장 청렴한 녀, 고결한 인간이 거기에 있었다!

(아름답고 훌륭하고 거대한것은 바로 농촌 어디에서나 만날수 있는 저 소박한 인간속에 있구나.)

대철은 자기를 말없이 깨우쳐준 셋째 제수가 눈시울이 뜨겁도록 고마왔다. 또한 이 순간 별웃을 입어도 울데갈데없는 지배인이라고 하던 곱슬머리친구의 룡말에 담긴 진뜻이 얼굴뜨겁게 안겨왔다.

《애야, 네가 정말 장하구나.》

웅심깊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새머느리의 표창장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대견해하는 아버지를 본 대철은 또한번 놀랐다.

그 어떤 표창앞에서도 칭찬을 로르던 아버지, 아들의 영웅메달앞에서도 침묵을 지킨 아버지였다.

대철은 가슴이 후터워났다.

아버지의 평가는 웅당한것이다.

조국과 인민의 자그마한 평가를 가슴속깊이 소중히 간직하는 깨끗한 그 마음을 어떤 공로에 비기겠는가.

처녀가 부드러운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시형울시다.》

대철은 그렇게 말하고싶었다. 그러나 말이 나가게 않았다.

입밖으로는 막내를 향해 왕청같은 소리가 튀어나갔다.

《우리 막내가 눈이 바로 배겼거든.》

다음날 승용차는 공장으로 살같이 달렸다.

운전사의 눈앞에는 반짝거리는 거울이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젊은 운전사는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깊은 명상에 잠긴 지배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것이다.

대철은 다정한 송아지동무들의 목마에 타고가고있었다.

인생의 첫 표창장, 군민청 표창장을 소중히 가슴에 지니고 끝없이 끝없이...

석탄전선에 인사를

김천성

한랭전선으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우리 방송 기자들의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어이없어하겠지만 나는 이번에 상반년도계획을 앞당겨 끝낸 탄광 탄부들과의 방송 야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것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번 방송야회의 성황을 이룰 장면의 하나로서 대동강상류의 왕대강목작업소에서 이해의 첫 동발떼를 물고내려올 작업소장의 출연을 계획하고 있었던 나는 그곳 기상관측소로부터 강얼음이 레년보다 늦게 풀릴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던것이다.

탄광은 물론 탄광을 지원하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이며 예술단체들과도 합의를 보고 정한 날자가 코앞에 박두해온지라 나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게다가 심상치 않은 풍문까지 들려왔다. 그 풍문인즉 왕대강목사업소에서는 소장이하 류벌공들이 수달사냥에 여념이 없다는것이였다.

왕대지방에 수달이 많다는것은 책에서도 읽었고 다녀온 기자들한테서도 이미 들어 알고있는 사실이였다. 값진 모피를 제공해주는데다가 수달이란놈은 사냥에 몰두할만큼 흥미있는 짐승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첫째를 꼭 물고내려와서 방송야회에 참가하겠노라고 철석같은 약속을 한 사람이 어떻게 잠시나마 해탄데 정신을 팔수 있으랴.

탄광에선 지금 갱목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때에- 처음부터 그 풍문을 말갈지 않은 소리로 들었지만 어쨌든 제눈으로 직접 확인하기전엔 마음을 놓고 기다릴수가 없게 되였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왕대리를 향해 떠났다. 번덕많은 환절기의 하늘은 이른아침부터 찌부둥하게 흐려있었다. 봄소식을 알리는 첫봄비라도 한줄금 뿌려주려는지...

빠스에 올라 그곳으로 향하는 나의 눈앞에는 문득 이번 방송야회를 준비하기 위해 탄광지배인을 처음 찾아갔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저녁 내가 지배인과 마주앉아 금방 취재를 시작했을 때였다. 복도를 쿵쿵 울리는 발자국 소리에 이어 요란한 손기척소리가 나더니 우리가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문이 활짝 열리면서 기골이 장대하고 눈, 코, 입, 귀가 다 큼직큼직하게 생긴 사람이 성큼 방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걸치고있는 두툼한 솜외투며 큼직한 림산동화는 방안에 갑자기 서늘한 기운을 풍겨놓았다.

《소장동무가 어떻게?》

지배인은 자리를 벌떡 차고일어나 마주 달려나왔다.

《상반년도계획을 본때있게 해제긴 <사둔>령감이 보고싶어서 왔수다.》

지배인이 권하는 의자에 스스럼없이 앉으며 그는 이렇게 룡조로 인사말을 건네였다.

《허허, 최운소장이 생기지도 못한 내 얼굴이야 뭘 보고싶어서 왔겠소.》

《이젠 내가 지배인얼굴만 보고서도 탄광의 갱목사정을 환히 꿰뚫어본다는걸 모르우?》

《그래 내 얼굴을 보니 지금 우리 갱목사정이 어떤것 같소?》

지배인이 얼굴을 최운소장앞에 바싹 들이대자 그는 시치미를 툭 떼고 정말 관상이라도 보는것처럼 상대방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것이였다. 나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룡질이 센 두사람을 재미있게 바라보았다.

《이마에 보이지 않던 주름 하나가 더 생긴걸 보니 갱목이 이젠 바닥이 드러났겠수다.》

《허허, 보나마나 또 우리 갱목토장을 돌아봤겠지.》

《돌아봤소. 사실은 어제 방송에서 이 탄광소식을 듣다가 그게 마음속에 쏘이길래...》

《그럼 그때문에 일부러 그 먼길을 왔단말이요?》

지배인은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그러나 최운은 그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혼자 소리처럼 한마디 했을뿐이였다.

《그런데 한랭전선이란놈이 아직 떼길을 가로막아와서...》

그리고는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러자 지배인이 안심시키듯 이렇게 말했다.

《너무 걱정마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참모회의에서 떼몰이시기까진 자동차수송을 조직하기로 토론이 있었소.》

《...》

지배인의 말에 최운은 잠자코 담배만 피웠다.

그러는 그의 얼굴은 잠전에 방안으로 들어오던 때의 유쾌한 웃음이 떠돌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그 많은 물동을 자동차수송으로야 어떻게 ?》

이렇게 혼자말처럼 외우는 그의 목소리에선 속이 끓는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그러니 어찌겠소. 떼길 이 열리지 않는데야...》

최운은 다시 말이 없었다. 동강이가 난 두사람의 이야기는 한동안이나 이어지지 않았다. 지배인까지 담배를 붙여물자 방안엔 푸르스름한 담배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히 서리었다. 침묵이 계속되다가 지배인이 그제서야 문득 생각난듯 《참 이 정신봐라.》 하더니 나에게 최운소장을 소개했다. 그랬을 때 나는 이미부터 계획했던터라 그에게 방송야회에 출연해줄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그는 기겁을 해서 손을 내저었다.

《못합니다. 난 아직 그런 무대엔 나서보질 못했는걸요.》

지배인도 나를 도와 몇번 권고했으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가망이 없는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는 불쑥 방송야회날자를 따져묻는것이였다. 나는 다행이다싶어 얼른 계획하고있는 날자를 대주었다. 그랬을 때 그는 머리를 수긋하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얼굴이였다. 그를 이윽히 바라보던 지배인이 선심을 썼다.

《그날 우리 <갱생>을 보내주지.》

순간 최운은 머리를 번쩍 들었다.

《무슨 소리? 떼군이야 떼를 타고 가야 할 소리가 있지 승용차를 타고와서야 애들처럼 차를 타고온 자랑을 하겠소. 우린 어떻게 하든지 그날 첫 동발떼를 가져다대고 석탄전선에 보내는 우리 류벌공들의 전투적인사를 꼭 전하겠수다.》 .

《뭐라구?》

지배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리에서 꺽충 일어서기까지 했다.

《갱목은 우리가 날라다줄테니 여기선 탄만 무진장 캐란말이요.》

최운은 이런 다짐을 두고나서 성큼 일어섰다.

순간 지배인은 다급히 그의 팔소매를 붙잡았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고가요.》

그러나 최운은 슬며시 그의 손을 풀어놓았다.

《아니 가야겠소, 자. 기자동무, 다시 봅시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아주고나서 부리나케 밖으로 나갔다.

《몸은 탄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노상 여기에 와서 사는 사람이지요. 현대 이렇게 늦추위가 계속되니 그날 떼가 꽤 내려오겠는지...》

최운을 바래주고 돌아온 지배인이 우-우 ! 바람소리가 세찬 창박을 내다보며 하는 말이였다. 하지만 나는 최운소장을 믿고싶었다. 그래서 나는 방송야회의 성황을 이룰 대목에 그의 출연을 정해놓았던것이다....

그러나 뺨스가 왕대리를 가까이 할수록 나는 자신의 믿음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뺨스가 달리는 산협길과 쌍곡선을 이루며 뻗어내린 강엔 아직 걸레조각같은 얼음장들이 떼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악을 쓰듯 군데군데 어지러이 널려있었던것이다. 푸르스름한 빛은 잃었으나 아직도 면적이 꽤 넓은 얼음장들이였다. 상류쪽으로 올라갈수록 크고작은 얼음장들은 더 자주 나타났다. 게다가 아침부터 지뽀뽀하게 흐렸던 하늘에선 기다리는 봄비 대신 때아니게 진눈까비가 흩날렸다. 처음은 성기게내리던것이 점점 발을 지어 마치 한겨울의 함박눈처럼 퍼붓는다. 그것은 가뜩이나 불안한 내 마음을 점점 더 불안하게 했다.

(번덕많은 한랭전선은 올해의 떼몰이시기를 한 정없이 늦잡겠구나.)

지금에 와서야 나는 탄광지배인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깨달았다. 순간 얻어들었던 풍문이 다시 떠올랐다. 그렇게 뺨스가 얼마쯤 더 달렸을 때였다. 강기슭에 황철나무 몇그루가 듬성듬성 늘어서있는곳에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나타났다. 여울목을 다급하게 흘러내리던 강물이 다리침을 해가려는듯 흐름을 잠시 늦추며 널찍한 소를 이룬곳이였다. 거기엔 아직 꽤 넓은 얼음판이 기슭을 따라 내려가며 번들거려였다. 바로 그 얼음판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법석 끓고있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내가 긴장해지는 눈길을 거기에 박는데 뺨스안의 손님들이 떠들기 시작했다.

《저 친구들, 기세를 올리는데.》

《아닌게아니라 하루사이에 멀리 내려왔구만, 난 저 친구들이 이 <누룽소>까지 내려올줄은 미처 몰랐는걸.》

《수달사냥이 재미가 나는 모양이지.》

그리고는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한바탕 소리내

여 웃었다. 보아하니 그들은 왕대리사람들 같았다.

(수달사냥이라니, 그럼?)

나는 무엇인가 한대 단단히 얻어맞은것처럼 머리가 아찔해지면서 불 안편 굴뚝에 연기난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다잡기 어렵게 탕개가 풀리며 마음은 무척 허전했다. 떼길을 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대신 수달사냥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을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나는 이제 앞일이 불을 보는것만 같았다.

(최운소장은 그 덩치 커다란 몸을 어디다 숨길까? 그럴바엔 차라리 여기서 밭길을 돌리는 편이...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가 경목을 두고 그렇게 마음을 쓰던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돌아갈텐가.)

갈래 많은 생각을 하는 사이에 빠스는 어느덧 왕대리에 이르렀다. 나는 빠스에서 내리기가 바쁘게 곧바로 작업소로 찾아갔다. 그러나 점심시간이여선지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주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내가 마당가를 서성거리는데 어디선가 불안간 깔깔거리는 녀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난쪽을 돌아보니 행길쪽에서 함치며 버치, 바께쯔 같은것을 이고 들기도 한 아낙네들이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면서 분주히 걸어오고있었다. 무슨 재미나는 화제거리를 올렸는지 그들의 입에선 웃음이 그칠줄을 몰랐다. 나는 그들앞으로 마주 걸어나가며 최운소장이 있음직한곳을 물었다.

《우리 소장이요?》

아낙네들가운데서 류달리 풍채가 좋은 중년부인이 빙긋이 웃으며 물었다.

《자. 이거나 하나 들어다주시우, 내 안내해드릴테니.》

녀인은 량손에 갈라들고있던 바께쯔 하나를 푸접종게 내앞으로 쏙 내밀었다.

주둥이를 깨끗한 보자기로 뽁뽁 동여맨 바께쯔에서는 구수한 고기국냄새가 물씬물씬 풍겼다.

《이걸 어디로 가져갑니까?》

영겁결에 국바께쯔를 받아든 나는 녀인들의 뒤를 따라섰다.

《거기 떼동으로 가져간다우. 오늘같이 궂은날은 줌 들어와서 식사를 했으면 좋으련만 고집불통령감이 어디 말을 들어야지요. 뭐 야외식사가

별맛아라나요. 하기가 급하게도 됐지요. 모레는령감이 첫 떼를 타고 내려가야 하니까요.》

알고보니 이 푸접종은 녀인은 다름아닌 최운소장의 마누라였다. 하지만 지금 나의 관심은 다른데 있었다.

《아니 그럼 떼가 내려가는가요?》

너무도 뜻밖이어서 나는 걸음까지 푹 멈추었다.

《아, 내려가구말구요. 그렇지 않다면야 이 형님네 딸잔치에 쓸려구 기르던 돼질 다 잡아내가겠나요.》

다른 녀인이 툅겨주는 말이였다. 나는 뭐가 뭔지를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러나 녀인들은 이제 가보면 다 알게 될텐데 공연한 잔근심 말고 따라오라는듯 걸음들만 재우칠뿐이였다.

잠시후에 우리는 물동가에 이르렀다.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더 놀랐다. 물동가의 여기저기엔 커다란 우등불들이 활활 타번지고있는데 겨우내 끌어내서 총총을 이루어 산처럼 까마득하게 쌓아올린 통나무더미우에선 든장을 든 두 청년이 마치 신화에 나오는 거인처럼 꺾싸게 발을 옮겨짚으며 통나무들을 연방 물속으로 굴러내린다.통나무가 불속에 처박힐 때마다 물기둥이 치솟고 물방울이 사방으로 날렸다. 언제 폭파세례를 받았는지 물위에 둥둥 떠다니는 크고작은 얼음덩이들은 서슬을 쳤을 때 뭉쳐 돌아가는 순두부와도 같았다. 번들거리는 고무옷차림의 사람들이 물속에

몸을 반나마 잠그고 물속으로 굴러떨어지는 통나무들을 갈구리로 채치있게 찍어서 끌어다가는 키밧춤을 해가며 떼바둑을 뚝는다. 그렇게 무어서 밀어놓는 떼바둑들을 다른 한패의 사람들은 물동웃켄으로 덜찍이 끌어다가 서로 잇대놓고서 참나무타리개를 대고 고리쇠를 박아 마치 렬차의 차량들처럼 주련이 렬결해놓았다. 통나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고리쇠를 박는소리, 떼죽을 짖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웨침소리로 물동은 온통 떠내려갈듯하였다. 여기서 울쎄넌스러운 진논까비도 꽃보라처럼 느껴졌다. 가슴벅차게 안겨오는 광경에 넋을 잃고 서있는데 어느새 제일 큰 불무지결에 음식그릇들을 챙겨놓은 녀인들이 나를 향해 국이 식는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제서야 손에 들고있는 국바께쯔를 곱어본 나는 부랴부랴 그리로 달려갔다.

《어서 식사들 하시랴요 !》

최운소장의 마누라는 벌써 몇번째나 청높은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러나 선뜻 응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자 녀인은 안타까운듯 잠시 머죽해 서있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그럴듯한 궁리가 떠올랐는지 밤주적으로 국통을 팽파리치듯 두드리기 시작했다.

순간 와야 ! 하고 물동이 떠나갈듯한 폭소가 일어났다. 그렇게 웃기들만 할뿐 정작 나오는 사람이 없자 녀인은 폐바둑을 못고있픈 사람들쪽으로 돌아서서 역증을 냈다.

《여보, 당신이 성큼 나오시구려. 아래사람들 생각은 도무지 할줄 모른다니까요.》

이윽고 그쪽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다 쾌락하게 해주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드디어 최운소장이 절버덕거리며 나왔다.

《식-사-시-간!》

그는 입가에 해불인 손나팔을 이쪽저쪽으로 돌려가며 호기있게 소리쳤다. 그 웨침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물속에서 나왔다.

물에 흠뻑 젖어 고기비늘처럼 번쩍거리는 그들의 고무옷자락에선 구슬같은 물방울들이 둘둘 굴러떨어졌다. 최운소장은 그들의 한복판에서 유쾌히 웃고 떠들면서 건성건성 걸어오고있었다. 그러다가 무언가 생각난듯 안해를 향해 소리쳤다.

《저-기두 식사를 가져갔소?》

저기란 어딘가 퍼그나 먼곳을 가리키는것 같았다.

《아무렴 수달사냥군들을 잊었을라구요. 방금 류벌빠스에 실어보내고오는 길이웨다.》

반죽중은 녀인은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싱글벙글한다.

(수달사냥군들?)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그러나 더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최운이 나를 알아보고 마치 어린애처럼 경충거리며 뛰어왔던것이다. 어쨌면 나이든 사람갈지 않게 천진한 점을 많이 가지고있는지 몰랐다. 나도 그를 마주 향해 달려갔다.

《아니 기자동무가 어떻게?》

그는 눈이 둥그래서 물었으나 나는 그저 웃어 보이기만 했다. 마침내 그는 짐작이 가는지 이렇게 물었다.

《제말이 잘 믿어지질 않았던 모양이지요?》

《하긴...》

나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수 없었다.

순간 그의 얼굴엔 서운한 기색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사나운 물결과 힘을 거루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모른답니다. 빠스를 타고오면서 얼음을 깨내려가는 우리 동무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난 수달사냥군들밖에...》

《허허, 바로 그 사람들이지요.》

《예?》

《글쎄 누가 먼저 그랬는지 이번 우리의 배길열기전투엔 <수달사냥>이란 랑만적인 이름이 붙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어리석은 사냥군들이 그 피발이집승을 그렇게 우둔한 방법으로 잡겠다고 그랬는지 수달사냥철도 이미 지나갔는데...》

그제서야 나는 벌써 알고도 남았을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것은 다름아닌 수달사냥에 대한 상식이 없었던것임을 깨닫고 그만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아직도 한가지 의문을 풀리지 않았다.

《그 많은 얼음을 까가지구서야 어느 세월에 배길...》

내가 속으로 품어온 걱정을 그대로 터놓자 최운은 빙그레 웃었다.

《아니지요!》

《?!》

《얼핏 보면 한랭전선이란놈이 아직 강을 묶어놓은것 같지만 그놈이 늘어놓고있는 얼음이란게 속살은 없는 <비계얼음>이 대부분이어서 건드리기가 무섭게 푸석푸석 꺼져내린답니다. 우리의 얼음까기전투는 래일중으로 완전히 끝나지요.》

바로 그때였다.

《소장아바이 ! 》 하는 무척 애된 녀자의 짜랑한 목소리가 날아와 돌아보니 키며 얼굴이며 모 든것이 다 동글동글하게 생긴 처녀가 나는듯이 달려왔다.

《소장아바이, 저 수달사냥군조 있잖아요.》

《있잖아요》란 밋지 않은 군더더기로 처녀는 잠깐 숨돌릴 시간을 얻었다.

《그래서?》

최운은 긴장해지며 다우쳐 물었다.

《방금 <누룽소>구간의 얼음을 다 까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래일오전까진 얼음까기를 완전히 끝내겠으니 때무이를 바짝 다그치랍니다.》

《그래?》

그의 입가엔 흐뭇한 미소가 어리였다.

그러나 이 순간에 그는 지기의 직분을 잊지 않았다.

《통계원동무, 곧 달려가서 자동차운전사에게 우리 사무실 뒤마당에 있는 마른 장작을 몽땅 싣고 수달사냥군조를 따라가며 계속 우등불을 피워주라고 하오. 동문 같이 가되 더운 물을 책임지시오.》

《알겠어요.》

거기에 따라가기를 무척 원했던 모양 처녀는 이리로 오던 때처럼 나는데가 뛰어갔다. 미소를 띄고 달려가는 처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최운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섰다.

《이제 숨이 좀 나갑시다만 그날 탄광에서 돌아올 땐 그 <비계얼음>의 내막을 몰라 얼마나 가슴을 조였던지... 난 그때 큰소동까지 일으켰답니다.》

최운은 그때 일이 떠오르는듯 빙긋이 웃었다. 그러자 반죽쥔은 그의 마누라가 우리의 이야기에 끼여들었다.

《그날로 다녀오겠다고 떠난 량반이 하루가 지나 이틀, 사흘이 되어도 안돌아오길래 탄광에 알아보니 거기선 떠났대,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온 작업소가 소동이 나서 펼쳐나설 차비를 하지 않았겠수, 그런데 글썽 왕창갈이 저 령감은 중개보다도 큰 수달 한마릴 잡아서 척 둘러메고 성글병글하며 나타나지 않았겠나요. 그때 어처구니없던 일이란...》

마누라가 웃음을 참지 못하자 최운도 빙긋이 따라웃으며 그때 일을 더듬었다.

《얼음의 두터이와 면적을 조사하느라고 강기슭의 얼음우에 올라섰는데 물속에서 난데없는 수달 한마리가 물고기를 잡아물고 나오질 않았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난 그 수달아란놈을 와락 덮쳐안았지요. 그바람에 워낙 얄팍하게 얼어붙었던 <비계얼음>이 와짜 깨지면서 물속에 퐁당! 했답니다. 그때 물참봉은 되었지만 몹시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한랭전선이란놈의 열은 <속내>를 알게 되었지요. 알먹고 썰먹는다고 수달도 한마리 잡고... 하하!》

그는 한랭전선이 아직 강에 보란듯이 늘어놓고 있는 그 <비계얼음>의 내막을 알아낸것이 못내

유쾌한듯 호탕하게 웃어댔다. 그의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호탕한지 여기까지 오는동안 줄곧 가슴을 조이던 불안은 간곳없이 사라져버리고말았다.

이제야 비로소 그 수달이라는놈이 어떻게 물길을 열기 위한 류벌공들의 벽찬 전투에 감히 개입될수 있었는지 너무도 잘 리해되는것이여서 나는 미소를 금할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웃고있을수만은 없었다. 바로 그때 내 머리속에선 또 하나의 새로운 의문이 댘돌아쳐던것이다.

《소장동무가 우리에게 떼를 물고 내려오겠다고 장담을 하던 그날저녁엔 아직 그 <비계얼음>이라는걸 발견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런 확신성있는 대답을 할수 있었는지?...》

나는 마치 방송야회무대에 나서기라도 한것처럼 이렇게 묻고나서 결코 헛치 않을 대답을 호기심을 품고 기다렸다. 허나 최운을 그 대답이 이미 마음속에 든든히 준비되어있었던듯 너무도 쉽사리 대답하는것이였다.

《그날 왜 기자동무도 듣지 않았습니까. 탄광에 갱목이 떨어져간다면 말을... 그날 갱목토장을 돌아보고나서 어찌나 걱정스럽던지... 글썽 탄부들은 것처럼 열성인데 우리가 뒤받침을 못해줘서야... 그래서 우린 얼음이 풀리지 않으면 얼음을 까고까다가 채 못까면 떼를 끌고서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뿐입니다. 당에서 그렇게도 절절하게 부르는 석탄전선인데 떼를 끌고 얼음이 아니라 산이면 넘지 못하겠습니까!》

순간 내가슴속엔 몹시도 뜨거운것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당에서 부르는 석탄전선이기에 떼를 끌고서 산이라도!... 아, 우리 당을 받드는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의 혈맥처럼 이어져 힘껏 떠밀어주기에 우리의 석탄전선은 장엄한 진군길에서 승승장구하고있구나!)

이 시각에도 탄전을 향해 얼음을 까내려가고있을 《수달사냥군》들이며 젖은 옷자락에서 더운김을 물물 피워올리는 이 류벌공들 모두를 방송야회무대에 올려세우고싶은 크나큰 충동으로 해서 나는 최운부부가 자꾸만 우등불두리의 푸짐한 점심상으로 잡아끄는줄도 미처 몰랐다.

사회주의현실을 뜨겁게 노래하자

-잡지 《조선문학》 지난해 4.4분기에 발표된 현실주제의 시들을 읽고-

최길상

시의 어머니는 생활, 특히 시로 충만된 생활이다. 생활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시가 있고 예술이 있다.

생활에 대한 그리고 그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것에 대한 민감하고 정열적인 응변이며 시대정신에 대한 가장 격동적인 날개이며 가장 매혹적인 생활의 선물이라고 말할수있는 시문학에 있어서 위대한 변혁과 창조적로동으로 들끓는 우리 사회주의현실을 노래하는것은 가장 선차적과제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창작분야에서는 앞으로 사회주의현실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시인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노래하고있다.

그것은 지난해 4.4분기에 잡지 《조선문학》에 발표된 서정시들에서도 확연히 찾아볼수 있다.

이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을 많이 노래하였다는 그자체만을 가지고 만족할수는 없다.

여기에는 귀중한 성과도 있으며 교훈으로 찾아야 할 신중한 문제들도 있다.

성과는 무엇이며 교훈은 무엇인가?

1. 서정시에 비친 사색하는 시인의 모습

다른 모든 문학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시는 사색과 열정의 산물이다. 가장 양양된 감정의 정수를 시형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시인에게 있어서 사색과 열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색이 깊은 시인의 모습은 언제나 시형상에 비껴 나타난다.

한편의 시가 독자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면서 생활의 의의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한다면 참으로 그 시의 주인은 사색하는 시인으로 될것이다. 시인의 사색의 심도는 시의 여운의 깊이를 규정해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는 우리의 혁명적현실을 노래한 시들을 통하여 시대정신의 강렬한 울림을 느낄수 있고 주체형의 인간들의 생활감정을 터득할수 있을 때 그리고 시의 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갈 때 그 시는 성공한 시라고 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는 사람들이 시의 세계에 끌려들어가 사색할수 있도록 깊이가 있어야 하며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시의 세계에 끌려들어가 사색할수 있는 깊이있고 감동이 있는 시는 레외없이 동시대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시적으로 진실하게 개방하여 노래하고있다.

서정시 《탄부》(정성환 11호)는 서정적주인공-탄부의 내면세계를 80년대의 시대적높이에서 일 반화하여 노래한 비교적 좋은 시이다.

해빛과 불빛이
시작되는 갯구에서
길은 돌로 갈라졌네

갯을 나온 탄차는 세월을 싣고
하늘과 땅과 함께 달려가네
래일로
모래로
광활한 미래로

우리도 여기서 갈라졌네
불빛아래 착암기와 함께
어제로
그제로
아득한 태고로

해빛과 불빛이 갈라지는 갯구에서 《광활한 미래》와 《아득한 태고》의 세월을 맞는 탄부의 길, 맘모스의 뼈가 묻힌 시대를 거쳐 아름답리 고 사리가 화석으로 남은 탄벽을 밀며 너무도 짧은 나날에 수억년의 세월을 거슬러올라가야 하는 그 길은 얼마나 장하면서도 궁지로운 길인가.

그래서 탄부는 자부에 넘쳐 흥에 겨워 세상에 대고 말한다.

옷을 축축히 적시는 물
땀인지 석수인지 우리는 잘 모르네
고생대가 물어둔 보화를 안아다
조국의 바퀴를 돌려야 하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때면

그래서 벼들에게 편지를 써도
석탄 묻은 이 손자욱 찍어보내고싶다네
그래서 방문을 열 땐 안해에게도

즐겁게 호통치고싶은거라네
오늘은 별로 목이 켄겄하다고

고생대가 물어둔 보화를 안아다가 그 탄부가 돌리는 조국의 바퀴 ! 그것은 산악도 진펄도 헤쳐넘으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가 빛나게 실현될 그 미래에로 힘차고 장엄하게 달려가는 80년대의 거세찬 진군이 아니겠는가.

그 진군의 바퀴를 돌리는 탄부의 모습이 얼마나 소박하면서도 호방하게 그리고 친근하면서도 정답게 우리에게 안겨오는것인가.

그렇기때문에 이 시에서 종횡무진으로 서적환상을 펼치며 《바깥세상 꽃피우는 불타는 태양, 그 태양의 심지와도 같이 한치, 또 한치 탄맥에 뿌리를》 박는다고 한층 높이 승화된 서정적주인공의 토로를 진실한 감정으로 감수하게 된다.

이 시는 지난날 탄부들의 생활을 노래한 일부 시들에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주도적인 감정을 추상적인 일반성속에 융해시켜버림으로써 개념과 론리와 앙상한 로출을 초래하던 부족점을 현저히 극복한 좋은 실례이다.

시는 시적정황속에서 발로되는 탄부의 행동과 사색에 서정적형상의 초점을 집중시키며 그러한 행동과 사색을 지배하는 주도적인것을 노래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는 명백한 시대정신의 구현을 보게 되며 그것에 기초한 행동적인 사색의 토로를 감동깊게 느낄수 있다. 다시말하여 이 시는 사색하는 서정적주인공, 우리 시대의 탄부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개방하여 노래하고있다.

이것은 시인의 사색의 깊이와 높은 지성적인 세계의 결합에 의해서만이 이룩될수 있는것이다.

이 량자의 통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서정적형상, 그것이야말로 독자들을 깊은 사색의 세계로 이끌어가며 감동을 줄수 있는것이다.

시의 형상을 통하여 사색하는 시인의 모습을 독자들속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진 시인들속에서 보게 되는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것은 우리 시문학의 양양한 전도가 힘있게 담보되고있다는데서 더욱 기쁜 일이다.

그러나 결코 만족해서는 안된다.

시 《탄부》에서도 아직 함축할 여지가 있고 세련시켜야 할 빈구석이 있다. 특히 6련의 마지막 2행인 《심장을 바친다는 말보다 결음으로 조국앞에 맹세를 다지며》 같은것은 필요없는 군더더기이며 또 그 뜻도 잘 리해되지 않는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두련의 결구를 감정의 밀도를 높여 감칠맛있게 함축하여주었다더라면 더 사색적이고 여운있는 시로 되었을것이다.

한련, 한행, 한개의 표현과 토에 이르기까지 사색을 기울여쓰자, 사색을 게을리하거나 조금이라

도 늦추면 그만큼 시적여운은 사라져버릴것이다.

시 《탄부》에서 사색하는 우리 시대의 평범한 탄부의 지성깊은 내면세계의 개방을 보았다면 《조선문학》 10호에서는 북부철길공사의 장엄한 화폭속에서 시대의 음향을 듣게 된다.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창조물인 북부철길, 북방의 깊은 산 계곡에서 포호하는 대자연의 횡포와 단말마적인 아우성을 짓누르며 장설우에, 돌얼음우에 두줄기 조국의 궤도를 새겨가는 북부철길공사장은 그대로가 시이며 노래이다. 그것도 시대의 맥박과 장엄한 선율이 격정적으로 화합하여 울리는 대교향악이다.

우리 시인들의 심장의 빅동도 시대의 맥박속에 세차게 고동친다. 하여 북부철길 건설장으로 위훈의 창조자들을 찾아온 시인은 극들과 함께 시와 노래를 새겨간다.

내 어찌 먼저 펜을 들라
나에게 다오
그 삼을, 그 정대, 그 쇠메를
그대들 그 무기 붓으로 삼고
벌써 조국의 산야에 강하에
불같은 노래를 새겨오지 않았던가

나에게 다오
당의 뜻 꽃피워온 그 나날들에
청춘의 땀과 맥박 스며배인
혈육마냥 정들었을 그대들의 무기
잡기만 해도 툭툭 피가 통할
그 열정의 무기를

(시 《나에게 다오》 리효신)

북부철길 열혈의 청년들이 쥐고있는 그 무기는 그대로 조국땅우에 전변의 노래를 수놓아가는 창조의 붓이다.

이 시에서는 시인과 청년건설자들의 심장이 하나로 고동치며 붓과 정대와 쇠메가 하나로 융합되어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시는 순 서정적인것과 선동적인것의 한계를 구별하지 않으면서 시의 호소성을 강화하고있다.

좀 거친듯한 인상이 있거나 시가 격동적인데만 포로되어있지 않고 시대의 맥박과 시인의 지향을 일치시킬수 있는것은 시적사색의 결실인것이다. 그래서 이 시에는 우리 현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감정이 굵실대는것이다.

서정시 《미소》(서동린)는 다른 측면에서 시적사색을 깊이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부름 받들과 북부철길 건설장에서 값높은 청춘을 바쳐가는 한 처녀- 서정적주인공은 지금 보람찬 하루일을 끝내고 땀에 젖은 머리

를 시원히 감고 강가에서 노을을 안고서서 탐스럽게 검은 머리를 고이 빗어넘기며 그윽한 미소를 짓고 있다. 또 하루 굶이쳐간 로반, 산허리를 감아돌고 아아한 절벽턱을 누벼가며 멀리도 뻗어간 그 철길우에 눈길을 떼지 못하며 한껏 짓는 처녀의 미소! 지금 처녀의 미소는 무엇을 말해주며 그 피어나는 미소속에 어떤 꿈과 념원, 기쁨이 어려있을가?

헐치 않은 나날을 두줄기 철길로 남겨놓고
그우에 미소를 실어보는 처녀
내 정녕 무엇을 묻고 말하라
처녀의 소리없는 미소
내 듣고싶은 말 다 하고있는데

더 묻지를 말자! 그 미소속에는 정다운 일터 그리운 동무들과 헤어져 여기 북방으로 달려오던 날 꽃다발 안겨주며 바라던 그마음들에 부끄럼 없이 대할수 있게 된 그 궁지가 어려있는지, 아니면 고향의 동구길에서 몸성히 일 잘하여 다시 오지 못할 줄어 한때를 값있게 살라고 당부하던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저 철길우에 새겨보는것인지... 그렇다. 그 미소속에 이 모든것, 당과 수령의 원대한 뜻이 꽃핀 룡성부강하는 조국의 북변에 높이 울리는 기적소리가 은은히 메아리쳐오고있지 않는가!

이 시는 4련밖에 안되는 짧은 시이다. 하지만 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시대의 미를 한껏 체현한 처녀의 아름다운 미소를 새겨주며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더우기 처녀의 그 마음속에 실의 랑만이 뜨겁게 파동치고있어 더욱 좋다.

우리 시대의 혁명적랑만은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고있는 우리 사회주의현실을 노래한 시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는 색조이다.

이것은 합법적적인 현상이다.

우리 인민들의 영웅주의가 전면적으로 발휘되고있는 거창한 현실은 우리 시문학에 혁명적랑만의 빛깔을 농후하게 부여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작품에 있어서 혁명적랑만성의 체현은 주객관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먼저 생활자체속에 혁명적랑만의 원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혁명적랑만은 혁명적리상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되며 투쟁속에서 발휘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꿈과 위훈에 직접 련결된다. 스스로 밝아오는 새벽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그 새벽을 앞당기며 전취하기 위한 투쟁과 위훈, 그 위훈속에서 밝아오는 새벽- 이것은 혁명적랑만성의 생활적토대이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혁명적랑만성으로 충만된 작품에서는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불멸의 위훈을 발휘하고있는 주체형의 인간들, 청춘의 값높은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우리의 청년건설자들이 그 중심에 확고히 서있다. 그런데 우리의 거창한 사회주의현실은 이

러한 시대의 랑만을 체현한 주인공들을 대중적으로 배출시키고있으며 위훈의 역사를 창조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노래하는 우리의 시인들은 다만 현실의 관조자가 아니다. 우리 시인들은 자신이 주체위업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확고한 신념으로 략관하고있다. 그들 역시 시대의 혁명적랑만의 체현자들이다.

시대의 혁명적랑만은 객관적인 생활토대와 함께 그 랑만을 체현한 시인의 주관적인 조건우에서만 꽃필수 있다.

시 《개통렬차 달리는 그날에》(권태여 10호)에서는 생활이 그대로 랑만인 청년건설자들의 지향에 대한 열렬한 찬양의 감정이 격동적인 음조를 띠고 파동친다.

옛말하며 돌아가자
개통렬차 달리는 그날
훈장과 메달을 절령거리며
오늘에 못다한 이야기 그날에 나누자

서로 다투던 승벽도
그날엔 끝을 보고
서로 숨기던 사랑도
그날엔 터놓고 다 말하자

이것은 단순히 조국의 만년대계의 창조물이 완성되는 그날에 차레질 명예나 보수를 바라는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자기 투쟁에 대한 신심,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뜨겁게 굶이치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신념이 굳센 청년들이기에 한지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면서도 젊은 날의 꿈을 나누며 미래를 그리었고 로반을 막아서는 천길 아득한 벼랑끝에서 허리바를 걸기를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던가.

아, 짧지 않은 세월의 눈비를 맞으며
이 철길에 바친 청춘을 두고
온 조국이 자랑하는 이야기
표창보다 더 뜨겁게 들을수 있는
땃땃한 영웅이 되어 다 같이 돌아가자

우리들 위훈의 역사를 수놓아가는 청년건설자들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꿈과 그 미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대한 열렬한 공감에서 이 시의 혁명적랑만의 구현과 함께 현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음조를 느낀다.

이와 같이 시에서 시대의 랑만을 구현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생활과 인간을 가장 선명

하고 강렬한 음조로 강조하고 확인하면서 혁명적인것속에서 서정의 세계를 찾으며 영웅적인 기백과 광활한 미래의 전망을 독자들의 심장속에 안겨준다.

서정시 《하늘엔... 땅우엔...》(박철 10호)은 다른 측면에서 시적체험과 사색의 깊이를 보여주고있다.

시는 극히 순간적이면서도 매우 인상적인 한 계기를 붙잡고있다.

조국땅을 살찌우고 넓혀가는 간석지건설의 하루일을 끝내고 노래하며 이야기하며 우리의 주인공들이 떠들썩 제방길에 오른 무렵 하늘중천 저 멀리로 기러기떼들이 어디론가 날아가고있다.

이것은 혹 그저 무심히 스쳐버릴수 있는 풍경이다. 하물며 철이 바뀌는 때에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계절조의 날음인데야 있을수 있는 평범한 풍경으로밖에 느낄수 없지 않는가. 그러나 대자연개조의 건설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그들의 생활에 깊이 침투한 시인에게 있어서는 그저 스쳐버릴수 없고 놓칠수 없는 감동적인 풍경이다.

하늘엔 계절을 따라 기러기떼들이 바삐 날아가지만 무연한 간석지에 꿈을 날리며 땅우에선 고향의 동구길처럼 돌격대원들이 제방을 따라 즐거이 가는것이다.

아, 어이 알수 있으랴 하늘의 기러기야
당이 부른 간석지
바다제방 그리고 소수가
청춘들 삶이 나래편
따뜻한 계절이 숨쉬는곳인줄

하늘엔 드바삐 날아가는 기러기떼
땅우엔 활기로운 돌격대의 흐름

이것은 당이 부르는 한길에서 청춘의 심장으로 조국땅에 숨결을 주며 삶을 꽃피우는 청년건설자들의 보람찬 로동에 대한 레찬과 함께 살찌고 부강하는 조국의 새날을 구가하는 감동적인 화폭이다. 계절을 따라 하늘을 드바삐 날아가는 기러기떼들과 사랑으로 닦을 내린 땅에 이 저녁도 바람찬 바다길을 즐겁게 가는 대조적인 풍경은 마치도 그 어떤 풍량사나운 망망대해속에서도 변함없이 드팀없이 신념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심장과도 같이 독자들의 심장에 파동을 일으킨다. 시의 흐름은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과도 같이 환희롭고 청년동격대원들의 감정그대로 락천적인 감정과 기백을 담고있다.

이것은 거창한 창조와 숨결이 세차게 높뛰는 간석지건설장에 몸을 푹 잠그고 우리 시대 인가들의 생활과 내면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을 뜨겁게 체험하고 시적감정을 축적한 시인이 여기에서 자기의 본바탕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는것을 동시에 말해주고있다.

우리 시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안고 사색과 열정을 불태우는 시인의 모습을 시 《그날의 그 발걸음으로》(리동렬 12호)에서로 찾아볼수 있다.

사는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그 열정, 그 기백을 안고 계속 박차를 가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민감하게 반영하고있다. 여기에서 시인의 사색과 열정은 당의 사상과 함께 불타고있다.

뜻깊은 혁명적명절을 맞는 해를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해로 장식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구호를 받아안고 달려온 벽찬 하루하루는 참으로 빨리도 지나갔다. 8월과 10월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서정적주인공은 그 감격을 흐뭇함을 누릴수 없다. 그러나 그 기분에 들떠있음을 서정적주인공은 자각한다.

아직도 12월은 앞에 있고
해야 할 일 많고많은데
내 잠시나마 순간이나마
비둘기를 키우는 재미에
공부할 생각에 까맣게 잊곤하던
그 철부지시절의 아이가 된적 없었던가

이러한 시인의 목소리는 당사상선전의 전초선에서 서있는 시인, 당의 가수로서의 우리 시인들의 면모를 단적으로 말해주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시인들의 사색과 열정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요구에 민감하면서도 뜨겁게 공감하며 당의 위대한 사상의 선전선동가로서의 근본사명에 맞게 기울어지고있다는것에 대한 확증으로 된다.

물론 이 시가 계속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부단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시사적인 측면에서만이 긍정할바가 있다고 하는것은 아니다.

이 시에서는 당의 사상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노래하는 시사성과 함께 시적인 사색과 열정의 산물로서 그 시사성을 문제성으로 승화시켜 감동적인 시형상을 창조하고있다.

때로 시인은 큰 경사를 맞이하고난 감정을 《어머니 손목잡고 해종일 명절놀이 즐기곤한 아이》의 심정에 비겨보기도 하고 《애지중지 키워온 막내딸》의 잔치를 치르고난 늙은 부모의 심정에 비기기도 한다. 얼마나 자연스러운 생활적감정인가.

시는 이 축적된 생활적인 감정을 한시도 손뻐를 놓을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와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노래하면서 그것을 당과 수령께 다진 맹세

를 실현하기 위한 《오직 그날의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상정서적주장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비단 뜻깊은 8월과 10월에 맞이한 지난해에만이 아니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우리 인민이 계속 견지해야 할 투쟁원칙이며 혁명적일본새이다. 이러한 사상을 정서적으로 천명하고있음으로 하여 시는 시대정신을 체현하고있으며 시대성만이 아니라 문제성으로 승화된 사상을 뽐내고있다. 이와 같이 시의 시사성은 시대의 지향과 념원을 깊이있게 반영하는 시적형상속에 약동하는것이다.

시인의 사색은 언제나 당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그에 토대하여 내려쳐야 한다. 이것은 당적시인, 당의 가수로서의 우리 시인들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며 우리 시인들에게 차례진 커다란 행복이다. 위대한 사상에 기초하지 않은 참다운 예술적사고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인의 예술적재능은 위대한 사상에 토대를 둘 때에만 꽃필수 있으며 빛을 낼수있다.

우리 당은 시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상의 날개를 달아주고 정확한 목표를 정해줌으로서 시인들로 하여금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사색과 열정을 마음껏 기울이며 그 목표에 이를수 있는 지적형상을 자유분방하게 창조하게 한다.

이것은 우에서 레증한 몇편의 시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사색과 열정을 기울임으로써 시대적지향을서정적으로 밝힐수 있었다는것만을 두고도 족할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시들이 널리 독자들속에 알려지지 않은 신진들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것이 더 큰 기쁨을 준다. 물론 우의 시들에서도 아직 채 정제되지 않은 감정의 란발, 정확한 시적구도가 없이 산발적으로 내뿜는 걱정의 로출, 정확치 않은 시어의 구사, 산문화 등 극복해야 할 점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생활,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시대를 노래하려는 시적사색의 깊이있는 흔적, 시인적인 열정, 당의 가수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는 그 진지한 시적탐구정신을 우선 값높이 받아안고싶으며 긍정하고 싶다.

이것이 앞으로의 시문학발전에 긍정적추동력으로 되리라는 희망을 표시하면서...

2. 현실을 뜨겁게 포옹하자

현실에 대한 진실한 체험, 생활의 진실이 시를 낳는다.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시를 훌륭히 창작할수 있게 하는 가장 선차적인 요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생활을 깊이 체험하며 그속에서 아직은 깊어 숨어있는 생활의 의의, 생활의 철학을 서정적으로 해명하는것이 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구보다도 작가들이 현실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체험하여야 합니다. 작가들이 생활을 깊이 있게 체험하여야 자기가 보고 느낀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다는 충동을 받고 붓을 들수 있습니다. 작가들이 생활을 깊이 체험하고 붓을 들 때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당은 시인들이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풍부한 서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실을 체험하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게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시인은 항상 시의 발아를 위하여 비옥한 토양과 맑은 대기를 준비하고있어야 한다. 비옥한 토양이란 다름아닌 시인의 풍부한 생활체험이며 맑은 대기는 바로 시대의 정신에 상응하는 시인의 사색이다.

시인의 창조적상상도 결코 공허한 머리에서 내려칠수 없다. 그것도 생활속에 뿌리를 박고있으며 생활의 진실에 뿌리를 박고있다. 결국 시인의 사색과정은 그가 체험한 생활속에서 귀중한 생활의 의의, 그 《뜻》을 서정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활을 체험하는 시인에게만이 생활은 시대의 메아리를 울려줄것이며 현실에 대한 시인의 포옹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생활은 온갖 《비밀》을 다 속삭여줄것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생활과는 외면하고 물 위에 뜬 기름처럼 현실의 결면을 배회하면서 생활을 도해하는데 그치고마는 시인들이 있다는것을 상기시켜야 할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은 지난해 4.4분기간에 《조선문학》에 발표된 현실주제의 일부 서정시를 열거하는것만으로도 충분할것이다.

현실주제, 특히 우리 인민들의 사회주의건설투쟁을 노래한 시들에서도 다른 주제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고심과 논의가 거듭되었다.

여기에서 항상 논의의 초점으로 된것은 사실과 련과 생경한 구호의 평행을 극복하는 문제였다. 그리하여 현실주제와 관련된 서정시들에서 시인의 사색과 개성적인 얼굴대신에 사건과 계기만이 보이며 우리 시대 인간들, 시인의 심오한 내부적체험대신에 허공에 뜬 추상적구호와 요란스러운 수식어만이 범람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부단히 진행되여왔다.

이 과정에 우리 사회주의현실의 참다운 미를 다양한 서정으로 밝혀내는 진실한 목소리들이 힘차게 울려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아직 현실

주제의 시들에 대하여 이미전부터 논의해오던 문제들을 다시금 되풀이하여 제기하게 되며 우리의 현실에 대한 시인의 내부적체험문제를 초미의 문제제로 다시 제기하게 된다.

우리의 현실을 뜨겁게 대하지 않고 현실에서 체험하고 느낀것을 시대앞에 말해야겠다는 시적 충동, 자기 심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쓴 시들의 공통된 결함은 판에 박은 개념의 생경한 로출이다.

시 《당의 기수》(리의석 12호)는 리당비서의 사업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해놓는데 그치고있으며 시 《땅과 함께》(리동후 10호)는 시적인 초점이 없이 분렬된 감이 있다. 이러한 시들에서 시인이 무엇에 흥분하였으며 시적충동을 받았고 어디에 사색과 열정을 기울였는가 하는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그만큼 이 작품들은 론리화되고 개념화된 상식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역시 시 《황금산》, 《대학이 오네》(차명문 11호)도 현실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애정에 기초한 깊이있는 시적 체험과 탐구 그로부터 출발되는 시적흥분과 열정을 느낄수 없으며 사실의 전달과 설명에 그치고말았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 없으므로 이미 많은 시들에서 노래된 내용을 반복한듯한 인상이 있어서 새로운 시적정서를 안겨주지 못한다.

동일한 주제, 흡사한 상을 가지고도 시인은 어디까지나 자기류로 생활의 진실을 노래하여야 하며 독특한 자기의 경지를 개척해야 한다.

이러한 시들에 대하여 련을 꼬집어 분석을 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에서 말한 시들의 부족점을 그대로 가지고있는 시 《끝은 길》과 《조국의 진군길》(문기창 11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시 《끝은 길》은 언제나 송전선을 따라가는 선로감시원의 이 길이 당을 따라 삶의 길을 가는 하나의 끝은 길이라는것을 노래하고있는데 이러한 사상이 시형상을 통하여 울려나오지 않으며 선로감시원이 걸어가는 행로에 대한 소묘에 그치고있다. 또한 여기에는 아무리 음미해도 뜻이 통하지 않는 시련도 있다.

이 땅우에 굽이굽이
갈래많은 길은 아니

누구나 걸어가는
평탄한 길은 아니

설명조로 된 시련에다가 어법상으로도 맞지 않게 인위적인 톨조로 조성해놓는것으로부터 첫 련을 떼고 있고있으니 여기에서 시인의 창조적노력

을 엿볼수 있겠는가.

시 《조국의 진군길》은 우의 시보다도 더 개념화되고 추상화되어있다.

한생을 철길우에 바쳐가는 순회원이 짧은 기관사의 눈길을 보면서 전시수송을 보장한 전우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철길우의 정시는 멈춤이 없는 조국의 전진》이란 말을 되새기며 감정을 토로하고있는데 시적계기도 명확치 않고 초점도 없으며 전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다 회화하고있는데 정서가 통일되지 못하고 산만하다.

시는 단순히 의무감이나 실무적요구에 의하여 쓰는것이 아니다.

심장의 울림으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것, 이것이 참다운 의미에서 시창작인것이다.

시인의 심장에서 시대의 맥박이 고동치려면 시인은 언제나 시대와 함께 사색하고 숨쉬고 온 시대를 자기 심장에 그려안고있어야 한다.

바로 이 모든것을 담보하고 조건지어주는것, 그것은 생활에 대한 뜨거운 포옹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현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그에 부단히 접촉하고 침투하는 과정에 생활이 시인에게 속삭여주는것을 귀담아듣는데서 시적충동도 사색도 촉발되고 깊어지며 그에 적응한 호흡과 걸음걸이가 흘러나온다.

자기자신의 심장으로 느끼고 사색하며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자. 생활의 진실보다 자기의 목청을 가다듬는데 매력을 가지는 경향과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질없는 말재주를 부리는것과 같은 경향들과 결별해야 한다.

아울러 강조하고싶은것은 지난해 4.4분기에 발표된 일부 시들에서는 민족적 정서와 향취가 덜 풍긴다는것이다.

아직 일부 시들에 남아있는 생경한 번역시와 같은 어휘구성, 우리의 호흡과 어울리지 않는 격조, 우리의 사고방식과 어긋나는 시구절의 분행 등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할것이다.

이상에서 《조선문학》(1985년 4.4분기)에 발표된 현실주제의 시들을 일괄해보았다. 최근 현실을 반영한 서정시들에서 생활적인 소재의 선택과 다양한 정서의 개방 그리고 시인들의 얼굴이 작품마다에 뚜렷하며 그 목소리가 개성적으로 울려 퍼지는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것은 시인들이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여 생활의 진수를 시적으로 사색하며 료해하며 형상화하는 능력을 가졌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일반화하고 부족점을 극복하여 주체적인 시문학의 화원을 다채롭게 아름답게 장식하자.

그는 살아있다

김조규

사람들은 저마다 걸어오는 인생행로에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에 부딪치게 되며 각양각색의 인물들과 만나게 된다. 그중에는 세인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도 있고 소박한 보통사람들과의 평범한 대화도 있다. 그 사건들과 인물들이 우리 곁을 지나 과거로 되었을 때 어쩌면 먼밀히 계획하고 조직한 사건의 전후전말이나 또는 해를 거듭하여 오래 사귀어 인물들의 이름마저 잊어버리는가 하면 하루밤 묵고가는 러관호실이나 달리는 열차칸에서 잠시 만나 주고받은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도 기억속에 오래 남는것도 있다.

우리는 많은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생활의 교훈이 되고 귀감이 될 그런것들은 우리의 두뇌에 확고한 의식으로 굳어져 깊이 저장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생활경험이라고 부른다. 조국해방전쟁 전선 천리길의 산과 강, 고지와 전호에서 얻은 이 생활경험의 토막토막들을 분식없이 과장없이 재현하는것으로 나의 종군수기를 시작하려는데 그날에 헤어져 다시 만나지 못한 전사들과 지휘관들, 그리고 못다한 자기 일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지금은 소백산줄기 어느 이름모를 나무그늘이나 락동강기슭언덕밑에 누워 잠들고있는 그 사람들이 이 졸렬한 수기의 글줄과 장에서 다시 만난다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기쁨 또한 큰것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인민속에서 나온 수많은 우리 영웅들의 형상을 묘사하여야 하겠습니까.》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파견장을 받아안고 내가 군복을 갈아입기 바쁘게 평양을 떠난것은 1950년 6월 27일이였다. 강원도 김화에서부터 항일투사 ×××동지가 지휘하는 775군부대 전사들과함께 락동강을 건너 경상북도 영천을 해방하기까지 녀달나마의 낮과 밤은 활줄처럼 팽팽 씌운 고도의 긴장성과 흥분, 삶과 죽음의 계선이 명확치 않은 생활의 지속이였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 가슴뜨거워지는 추억속에 수많은 다정한 이름들과 얼굴들이 떠오른다.

새로 입대하여 회령에서 훈련을 받다가 제식훈련도 채 끝내지 못하고 조국의 운명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오자 용약 전선으로 달려나온 18세 전후의 나 어린 전사들이 거의 그 전부였다. 말하자면 아직 이마의 솟털이 보수수하고 엄마품을 그리워 할 애송이 훈련생들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그런데 나 어린 이 동무들이 전설속의 거인장수보다도 더 큰 힘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피로 물들인 백여년 침략전쟁사에서 패배를 모른다는 미제침략무력을 단매에 때려죽이는 새로운 전설을 창조한것이다.

려주도하작전에서 사수가 쓰러지자 중기를 둘러메고 비탈치는 탄우속을 달리어 적진 중심깊이 들어가 중형무진으로 갈겨 적 한개 소대성원을 섬멸한 부사수 안제남, 음성 가무제싸움에서 적의 포탄, 폭탄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쏘구역》에서 부상당한 전우들을 애기다루듯 선뜻선뜻 업어 산자락감나무그늘에 대피시키던 간호장 박기춘(전선시 《간호장 박기춘》, 춘천해방을 위한 소양강 첫전투에서 우박치는 탄우속을 비호처럼 앞서달려 다리를 끊으려고 매몰한 폭발물을 해체하여 부대의 진격로를 연 중대장 윤충현, 부흥리 농촌부락에서 소대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던중 적의 포위에 걸려 위급한 순간 다신 따바리를 휘갈기며 적진으로 달려들어 소대의 퇴로를 열어준 리상태... 기억에 남는 이름들만도 이루 헤아릴수 없는데 하물며 하늘의 별무리처럼 많은 무명의 영웅들에 대해서야 더 무슨 말을 하랴.

나의 전선시집 《이 사람들속에서》의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동무들이였다.

...

부대 문화부(정치부)에 한동완이라는 겸허하면서도 과묵한 중사 한동무가 있었다. 이 동무와 내가 초면인사를 나눈것은 남한강물이 도시를 감싸듯 굽이도는 려주해방전투때였다. 여름 한낮이 울기 시작할 때 작전도하를 앞둔 전투는 치열하였다. 우리 포들이 쏜 포탄들이 노호하듯 찌르륵 칙칙 소리를 내며 강건너로 날아갔고 대안에 었드린 적의 영구화점에선 중기 경기가미친듯 짙어대고있었다. 중기 경기 보총의 사격소리가 문자그대로 남비속의 쿵북듯하는데 우리 중기들이 여울목에서 더욱 노한것을 보니 아마 강을 타고 건널 차비인상 싶었다.

언덕을 등에 지고 대술에 었드린채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황을 살피던 나는 취재의 직업의식으로 도하시간을 기록하려고 팔소매를 걷었다. 《응?》 손목시계가 잠자코있었다. 아침에 밥주는것을 잊은것이였다. 그래 네댓메터 떨어진곳에 었드려 있는 한 전사를 불러 《동무, 지금 몇시나 됐소?》하고 소리쳤다. 그 전사는 힐끗 고개를 돌리더니 군복웃주머니에서 흰수건을 꺼내 풀어보며 말했다.

《다섯시 10분입니다.》

시답지 않게 대답한후 전사는 시계를 정성스럽게 도로 싸넣으려 하였다.

《동무, 거 회중시계 아니요? 싸움판에 요란한 명물을 안고다니누만.》 하고 룡조로 건네니까

《망돌보다 더 무겁고 소중한거지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저 그렇다는거랍니다. 내겐...》

머리위로 적의 105밀리포탄이 쾅하는 깨여지는 남비소리를 내며 지나가는통에 나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땅바닥에 박았다.

《저건 눈먼 소경이랍니다. 나를 쏘라 하고 앞가슴을 내밀어도 뼈뚜루 날아가지요.》

《동무 대단한데... 전투경험이라도 있는듯이.》

《약간 거쳤지요.》

《거쳤다? 허- 그런데 그 망돌시계 좀 구경하지요.》

《그래두 이 망돌이 런던 그레니치천문대보다 더 정확하지요.》

하며 풀어주는것을 보니 《씨마(CIMA)》 상표가 박힌 스위체거였다.

《꽤 쓸만한거군.》

《쓸만한게 아니라 우리 집에선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보>랍니다.》

《<가보>라?》

《<가보>지요. 컴컴한 숲구이막에 시계라는 현대문명이 처음 비쳐들어온것인데요. 아버지가 명주비단보에 소중히 싸서 께속깊이 간직해두었던것인데 내가 군대에 입대할 때 어머니가 쥐여주며 <이 시계를 준 사람들처럼 조국을 위해 장군님을 위해 부끄럼없이 싸우라>고 하셨거든요.》

《시계를 준 사람들처럼?... 무슨 사연이 있구만.》

나의 취재의식은 머리를 들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머리위로 날아오는 켄지는 금속성에 중단되었던 대화는 잠시후에야 이어졌다.

《어디 그 이야길 좀 들어보자구. 난 종군작가야.》

《다 알고있습니다.》

《알구있다?》

《문화부에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긴 이판에서 어울리지 않고 좀 긴데요.》

《긴건 잘라먹으면 되지. 꼭지부터 떼봐.》

《꼭지를 어디서 떼냐?》

기웃거리며 망설이기에 나는

《아무데서나 떼고볼판이지.》 하고 허물없이 계속했다.

《그렇게 합시다.》 그는 씨원스레 한마디 하더니 《...난 중국 동북 이역태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오랑캐령을 넘어 가닿은곳이 쏘련과 접경한 훈춘파이었습니

다. 아버지는 지주의 뽕기밭으로만은 집안식구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어 겨울이면 산에 들어가 솥을 구어 살림을 보냈는데 나는 그 솥가마앞에서 첫걸음마를 뽕셈이지요.》 하고 허두를 떼는것이였다.

《솥검댕이와는 아주 각근한 사이겠구만.》

《놀이감이라기보담 아주 친한 동무였지요. 지금도 솥을 보면 이건 무슨 나무솥인지. 익은건지 선건지 제격 알아맞추지요. 그런데 내가 아홉살 되던해 부자집 애들은 학교에 다니지만 나는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해따라 눈이 많이 내려 숲속의 오솔길도 키를 넘는 적설에 묻혀 솥구이막엔 소금도 떨어지게 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더러 마을에 내려가 소금을 얻어오라고 하여 마을에 가서 간신히 소금을 한사발 구해가지고 돌아오는길이였습니다. 동리에서 벗어나 앞가슴으로 장설을 헤치며 노루목꿀짜기에 들어섰는데 눈을 몸뚱이로 쓸다싶이 기여간 자리에 붉은 피가 툭툭 흘러떨어져있지 않아요? 멧에 맞은 산짐승이 빠져나와 흘린 피자국인가 생각하며 따라가보니 후미진 바위돌밑에 <앗!>, 총을 앞가슴에 움켜쥔 어떤 사람이 쓰러져있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무서웁까지 겹쳐 어떻게 어느 길로 뛰여 솥구이막까지 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길잡이가 되여 노루목꿀짜기까지 되돌아왔을 때는 개꼬리같은 겨울해가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앞드린 사람의 코밑에 손을 대여본 아버지는 나에게 <숨이 있군... 너 앞서라>고 재촉하며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솥구이막까지 돌아왔습니다. 물을 끓여라 소금물을 타라 하면서 서두는데 업히여온 사람은 죽었는지 의식을 잃은채 꿈쩍 못하고 누워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소리로 <아닌 총소리가 몇차례에 나더니... 개놈들, 생사람을...>

하면서 날보고 <이분은 항일유격대원이다. 여기와있다는걸 입밖에 내선 안된다. 누구에게도 절대로.》하고 오금을 박는것이였습니다.》

나는 귀가 번쩍하여 되물었다.

《뭐? 그 사람이 **김일성** 장군님의 유격대원이란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른쪽 허벅다리와 아래배에 총알이 두알이나 뚫고나갔지요.》

한달너머 그 유격대아저씨는 우리 솥구이막에서 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이제는 작대기를 짚고 바깥출입도 하게 되던 음력설을 며칠 앞둔 날이였습니다. 전에없이 느릅나무가지에서 까치가 요란하게도 우짚어대기에 누가 오나 하고 나가보니 글썽 어찌된 일인지 눈을 헤치며 솥구이막쪽으로 총멘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열은 넘어보였습니다.

<토벌대>인가? 아니면 경찰놈들인가? 어디서

냄새를 맡았을가…》

대화는 또 중단되었다.

우리 중기의 격노한 불길이 세차게 내뿜고 강을 건느는 우리 동무들의 환성이 강산을 삼킬듯 울려왔다. 짓어대던 적화점도 입을 다물었고 우리 포는 거리우를 넘어 멀리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도하는 성공했고 적은 도망치고있었다.

그 전사는 《에익, 저걸 눈앞에 보면서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두더지처럼 여기 엎드려 이게 무슨 꼴이람? 허 참- 뒤꼬리라두 바싹 따라서야지.》라고 투덜거리며 일어서더니 《나 먼저 갑니다.》고 한마디를 남기고는 사라졌다.

환성으로 울리며 대렬을 짓다실이 강을 건느는 부대와 함께 나도 가슴을 치는 여울목을 헤엄쳐 해방된 러주시내로 들어갔다.

정치일군의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우선 전화를 피하여 산속에 들어간 피난민들을 불러내어 생활의 자기계도에 올려세워야 했고,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도덕적우월성을 알려주어 리승만피뢰로부터 받은 반공의식을 고쳐주어야 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손길아래 진행된 토지개혁의 본질과 그 생활력을 해설해주는것이요, 특히 미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음폐된 교활성과 포악성을 폭로하여 승미공미사상을 깨뜨려주어야 하는것이였다.

나는 한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누구도 담보할수 없는 전투환경에서 《망돌시제》의 주인과 헤어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에서 중단된 이야기는 끝맺지 못할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보리밭머리에서 밤을 함께 지새우게 된 생각지 않은 두번째 상봉으로 하여 담화는 다시 이어졌다.

보석상자를 열어제낀듯 하늘에 별이 총총 빛나는데 우리는 나란히 누워 북두칠성을 함께 찾고 있었다.

《작가동지, 우리 집은 저 칠성별밑이지요.》

《정말, 동문 동북 훈춘이 고향이라고 했지. 나 두 해방전에 간도에서 살았다우. 조양천에서… 훈춘에두 가보았지… 집엔 누가 있지?》

《어머니 한분이 누이동생을 데리구있었는데 누이동생두 중국혁명에 참전했다니까 어머니 홀로 남아있을겁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나? 숲구이막에서 유격대를 구원해준…》

《그것으로 해서 그때 붙잡혀가 감옥에서 돌아왔습니다.》

《죽일놈들… 허면 그날아침 총메고 올라왔다는 것들이 <토벌대>였구만?》

《아니, 아닙니다.

그날아침 올라온 사람들은 우리 숲구이막에서 치료받은 유격대아저씨의 전우들이였습니다. 조국광복회조직을 통해 부상당한 유격대아저씨가

우리 숲구이막에서 치료받고있다는것을 보고받은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대원들을 파견하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날아침 그분들이 서로 붙들고반가와하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장군님께서 동무의 신상을 심려하시여 식사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신다는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처에 연락원을 띄웠다는것입니다.

부상당한 아저씨의 몸이 아직 채 추서지 못했으니 며칠 더 묵어서 떠나라고 아버지는 붙잡는 데도

<떠나야 합니다. 장군님께 이 기쁜 소식을 한시바빠 알려드리여 걱정을 덜어드려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걷기 힘들어하는 아저씨를 저마끔 부축하여그날저녁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지휘관인듯한 키가 후리후리한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작별인사를 하며

<아버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같은 인민에 의탁하여 도움을 받지 않고서야 어찌 일제 백만대군과 우리 유격대가 싸울수 있겠습니까? 일제를 소멸하고 반드시 나라를 찾고야말겠습니다. 아버님,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광복된 조국땅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우리 동무를 살려준 이 사실을 장군님께 보고올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얼 했다구 장군님께까지 보고를… 이런 일이야 우리 백성들의 도리인데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은 아닙시다.>하더니 배낭을 풀어 흰손수건에 땀 손안에 들락말란것을 아버지께 쥐여주는것이였습니다.

<왜놈목재소를 칠 때 놈들에게서 로획한것입니다. 내다 팔면 말 한필은 살수 있을겁니다. 받아두십시오. 우리의 자그마한 성의입니다.>

천만에, 받을수 없다고 물리치는 아버지의 토스레웃주머니에 강요하다싶이 넣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보내고 펼쳐보니 회중시계였습니다.》

《음?! 그러면 동무의 그 <망돌>이 그 시계란말인가?》

《그렇습니다. 시계라곤 목재소장이나 왜놈순사들의 조끼주머니에 늘어진 번쩍이는 시계줄이나 먼바루서 바라보았지 바늘이 책책 돌아가는 시계를 손에 만져보긴 그때가 처음입니다. 아버지는 유격대아저씨의 뜨거운 마음이 살아 맥박치는 그 회중시계를 명주보자기에 싸서 껍속 깊이 소중한 간직하고 좀처럼 꺼내보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보>라고 했구만… 듣고보니 이 세상 그 어떤 보물에두 비길수 없고 돈으로 계산할수 없는 고귀한 보물이구만.》

《어머니가 넘겨준 이 시계를 품에 안고 유격대아저씨의 뜨거운 마음이 살아 고동치는 초침소리

에 내 심장의 맥박을 재어보면서 살아왔지요.

그런데 조국이 위협에 처했다는 말을 들은 저는 선참으로 탄원해서 달려왔단말입니다.》

《대단하이, 장하오. 그 결의가 이만저만이 아니구만.》

《그런데 여기 문화부에 처박아두니 어디 참을 수가 있어요? 뼈가 막 쭈서서… 그래 낮에는 전방에 보내달라고 대렬참모에게 막 대들었지요.》

나는 우리가 진행하는 혁명전쟁은 날창으로 적을 소멸하기만 하는 살륙전이 아니라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고상한 의무를 수행하는 정의의 전쟁이라는것을 설명해주었다.

《저야 나두 모르는게 아니지만 이제 승리하고 돌아가선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나라 제땅에 달려든 미국놈을 내 손으로 잡은게 한놈도 없다고 어떻게 말해요?》

나는 이제 무리로 잡을 때가 올터이니 합심하고 기다리라고 고무해주었다.

포소리도 멀어지고 도란도란 주절대는 개울물 소리까지 들려오는데 쏘고 찌르고 치면서 죽음과 삶이 순간에 교차하는 인간세계의 싸움은 내 알바 아니라는듯 숲속에서는 소쩍새가 소쩍소쩍 울고있었다. 전선에서 얻어보기 힘든 서정적인 한 여름밤이었다.

그후 며칠이 지나서였다. 저녁노을이 피빛으로 탈 때 것처럼 안타까이 나가고싶어하던 전방으로 떠나는 한동완동무와 나는 석별의 악수를 나누었다.

내 이제 동무네 중대에 나가볼터이니 그때에는 내가 불손하게 《망돌》이라고 모독한 《가보》의 년대기가 아니라 미국놈 잡은 통쾌한 무훈담을 들려달라고 하니 꼭 오라고 하면서 이제 소원이 풀렸다고 기뻐하던 모습은 보기에 또 미더운바가 컸다. 상봉도 그랬지만 리별도 또한 아쉬움의 정을 뒤에 남겨두지 않은 덤덤한 것이었다.

그후 나는 포연탄우 그칠새없는 전투환경속에서 한동무를 다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부대는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면서 패주하는 적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음성, 피산을 지나 충청도와 경상도 계선인 갈령을 넘어섰다. 봉황산에 집결한 적은 지원보충받는 력량과 포항으로 상륙한 미제침략군 부대들의 지원밑에 완강한 반격을 시도하고있었다.

전투는 치열하였다. 런대지휘처 부근에도 삼각형의 위치로 떨어지는 적 105밀리포탄이 머리들 새없이 날아왔고 하늘에선 적 비행기(썩썩기)와 그라망이 미친듯이 덩벼들었다. 포사격, 폭격에 지심이 흔들리는듯 대지가 들리웠다. 떨어지는 속에서도 런대장방의 전화벨은 신경질을 내며 계속 울리어왔고 숨이 턱에 닿은 연락병들이 팍투성이가 되어 연방 뛰어들과 달려나갔다.

2대대는 방금 점령한 뽕죽고지로 지휘처를 옮

겼다는 소식이며 김의룡정찰조는 지난밤 어둠을 타고 적중심 깊이 들어가 쥐도새도 모르게 적자동차를 빼앗아라고 새벽에 유유히 돌아왔다는 대답무쌍한 통보며, 2소대는 필사적으로 항거하는 적의 반돌격을 물리치면서 기습조를 파견하여 적포진지를 날려보냈다는 소식 등 듣기만해도 장쾌한것들이었다. 그러나 힘겨운 전투를 어렵게 진행하는 통보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좌측 무명고지 돌파를 명령받은 1대대 한개 중대가 검바위밑에서 좌절되었다는것이다. 적의 중기화력이 맹렬하니 곧 검바위쪽을 향하여 원호사격을 집중해달라는 긴박한 요구가 전화통에 한두번 울려왔다. 불리한 상황에서 간고한 전투를 하고있는게 틀림없었다.

갈령 남쪽하늘에 봉황새처럼 두 나래를 펴고 높이 솟은 아아한 지형조건과 보충된 군사력량으로 시간적여유를 얻으려고 적은 완강히 저항해나섰다. 전투는 하루이틀에 끝날것 같지 않았고 적아간의 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무렵 나는 통신대대에 나가 권선작업을 도와주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부대 지휘부로부터 빨리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서둘러 목암동 언덕 일대숲에 자리잡고있는 사단문화부로 돌아왔다. 풀밭에 서류를 펴놓고 무슨 문건들을 정리하고있던 김희준부부장동지가 들어서는 나를 보더니 물었다.

《연락을 받았소?》

《받고 떠나오는 길입니다.》

《수고했소. 앉아 좀 쉬오. 다름아니라 미국놈을 여라문 생포했는데 그중엔 장교도 한놈 끼여있소. 심문해야겠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이 어데 있어야지… 그래 불렀소. 한대 피우고 나와 함께 부대장한테 가지요.》

나는 권하는 《공작》담배를 받아들고 펼쳐놓은 문건들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무슨 문건입니까?》

《전방에서 올라온 전투진행문건들이요. …아 그런데 작가동무, 생각나우?》

《무엇말입니까?》

《왜 전방에 보내주지 않는다구 떼를 쓰며 애를 먹이던 한동완동무 기억나우?》

《그 동무 일전에 사기충전하여 전방으로 나가 지않았습니까? 잘 싸우라고 나두 바래주었는데요.》

《…희생되었습니다.》

《뭐요?》

《아주 잘 싸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로 부끄럽지 않게, 조국의 아들답게…》

그 누가 뒤에서 불의에 내려치는 방망이에 뒤통수가 쨍하고 울리는 현훈증이 왔고 왔고 커다란 돌덩이가 목구멍을 틀어막는 압박감이 왔다. 머리로 솟구쳐오르는 충혈된 피는 좀처럼 식어

내릴줄 몰랐다.

《여기 중대에서 보내온 그 동무의 문건도 있습니다.》

부부장동지가 골라주는 문건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였다.

- 《성명 한동완

소속 47련대 1대대 3중대 2소대 1분대장

△ 전투업적

이 동무는 청천리에서 후송한 1분대장 후임으로 전투임무에 새로 배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계받은 첫날부터 분대원들을 제동생처럼 보살피면서 중대의 전투명령을 충실히 집행하여 전반적 작전의 어려운 고비들을 풀었다.

미원리전투에서는 적 전차 1대를 반땅크수류탄으로 까부시여 중대진격을 보장하였고 봉황산 무명고지전투에서는 좌익을 돌파할 명령을 받고 분대원들을 이끌고 오르던중 불의에 달려드는 미제 고용병 한개 분대 성원을 자동총련발사격으로 전멸시키는 용감성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검바위 적의 영구화점에서 내뿜는 맹렬한 중기화력에 중대의 전진이 저지되어 련대지휘부에 엄호포사격을 집중해줄것을 요구하다가 (아 그제 련대지휘처에 원호사격을 전화로 요구한것이 이 동무였구나) 이미 때가 늦은것을 직감한 분대장은 중대의 진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신 수류탄뭉음을 안고 달려가 적영구화점을 날려보낸후 장렬히 희생되었다.

한동완분대장의 희생장소는 략도에 표기했으며 그의 소지품은 따로 포장하여 함께 보냄.

문화부중대장.》

《저기 그의 소지품이 있습니다.》

부부장동지가 가리키는 그의 소지품이란것을 찾아들고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수첩이 하나, 치약과 치솔, 비누곽, 신발 한켠레, 발싸개 한조.

수첩을 펼치니 첫머리에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였고 다음갈피에는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쓴 보내지 못한 편지와 편지속에는 부대정문에서 인민군 정복차림을 한 기념사진이 끼워있었다. 그밖에 무엇인가 싸든 흰손수건이 보이기에나는 무심코 펼쳤는데 《앗 ! ...》 회중시계였다.

유격대아저씨의 뜨거운 마음이 살아움직인다고 하며 그의 군복 좌측 옷주머니 심장우에 소중히 간직되어 몸에서 떠나본일 없는 육체의 한부분 ! 그것을 준 사람들처럼 조국과 장군님을 위해 충성다하라고 어머니가 손수 물려준 한씨일가의 《가보》 !

시계는 살아있었다. 차각 차각 차각...

내려비치는 한여름 해빛아래 초침은 계속 더 기운있게 돌아가고있지 않는가.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았다. 죽을수 없다.락는듯이는...

나는 숙연히 깨울가로 나가 돌바위우에 앉았다.

구름이 흩어지고 산새들이 창공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시계의 초침소리는 내 심장을 두드리듯 귀속에서 계속 울리고있었다. 차각 차각 차각...

그가 죽었다고 누가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그는 살아있다. 죽은것은 그의 하나 육체요 그의 정신은 조국과 함께 영원히 쌓아숨길것이다.

이럴 때 이 정황에서 시인은 정녕 어떤 자세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것인가? 심장이여 대답하라, 독자여 말해달라.

그런데 나는 한줄의 시구도 한마디의 시어도 찾지 못했다. 아무리 시가 생활에서 폭발하는 격정의 불꽃이라 하여도 내가 안은 걱정은 시가 따라설수 없는 차원을 넘어선 충격이기때문이었다.

×

그후 부대 문화부에서 전투속보를 발간하게 되어 창간호편집을 마감지으며 나에가 시 한편을 청탁해왔다. 그런데 완성할 여유시간이 하루밖에 없었다. 시간이 이렇게 긴박한데 언제 사색하고 글귀를 고르고...

그것도 전선신문에 처음 내는 시이므로 소홀히 할수가 없었다.

다른 때 같으면 상상할수조차 없는 일이였지만 그때 나에게는 너무나도 응당한 일로 생각되었다.

순간 나의 눈앞에는 격동적인 시의 구절구절이 기적과 같이 나타났다.

당과 조국을 위해 청춘도 사랑도 미련없이 스스로 바친 의로운 사람들, 오늘의 행복도 미제에 대한 화려한 꿈도 최고사령관동지에게 맡기고 구슬처럼 맑고 깨끗한 충성심 하나만으로 고지와 준령 불비속을 넘고 헤치면서 서로 부른 이름들, 그 아름다운 이름들만 라렬해도 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리하여 나의 심장속에 간직했던 한동완, 김의룡, 리상태 등 고귀한 이름들이 그대로 시구로 옮겨졌다.

《이 사람들속에서

내 어찌 비겁할수 있으랴

이 싸움에서

우리 어찌 승리하지 않으랴》로 첫구를 댄 나의 첫 전선시는 전투속보 《승리를 위하여》 제1호 하단에 영원히 자리잡게 되었다.

밤교대

량덕모

뉘 집 아이 잠교대에 이어
합숙 짧은이들 코고는 소리
간간이 들려오는 광산마을거리
제집 부엌문도 소리 안나게 여닫고
조심히 걸어가는 밤교대

내 그만 한자국 헛디디여
복슬개 한마리라도 놀라
이 거리 달콤한 잠 깨칠가봐
내 눈 밝혀가며
조심히 걸어가는 밤교대...

광산마을이여, 한껏 고요가 깃들라!
사람들이여, 행복한 꿈 실컷 꾸라!
허나 내 힘찬 발걸음은 갯속에서 울리나니
땅속 한끝까지 흔들어깨우며
드세찬 착암기 정날로
발파구멍 뚫고 또 뚫으며

자국자국 저거 딛는
이 발걸음에서 시작된
마음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
먼동이 열릴무렵
새벽닭이 해치듯 런속발과 터치리라

아, 내 이 밤의 고요를
이렇듯 사랑해
더더욱 불타는 나의 눈빛
저 하늘가에
불타는 아침노을로 이어지고
검덕광부 나의 이 발걸음
전진하는 조국에 힘찬 숨결 더해주나니

만사람의 축복속에 떠들썩 입궐하는
낮교대보다 나는 좋아라!
잠든 거리를 숨죽여 지나
잠들줄 오르는 생활속으로
조국의 맥박을 안고가는 밤교대

《우리 마을》

백의선

누가 먼저 그렇게 불렀던가
다섯째의 돌격대숙소가 오뎀한 섬을
《우리 마을》이라고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가없이 펼쳐진 푸르른 바다
물새들마저 버리고 가던 외진 섬
여기에 첫 추녀를 울리며
웃음속에 불러보던 《우리 마을》

바다를 막아 물제방을 쌓는 억척같은 사나이들이
우물길엔 하얀 조개껍질 깔아놓고
뜨락에는 고향의 진달래도 붉게 피워
물의 향취로 그윽한곳

수월치는 않았어라
이 《마을》에 정들기가
그 언제였더냐
고향의 어머니와 처녀를 두고
그리움에 가슴타던 밤은
우등불에 젖은 옷을 말리우며
파스한 아래목이 그림던 때는

허나 그것이 무엇이랴
귀중한 모든것을
조국에 바칠것을 다짐한 우리에겐

아늑한 생활보다
거창한 창조의 생활이 귀중했거니

우리모두 생각했어라
련사흘 해일속에 섬이 뒤흔들릴 때
한주전작의 물을 온 돌격대가 나누며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못내리고
수령님 정해주신 한 초소를 비운다면
고향집 프락으로도 들어설수 없음을

아, 부럼없어라
우리 여기서
청춘의 첫 꿈을 서로 나누며
뜨거운 우정을 알았고
파도속에 어깨결고 뛰어들며
한뜻으로 뭉쳤거니

얼마나 행복한 날이었으랴
수령님의 감사전문을 받아안고
감격의 눈물 흘리던것은
가슴속엔 하나의 신념이 불탔어라
수령님의 가장 큰 믿음이 있는 그곳이
청춘들이 살 영원한 마을이라고

사랑하노라, 《우리 마을》이여
섬조개 굳어진 넋직한 바위

하늘가로 피어오르는 저녁연기에
달빛아래 은은한 손풍금소리
새 농업도시의 첫 가로등이라 부르는
앞마당의 작은 외등이여

청춘의 아름다운 희망을 실어
생활의 첫 추녀를 올린곳
조국에 바치는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숨된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 한곳 .

지도우에는 따로 새겨있지 않아도
너로 하여 거창한 바다우에는
수령님의 해빛아래 한껏 밝아진
새 마을들이 수없이 태어날것이 아니냐

심장을 바쳤기에 사랑하게 된
마을이여 마을이여
값높은 청춘을 아낌없이 살고싶은
우리의 정든 마을이여

검덕의 마음

리영복

한번 와본적 없어도
이미 낮이 익고 정이 든고장
머리우엔 사철 흰구름을 띄우고
지심깊이 위훈을 새기며
백두산을 우러러 솟아있는 검덕

쉽없이 울리는 발파소리가 듣고싶어
금굴에 폭포치는 쇠돌산이 보고싶어
아니 티없이 깨끗한
검덕의 그 마음이 보고싶어
내 막장을 찾아왔건만

그저 흥겹고 즐겁기만해
광부들 웃으며 떠들며
폐사로이 쇠돌을 캐는 채광기옆에
나는 지금 서있어라 생각에 잠기여...

해방전 무릎엔 개가죽을 붙이고
등에는 질통을 지고 채찍에 몰려
《오소리굴》을 기여다니며
《두더지》라 불리우던 사람들이
파연 오늘의 저 광부들이란 말인가?

내 마음 이슬에 젖어
채광기를 쓸어보며 만져보노라니
여기선 모든것이 광부들을 위해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랑과 행복이
광부들만을 위해 있는듯싶구나

랑림의 아름답드리 동발도
날이 가면 위험하다고
쇠물로 무쇠기둥을 부어 보내주시고
막장마다 안전기사를 세워주신
은혜로운 그 사랑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시건만
검덕의 광부들이 보고싶다 하시며
친애하는 그이 령넘어 오시였던 날
몸소 깊고깊은 막장까지 들어오시여

광부생활 보살피시며 하시던 말씀이여

-사철 지하에서 일하며
수고하는 광부들인데
태양등도 달아주고
기계로 흥겹게 일하도록 해줍시다 !

아, 크나큰 사랑의 그 해발로
깊디깊은 막장은 밝아만지고
광부들의 웃음 저리도 높은것 아닌가
그 사랑에 충성은 불타
위훈의 발파소리 쉽없이 울리는것 아닌가

내 났을 잃고 서있는 이 순간에도
웃자락을 날리며 인차 내리고
꼬리진 쇠돌차량들이 오가는
오, 너의 우렁찬 생활의 메아리가
어디에 그 원천을 두었는가를
다 말해주고있구나

돌아라, 채광기야 더 힘차게
뿔어라, 태양등아, 더 밝고 눈부신 빛을
지난날 고역에 시달리던 광부들을
사랑으로 받들어 빛내여주시는
친애하는그이의 하늘같은 은덕
힘에 되고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여...

광부들이 한껏 흥겨우라고
더 밝게 웃으라고
수천척땅밑으로 더 깊이 내려가면 갈수록
사랑도 끝없이 차넘치거니

아, 사시절 머리우에 흰구름을 띄우고
지심깊이 위훈을 새기며
백두를 우러러 솟아있는 검덕이여
금굴에 쌓이는 쇠돌산은
어머니당에 바치는
너의 티없는 마음인줄 아노라 !

나는 지금 한편의 시를 번역한다

-중국의 한 시인이 관문점에서 시 《혈맥》을 썼다-

차영보

밤, 깊어가는 이 밤
나는 지금 한편의 시를 번역한다
낮도 모르고 나이드 모를
한 중국시인의 시 한편을

시인의 뜨거운 숨결
마디마디 내 가슴에 불을 붙인다
재털이우에 피우다 놓은 담배는
아까부터 깊숙이 타들어간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머나먼길 달려온 형제나라의 시인
이 나라에 가로막힌 군사분계선 철조망은
그의 피더운 가슴 아프게 허비였나니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쥐고
원고지우에 쓴 시인의 넋이
점점이 잉크더냐
점점이 피방울이더냐

분열된 조선의 아픔을 두고
상치입은 형제나라의 원한을 두고

절통한 가슴 풀어헤쳐 부른
의로운 형제의 목소리 !

아, 벗간에 나눌것은 기쁨만이 아니어서
이 나라의 고통과 아픔이
이토록 형제의 가슴에
무겁게 실리는것인가

마디마디 피를 끓이는 통일의 절규
런런이 가슴태우는 원한의 항변
그것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형제의 목소리-10억의 웨침 !

나는 지금
걱정에 파도치는 가슴안고
세계의 목소리를 번역한다
그들의 심장속 웨침을 !

아, 깊어가는 밤, 깊어가는 생각
계급적형제란 무엇인가? !
담배불은 꺼짐없이 타들어가도
나는 지금 집을념을 못한다 !

속담풀이

- 강생이도 골목에 들면 범을 문다.
강생이란 강아지의 사투리이다. 비록 약한
동물이라도 막다른 골목에 들면 그 대상이
강할지라도 한번 결판을 내고야만한다는 말이다.
-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뜻이다.
- 걸기도전에 뛰려고 한다.
더 쉽게 더 작은 일도 해낼 힘이 없으면서
어리석게도 지나치게 어렵고 큰일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다.
- 고기도 저 놀던 물이 좁다고 한다.
누구나 서먹서먹한 낯선 환경보다는 잘 아는
낯익은 환경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 고사리도 꺾을 때 꺾는다.
무슨 일이나 다 시기가 있으므로 너무 서둘지
말고 너무 늦잡지도 말고 그때를 잘 알아서

- 해야 된다는 말이다.
- 고약으로 속병을 고치지 못한다.
고약은 외상을 치료하는 약이다. 마땅하지
못한것으로는 일을 성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 고인물에 이끼가 낀다.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수양을 하지 않으면
녹이 쓸거나 변질한다는 말이다.
- 끓으면 터지는 법
(착취사회에서)원한이나 울분이 쌓이고쌓이면
터지고야 만다는 뜻이다.
-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는 법이다.
(주로 부정적인것에 대하여)징조가 찾아면
필경 그와 관련된 일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다.
- 구하면 얻고 놓으면 잃는다.
기어코 구하려고만 노력한다면 얻어자게 되며
놓아주면 결국에 가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다.

조선로동당창건 40돛기념 전국 방송극 작품현상모집심사결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여 근로자들의 창작 열의와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문학 예술이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조선로동당창건 40돛에 즈음하여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방송극작품현상모집사업에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 군인, 학생 등 전국각지의 근로자들이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수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에서 당선된 작품들과 당선자들은 다음과 같다.

△방송극, 방송소설

1등 방송극 《준엄한 시각에》 홍영혁 조선인민군 군인

1등 방송소설 《세천교》 김인섭 함경남도 고려악관리국

2등 방송극 《우리 안겨사는 품》 김희남 모란봉시계공장 로동자

2등 아동방송극 《산림보호원의 아들》 박춘만 평안남도 증산군 국토자원보호감독대 감독원

3등 방송극 《들국화》 리금철 평양시 혁명사적관리총국 자재상사 지도원

3등 방송극 《영생하는 삶》 원일섭 6월4일차량공장 로동자

3등 방송소설 《행복한 가정》 안상길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

3등 아동방송극 《충성의 노래》 장사국 황해북도 봉산군 봉산녀자고등학교 교원

3등 동화극 《남다른 재주》 김재원 평안북도 정주군 서주협동농장 농장원

가작 방송극 《도시에서 온 처녀》 최영범 황해북도 황주군 삼전고등학교 교원

가작 방송소설 《아들의 편지》 리규훈 함경북도 길주군 기상수문관측소 예측원

가작 방송소설 《광산에서 만난 사람》 필종설 황해남도 장연군 락연로동자구

가작 방송소설 《조선공민》 김창성 함경북도

청진시 부령군 최현협동농장 농장원

△련속방송극

2등 련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모내기편) 최봉룡 평양시 강남군 고읍협동농장 농장원

2등 련속아동방송극 《남쪽에서 온 편지》 (미국비료강매책동반대편) 한석철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 당보 2등

3등 련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광산편) 박순철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로천분광산 로동자

3등 련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가을걷이편) 송중국 평안남도 증산군 풍정협동농장 농장원

가작 련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닭공장편) 백인삼 평안북도 구성닭공장 로동자

△토막극, 재담

1등 토막극 《태풍예보》 김광수 조선인민경비대 군인

2등 토막극 《휴양소로 떠나는 날》 함창군 강원도 원산시 와우동

2등 토막극 《어느한 건설장에서》 박혜일 평양시 보통강전기공장 지령원

2등 토막극 《한방울의 무게》 리영남 황해북도 건설자동차수송사업소 로동자

2등 재담 《축산일군회의에 가는 날》 리룡남 평양시 대성구역 문화회관 관장

2등 재담 《간석지의 새 모습》 리문성 황해남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로동자

2등 재담 《통일단결 만세》 김경화 조선인민군 군인

3등 토막극 《특등을 즐기다》 장광남 신의주화학섬유공장 로동자

3등 토막극 《제힘을 믿자요》 최정두 함경북도 청진주력종합기업소 지도원

3등 토막극 《끝없는 목표》 리윤철 조선인민군 군인

가작 토막극 《물이 아니다》 김준영 평양시 력포구역 소신동

가작 재담 《우리는 검덕으로 갑니다》 허정준 함경남도 방송위원회 단천시 주재기자

박우물

신병강

지난날 열다섯 가옥이
저 물을 함께 마시며 살았는지
백년목은 향나무 뿌리를 잡겼다고
장생불로수라 이름도 높았는지
박우물 박우물 분계선의 박우물

발김매고 돌아오는 젊은 농부들
넙적 옆더 타는 목 추겼는지
인정깊은 너인들 길손들 반기며
쪽박에 버들잎 띄워 반쳐올렸는지
박우물, 박우물 분계선의 박우물

팔월추석 달밝은 그 밤엔
백학산에 달이 지도록 그네뛰며 놀던
달덩이같은 처녀들의 어여쁜 그 얼굴
찰랑찰랑 네 물우에 비꼰다지

박우물, 박우물 분계선의 박우물

기미년 왕가물에 강물은 말라도
너 박우물만은 마른적없어
그것이 바닥없는 이고장 민심이라 했던가
칠팔월 복철에도 이가 시려 못마셨다던
그 물끓은 그 어디로 말라버렸느냐
화목하던 열다섯 가옥은 어디에 가고
허리부러진 너 향나무뿐이냐

분렬의 -40여년세월!-
이제는 그 자취마저 사라졌으니
오호, 갈증에 타는 목이 아니다
박우물 박우물 분계선의 박우물
네 잠시라도 솟아나
분노에 타는 이 가슴 식혀줄수 없을가!